중·고등 국어 문법 · 문법01~10 한 권 요약

국어 문법 개념 요약집

소리 · 단어 · 문장 · 담화를 나누어 보고, 규범과 역사로 다시 본다

대치동 재우쌤

원고 v1.2.1 · PDF v1.0

차례

	전체 지도	2
문법01	음운의 체계	3
문법02	음운의 변동	13
문법03	형태소와 단어의 짜임	31
문법04	품사	39
문법05	어휘와 의미 관계	49
문법06	문장 성분과 구조	56
문법07	문법 표현	66
문법08	담화	77
문법09	어문 규범	83
문법10	국어의 변화와 문자	93
	말미 비교 묶음	104
	정답과 해설	107
	개념 찾아보기	116

이 책의 표시

문법02-06 개념 번호 — 찾아보기와 연결

B 단원 안의 묶음 기호

같음 다름 비교표의 판정

[멍는] 발음 · [내가 고른] 절의 범위

◯ 음성 알맞은 것에 ◯ 표시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전체 지도

> **문법은 소리·단어·문장·담화를 살피고, 그 대상들을 규범과 역사의 관점에서 다시 본다.**

분석 대상

살펴보는 대상	핵심 질문	연결 단원
소리	어떤 소리이며, 어떤 조건에서 바뀌는가?	문법01 음운의 체계 · 문법02 음운의 변동
단어	무엇으로 이루어졌고, 어떤 종류이며, 어떤 뜻·어휘인가?	문법03 형태소와 단어의 짜임 · 문법04 품사 · 문법05 어휘와 의미 관계
문장	각 부분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떻게 짜이고 표현되는가?	문법06 문장 성분과 구조 · 문법07 문법 표현
담화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무슨 뜻으로 말하는가?	문법08 담화

같은 대상을 다시 보는 관점

관점	핵심 질문	적용 대상	연결 단원
어문 규범	어떻게 적고, 어떤 발음이 인정되는가?	소리·단어·문장의 발음과 표기	문법09 어문 규범
국어의 변화와 문자	국어가 어떻게 달라졌고, 문자를 어떻게 만들어 사용했는가?	소리·단어·문장과 이를 적는 문자	문법10 국어의 변화와 문자

‘덮개’를 세 관점에서 살피기

‘냄비의 **덮개**를 열었다.’

관점	묻는 것	확인할 내용	연결 단원
단어의 짜임	무엇으로 이루어졌나?	덮- + -개 = 파생어	문법03
품사	어떤 종류인가?	명사	문법04
어휘와 의미	어떤 어휘이며 무슨 뜻인가?	고유어이며 이 문장에서는 ‘뚜껑’과 비슷한 뜻	문법05

> **파생어·명사·고유어는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이므로 한 낱말에 함께 성립한다.**

문법01 음운의 체계

단원 지도

핵심 질문 글자 모양을 보는 것과 실제 소리를 분석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 **음운** — 뜻을 구별하는 소리 단위 A
  - **분절 음운** — 소리의 흐름에서 나눌 수 있음 B
    - **자음** — 조음 위치·조음 방법·소리의 세기 D·E
    - **모음** — 음절의 중심 F·G
      - **단모음** — 혀·입술의 모양 유지 F
      - **이중 모음** — 단모음과 반모음의 결합 G
  - **비분절 음운** — 길이·억양 B
- **다른 층위** — 음절·문자 C

묶음	질문	개념
A	사람마다 말소리가 다르면 음운도 다를까?	음운·음성·최소 대립쌍
B	자음·모음과 길이·억양은 어떻게 다를까?	분절·비분절 음운
C	글자에 적힌 자음은 모두 소리 날까?	문자·음운·음절
D·E	자음 하나를 왜 여러 이름으로 부를까?	조음 위치·조음 방법·소리의 세기
F	단모음은 어떤 기준으로 나눌까?	혀의 앞뒤 위치·혀의 높이·입술 모양
G	이중 모음은 두 음절일까?	이중 모음·반모음

문자	ㅇ·ㅏ·ㄴ	3개
음운	ㅏ·ㄴ	2개
음절	안	1개

초성 ㅇ은 글자로는 적지만 소리는 없다.

© 대치동 재우쌤

A 사람마다 말소리가 다르면 음운도 다를까?

짧은 답 실제 소리가 달라도 **뜻을 구별하는 같은 단위**로 인식하면 같은 음운이다.

음운 문법01-01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음성 문법01-02	발음 기관을 통해 실제로 만들어지는 구체적인 말소리.
최소 대립쌍 문법01-03	다른 소리는 같고 같은 자리의 소리 하나만 달라 뜻이 구별되는 두 단어의 짝.

1 같은 자리의 소리 비교 → 2 다른 소리가 하나인지 확인 → 3 뜻도 다른지 확인

비교	같은 부분	다른 부분	판단
굴·꿀	ㅜ·ㄹ	첫소리 ㄱ·ㄲ	최소 대립쌍
산·솔	첫소리 ㅅ	모음과 끝소리	최소 대립쌍 아님

두 사람이 ‘나’를 말할 때 실제 목소리는 달라도 첫소리는 같은 ㄴ으로 알아들을 수 있다.

! 헷갈림 주의

- 뜻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최소 대립쌍은 아니다. 다른 소리의 수도 확인한다.

? 짧은 확인

문법01-Q01 할머니와 어린 동생이 각각 ‘물’을 말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달랐지만, 끝소리는 모두 같은 ㄹ로 알아들었다. (가)와 (나)는 각각 어떤 개념에 해당하는가?

(가) 두 사람이 실제로 낸 끝소리: ○ **음성** ○ **음운**

(나) 같은 ㄹ로 알아듣는 단위: ○ **음성** ○ **음운**

문법01-Q02 최소 대립쌍인 것을 고르고, 두 단어에서 서로 다른 소리를 각각 쓰자. 소리의 길이는 따지지 않는다.

① 달 · 탈

② 달 · 봄

답 _____

© 대치동 재우쌤

B 자음·모음과 길이·억양은 어떻게 다를까?

짧은 답 자음·모음은 **나눌 수 있는 소리**, 길이·억양은 **그 소리에 얹혀 나타나는 요소**이다.

분절 음운 문법01-04	말소리의 흐름에서 자음·모음처럼 하나씩 나눌 수 있는 음운.
비분절 음운 문법01-05	따로 떼어 낼 수 없고 자음·모음에 얹혀 나타나는 길이·억양 등의 요소.



요소	같은 것	달라지는 것
길이	눈의 자음·모음	신체 기관 [눈] · 내리는 눈 [눈ː]
억양	‘다 했어’의 자음·모음 배열	끝을 내려 알림 · 끝을 올려 물음

[ː]는 앞의 소리를 길게 발음한다는 표시이다.

! 헷갈림 주의

- 억양만으로 문장 종류가 언제나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는다. 형식과 상황도 살핀다.

? 짧은 확인

문법01-Q03 각 짝은 자음·모음의 배열이 같다. 제시된 발음과 말하는 방식을 보고, 뜻을 구별하는 요소를 각각 고르자.

(가) 말(타는 동물) [말] · 말(사람이 하는 말) [말ː]: ○ **길이** ○ **억양**

(나) ‘밥 먹었어.’라고 끝을 내려 알림 · ‘밥 먹었어?’라고 끝을 올려 물음: ○ **길이** ○ **억양**

문법01-Q04 자음 ㄷ과 소리의 길이를 각각 알맞게 연결하자.

ㄷ: ○ **분절 음운** ○ **비분절 음운**

길이: ○ **분절 음운** ○ **비분절 음운**

C 글자에 적힌 자음은 모두 소리 날까?

짧은 답 **적힌 기호와 실제 소리**를 구별해야 한다.

음절 문법01-06	모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말소리의 단위.

문자	‘오’에 적힌 ㅇ·ㅗ	2개
음운	실제 소리 ㅗ	1개
음절	오	1개

소리의 구성	예	구성 요소
모음	오	ㅗ
자음+모음	너	ㄴ+ㅓ
모음+자음	알	ㅏ+ㄹ
자음+모음+자음	문	ㅁ+ㅜ+ㄴ

! 헷갈림 주의

- ‘오’의 초성 ㅇ은 소리가 없고, ‘옹’의 받침 ㅇ은 자음 소리가 난다.
- ‘알’의 초성 ㅇ을 소리로 세지 않는다. 소리의 구성은 모음+자음이다.

아래 두 문제는 실제로 발음되는 자음·단모음을 세며 소리의 길이는 세지 않는다.

? 짧은 확인

문법01-Q05 ‘강아지’는 ㄱ·ㅏ·ㅇ·ㅇ·ㅏ·ㅈ·ㅣ의 자음·모음 글자 7개로 적는다. 실제로 소리 나는 자음·단모음은 모두 몇 개인가?

답 _____

문법01-Q06 ‘마루’는 몇 음절이며, 실제로 소리 나는 자음·단모음은 모두 몇 개인가?

답 _____

D·E 자음 하나를 왜 여러 이름으로 부를까?

짧은 답 하나의 자음을 **조음 위치·조음 방법·소리의 세기**라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살피기 때문이다.

자음 문법01-07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에서 막히거나 좁아지는 등 장애를 받으며 나는 소리.

© 대치동 재우쌤

조음 위치 문법01-08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는 위치.
조음 방법 문법01-09	공기의 흐름을 막거나 내보내는 방식.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 문법01-10	긴장 정도와 거세게 나오는 숨의 정도 등에 따른 구별이며 학교 문법에서는 소리의 세기로 설명함.

기준식

기준 **조음 위치** + **조음 방법** + **소리의 세기**

ㄲ **여린입천장소리** + **파열음** + **된소리**

■ 조음 위치의 뜻

조음 위치	발음 기관
입술소리(양순음)	두 입술
잇몸소리(치조음·혀끝소리)	혀끝과 잇몸
센입천장소리(경구개음)	혀의 앞부분과 센입천장
여린입천장소리(연구개음)	혀의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목청소리(후음)	목청 사이

■ 조음 방법의 뜻

조음 방법	공기의 흐름	울림의 구별
파열음	막았다가 터뜨림	안울림소리
파찰음	막았다가 마찰을 일으키며 내보냄	안울림소리
마찰음	통로를 좁혀 마찰을 일으킴	안울림소리
비음	입안 통로를 막고 코로 내보냄	울림소리
유음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 떼거나 혀 양옆으로 흘려보냄	울림소리

겹침표

조음 방법	소리의 세기	조음 위치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찰음	예사소리		ㅅ			
	된소리		ㅆ			
	세기의 짝 없음					ㅎ
비음	세기의 짝 없음	ㅁ	ㄴ		ㅇ(받침)	
유음	세기의 짝 없음		ㄹ			

빈칸 = 해당 없음. ㅎ과 비음·유음에는 예사·된·거센소리의 짝을 두지 않는다.

비교

비교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소리의 세기
■ ㅁ vs ■ ㅂ	같음 입술소리	다름 ■ 비음 ■ 파열음	—
■ ㅁ vs ■ ㄴ	다름 ■ 입술소리 ■ 잇몸소리	같음 비음	—
■ ㄱ vs ■ ㄲ vs ■ ㅋ	같음 여린입천장소리	같음 파열음	다름 ■ 예사소리 ■ 된소리 ■ 거센소리

! 헷갈림 주의

- 표의 ㅇ은 받침에서 나는 소리다.
- 소리의 세기는 목소리 크기가 아니다. ㅂ을 크게 말해도 ㅃ이 되지는 않는다.
- ㄲ·ㄸ·ㅃ·ㅆ·ㅉ은 각각 하나의 자음이다.

? 짧은 확인

문법01-Q07 ㄷ과 ㄴ을 비교한 말로 맞는 것은?

①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같다.

② 조음 위치는 다르고 조음 방법은 같다.

③ 조음 위치는 같고 조음 방법은 다르다.

문법01-Q08 '조음 위치가 잇몸이고, 공기를 코로 내보낸다'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음은?

○ ㄴ ○ ㄷ ○ ㅁ

? 짧은 확인

문법01-Q09 ㄱ과 ㅋ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같다. 두 자음은 각각 어떤 종류인가?

ㄱ: ○ 예사소리 ○ 된소리 ○ 거센소리

ㅋ: ○ 예사소리 ○ 된소리 ○ 거센소리

문법01-Q10 "'까'의 ㄲ은 두 개의 ㄱ을 차례로 발음한 것이므로 자음 두 개로 센다." 이 설명은 맞는가?

○ O ○ X

F 단모음은 어떤 기준으로 나눌까?

짧은 답 **혀의 앞뒤 위치·혀의 높이·입술 모양**을 함께 살핀다.

모음 문법01-11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나며 음절의 중심을 이루는 소리.
단모음 문법01-12	발음하는 동안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모음.
단모음의 분류 문법01-13	혀의 앞뒤 위치·혀의 높이·입술 모양의 세 기준을 함께 적용하는 분류.

기준	하위 분류	확인 질문
혀의 앞뒤 위치	전설·후설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이 앞쪽인가 뒤쪽인가?
혀의 높이	고·중·저	혀가 높은가 중간인가 낮은가?
입술 모양	평순·원순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가?

겹침표

열 기준: 혀의 앞뒤 위치·입술 모양 · 행 기준: 혀의 높이

혀의 높이	전설·평순	전설·원순	후설·평순	후설·원순
고모음	ㅣ	ㅟ	ㅡ	ㅜ
중모음	ㅔ	ㅚ	ㅓ	ㅗ
저모음	ㅐ		ㅏ	

빈칸 = 해당 없음. 표준 발음법의 10단모음 체계이며 ㅚ·ㅟ의 이중 모음 발음도 허용된다.

비교

비교	혀의 앞뒤 위치	입술 모양	혀의 높이
■ ㅣ vs ■ ㅔ	같음 전설	같음 평순	다름 ■ 고 ■ 중
■ ㅡ vs ■ ㅜ	같음 후설	다름 ■ 평순 ■ 원순	같음 고

! 헷갈림 주의

- 고모음은 목소리가 높다는 뜻이 아니라 혀의 위치가 높다는 뜻이다.
- 글자 모양과 발음 체계는 별개다. ㅚ·ㅟ의 분류와 허용 발음을 구별한다.

아래 두 문제는 위 10단모음 표를 기준으로 답한다.

? 짧은 확인

문법01-Q11 ‘후설 모음이면서 원순 모음이고, 고모음이다’라는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모음은?

○ ㅗ ○ ㅜ ○ ㅡ

문법01-Q12 ㅗ와 ㅜ를 비교할 때 달라지는 기준은?

○ 혀의 앞뒤 위치 ○ 혀의 높이 ○ 입술 모양

G 이중 모음은 두 음절일까?

짧은 답 이중 모음도 **한 음절의 모음 부분**을 이룬다.

이중 모음 문법01-14	발음하는 동안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모음이며 단모음과 반모음의 결합으로 설명함.

반모음 문법01-15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지만 혼자서 음절을 이루지 못하고 단모음과 결합하는 소리.

구성식

j + ㅏ = ㅑ

j + ㅐ = ㅒ

j + ㅓ = ㅕ

j + ㅔ = ㅖ

j + ㅗ = ㅛ

j + ㅜ = ㅠ

w + ㅏ = ㅘ

w + ㅐ = ㅙ

w + ㅓ = ㅝ

w + ㅔ = ㅞ

(예외) ㅡ + j = ㅢ ㅡ 이 자료에서는 단모음 뒤에 반모음이 이어지는 것으로 본다.

j는 ㅣ 계열, w는 ㅗ·ㅜ 계열의 반모음 기호이며 영어 알파벳 이름으로 읽으라는 뜻은 아니다.

비교

비교	공기의 장애	혼자 음절을 이룸
■ 단모음 vs ■ 반모음	같음 장애 없음	다름 ■ 가능 ■ 불가능

'야·와'는 각각 한 음절이며 '이아·우아'의 두 음절과 구별된다.

! 헷갈림 주의

- 한 음절이라는 말과 구성 소리가 하나라는 말은 다르다.
- 위 목록은 이중 모음 11개이며, ㅚ·ㅟ의 이중 모음 발음 허용은 F에 있다.

? 짧은 확인

문법01-Q13 "반모음은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으므로, 혼자서도 음절을 이룰 수 있다." 이 설명은 맞는가? ○ O ○ X

문법01-Q14 모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ㅚ·ㅟ는 단모음 표에 있으므로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면 언제나 틀리다.

② 이중 모음은 발음하는 동안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달라지지 않는다.

③ '요'는 이중 모음으로 이루어진 한 음절이며, '이오'는 두 음절이다.

◎ 다시 비교하기

비교

비교	구별 기준
■ 음운 vs ■ 음성	다름 ■ 뜻을 구별하는 단위 ■ 구체적인 말소리
■ 분절 음운 vs ■ 비분절 음운	다름 ■ 하나씩 나눌 수 있음 ■ 소리에 얹혀 나타남
■ 문자 vs ■ 음운 vs ■ 음절	다름 ■ 적힌 기호 ■ 구성 소리 ■ 한 번에 발음되는 단위
■ 조음 위치 vs ■ 조음 방법	다름 ■ 장애를 받는 위치 ■ 장애를 받는 방식
■ 단모음 vs ■ 이중 모음	다름 ■ 발음 중 혀·입술 유지 ■ 발음 중 변화
■ 단모음 vs ■ 반모음	다름 ■ 혼자 음절 가능 ■ 혼자 음절 불가능

예사·된·거센소리는 목소리 크기의 구분이 아니며, 고모음은 목소리의 높낮이가 아니라 혀의 높이에 따른 이름이다.

다음 단원으로 ▶ 자음·모음의 성질을 기준으로 변동 전후를 비교한다. 다음 단원에서는 어떤 소리가 달라졌는지와 그 변화의 조건을 확인한다.

문법02 음운의 변동

단원 지도

핵심 질문 표기와 발음이 다를 때, 어떤 소리가 어떤 조건에서 달라졌을까?

- **음운의 변동** — 소리 종류·개수의 변화 A
  - **교체** — 끝소리 규칙·비음화·유음화·구개음화·된소리되기·반모음화 B~F
  - **탈락** — 자음군 단순화·ㄹ·ㅎ·ㅡ·동일 모음 탈락 G·H
  - **축약** — 거센소리되기·모음 축약 I
  - **첨가** — ㄴ·반모음 첨가 J
- **함께 구별할 것** — 연음·사잇소리 현상 B·K
- **여러 변동의 연결** — 조건·순서·횟수 L

묶음	질문	개념
A	소리의 개수만 세면 변동을 알 수 있을까?	음운의 변동·교체·탈락·축약·첨가
B	받침은 언제 대표음으로 바뀌고, 언제 그대로 이어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연음
C	ㄱ·ㄷ·ㅂ·ㄴ·ㄹ은 이웃 소리 때문에 어떻게 달라질까?	비음화·유음화
D	ㄷ·ㅌ 뒤에 ㅣ가 오면 언제나 ㅈ·ㅊ이 될까?	구개음화
E	된소리가 나는 조건은 모두 같을까?	된소리되기(경음화)
F	두 음절이 한 음절이 되면 모두 축약일까?	반모음화
G	겹받침은 언제 하나만 남을까?	자음군 단순화
H	자음이나 모음이 사라지는 조건은 무엇일까?	ㄹ 탈락·ㅎ 탈락·ㅡ 탈락·동일 모음 탈락
I	두 소리가 합쳐져 새 소리가 되면 무엇일까?	거센소리되기(자음 축약)·모음 축약
J	원래 없던 소리가 생기면 무엇을 확인할까?	ㄴ 첨가·반모음 첨가
K	사잇소리 현상은 모두 첨가일까?	사잇소리 현상
L	한 낱말에 여러 변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분석할까?	변동의 순서·횟수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고, **실질 형태소**는 구체적 뜻을 나타낸다.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 뜻을 나타내며 조사·어미·접사가 여기에 든다.

용언(동사·형용사)은 어간 뒤에 어미가 붙어 활용한다. **접사**는 어근에 붙어 새 단어를 만든다(문법03·04).

이 단원에서는 발음의 자음·모음 변화에 집중하며 소리의 길이는 표시하지 않는다.

A 소리의 개수만 세면 변동을 알 수 있을까?

짧은 답 **음운 수의 변화와 남은 소리**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음운의 변동 문법02-01	음운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바뀌거나 없어지거나 합쳐지거나 더해지는 현상.
교체 문법02-02	한 음운이 다른 한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탈락 문법02-03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축약 문법02-04	두 음운이 합쳐져 새로운 한 음운이 되는 현상.
첨가 문법02-05	없던 음운이 더해지는 현상.

구성식

- **교체** A → B (음운 수 그대로)
- **탈락** A+B → A 또는 B (−1)
- **축약** A+B → C (−1)
- **첨가** A → A+B (+1)

종류	변동 전후	소리 개수	구별할 질문
교체	A → B	그대로	있던 소리 하나가 다른 소리 하나로 바뀌었는가?
탈락	A + B → A 또는 B	줄어듦	두 소리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나머지가 남았는가?
축약	A + B → C	줄어듦	두 소리가 합쳐져 새로운 소리 하나가 되었는가?
첨가	없던 소리가 더해짐	늘어남	변동 전에는 없던 소리가 생겼는가?

이 표의 A·B·C는 서로 다른 소리를 나타낸다. 동일한 두 모음 중 하나가 없어지는 탈락도 있으며 H에서 살핀다.

‘먹는[멍는]’에서는 ㄱ이 ㅇ으로 바뀐다. ㄱ 하나가 ㅇ 하나가 되었으므로 교체다.

글자를 통째로 비교하는 대신, 변한 소리 ㄱ과 ㅇ을 대응시키면 판단이 분명해진다.

! 헷갈림 주의

- 음운 수와 음절 수는 다르며, 첨가와 탈락의 수 변화는 상쇄될 수도 있다.

? 짧은 확인

문법02-Q01 ‘굽는[굼는]’에서는 ㅂ이 ㅁ으로 바뀐다. 이 변화는 어느 종류인가?

○ 교체 ○ 탈락 ○ 축약 ○ 첨가

문법02-Q02 탈락과 축약을 구별할 때 필요한 판단은?

① 글자가 한 칸에 적혔는지만 본다.

② 소리 수가 줄었는지만 본다.

③ 기존 소리 하나가 남았는지, 두 소리가 합쳐져 새 소리가 되었는지 본다.

B 받침은 언제 대표음으로 바뀌고, 언제 그대로 이어질까?

짧은 답 실제로 **음절** 끝에 남는지, 뒤에 어떤 형태소가 이어지는지를 확인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문법02-06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ㄱ·ㄴ·ㄷ·ㄹ·ㅁ·ㅂ·ㅇ으로 제한되어 다른 받침이 대표음으로 바뀌는 현상.
연음 문법02-07	받침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져 발음되는 현상으로, 그 자체는 음운 변동이 아님.

1 받침 확인 → **2** 뒤 소리·형태소 확인 → **3** 대표음 교체 또는 연음 판단

예 옷+이 → [오시] · 옷+안 → [오단]

음절 끝에서 소리 나는 자음은 몇 개일까?

음절 끝에서는 ㄱ·ㄴ·ㄷ·ㄹ·ㅁ·ㅂ·ㅇ의 일곱 자음만 소리 난다.

그 밖의 자음이 음절 끝에 남으면 대표음으로 바뀐다.

바뀌는 받침	대표음	비교 예
ㄲ, ㅋ	ㄱ	밖[박], 부엌[부억]
ㅅ, ㅆ, ㅈ, ㅊ, ㅌ, ㅎ	ㄷ	옷[옫], 낮[낟], 밭[받]
ㅍ	ㅂ	숲[숩]

ㅎ은 뒤에 오는 소리에 따라 탈락·축약 등도 일어나므로 H·I의 조건을 함께 확인한다.

받침 뒤에 모음이 오면 언제나 같은가?

연음 자체는 소리의 종류나 개수를 바꾸지 않으므로 네 종류의 음운 변동에 넣지 않는다.

결합 조건	예	소리의 처리
말끝에 놓임	옷[옫]	ㅅ이 대표음 ㄷ으로 바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조사·어미·접미사)와 결합	옷 + 이 → [오시]	ㅅ이 그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이어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와 이어짐	옷 + 안 → [오단]	ㅅ이 ㄷ으로 바뀐 뒤 뒤 음절 첫소리로 이어짐

'옷 안'은 두 말을 이어 발음한 경우다. 이처럼 뒤에 모음이 온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받침 그대로 연음'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ㄴ 첨가가 일어나는 결합은 J에서 따로 살핀다.

! 헷갈림 주의

- '옷이[오시]'는 ㅅ이 그대로 연음되며, 'ㅅ→ㄷ→ㅅ'의 교체가 아니다.
- 일곱 받침이 그대로 발음되면 그 자음에는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

? 짧은 확인

문법02-Q03 '빛[빋]'과 '빛을[비츨]'에서 받침 ㅊ을 비교하자. ㅊ이 다른 음운으로 바뀐 것은 어느 쪽인가? ◯ 빛 ◯ 빛을

문법02-Q04 '꽃'에 조사 '을'이 붙은 '꽃을'의 발음과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꼬츨] : ㅊ이 그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이어진다.

② [꼬들] : ㅊ은 어떤 조건에서도 먼저 ㄷ으로 바뀐다.

문법02-Q05 '겉옷[거돋]'은 '겉'과 '옷'이 결합한 말이다. 앞말 '겉'의 ㅌ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고 ㄷ으로 바뀌는 조건과 관련 있는 것은?

① 뒤의 '옷'이 조사이다.

② 뒤의 '옷'이 실질 형태소이다.

C ㄱ·ㄷ·ㅂ·ㄴ·ㄹ은 이웃 소리 때문에 어떻게 달라질까?

짧은 답 비음이나 유음의 영향을 받아 **조음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비음화 문법02-08	비음이 아닌 소리가 이웃 소리의 영향이나 일정한 환경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유음화 문법02-09	ㄴ이 앞이나 뒤의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현상.

1 이웃 자음 확인 → **2** 바뀐 자음 대응 → **3** 결과가 비음인지 유음인지 판단

예 ㄴ → ㄹ: 유음화 · ㄹ → ㄴ: 비음화

비음 앞의 ㄱ·ㄷ·ㅂ은 어떻게 바뀔까?

바뀌는 소리	바로 뒤의 소리	결과	예
ㄱ	ㄴ·ㅁ	ㅇ	국물**[궁물]**
ㄷ	ㄴ·ㅁ	ㄴ	닫는**[단는]**
ㅂ	ㄴ·ㅁ	ㅁ	집는**[짐는]**

ㄱ·ㄷ·ㅂ은 각각 같은 조음 위치의 비음 ㅇ·ㄴ·ㅁ으로 바뀐다. 문법01의 자음표에서 파열음과 비음을 같은 위치끼리 비교하면 연결이 보인다.

ㄹ도 비음으로 바뀔 수 있다. '심리**[심니]**'에서는 ㅁ 뒤의 ㄹ이 ㄴ이 된다.

'종로**[종노]**'에서는 ㅇ 뒤의 ㄹ이 ㄴ이 된다.

'독립**[동닙]**'처럼 ㄱ 뒤의 ㄹ이 ㄴ으로 바뀌고, 그 ㄴ 앞의 ㄱ이 다시 ㅇ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한 낱말에 교체가 두 번 일어날 수 있다.

ㄴ과 ㄹ이 만나면 어느 쪽이 바뀔까?

결합	바뀌는 소리	예
ㄴ + ㄹ → ㄹ + ㄹ	앞의 ㄴ	신라**[실라]**
ㄹ + ㄴ → ㄹ + ㄹ	뒤의 ㄴ	칼날**[칼랄]**

'신라**[실라]**'와 '의견란**[의견난]**'처럼 제시된 발음과 구성 성분의 경계를 함께 확인한다.

! 헷갈림 주의

- 'ㄴ→ㄹ'은 유음화, 'ㄹ→ㄴ'은 비음화이며 둘 다 교체이다.
- ㄴ·ㄹ이 만나도 '의견란**[의견난]**'처럼 비음화가 일어나는 말이 있다.

? 짧은 확인

문법02-Q06 **'입는[임는]'의 ㅂ→ㅁ에서 유지되는 기준과 달라지는 기준을 각각 고르자.**

(가) 조음 위치: ○ **같음** ○ **다름** (나) 조음 방법: ○ **같음** ○ **다름**

문법02-Q07 ‘난로[날로]’에서는 ㄴ과 ㄹ 중 어느 소리가 바뀌며, 그 현상은 무엇인가?

답 _____

문법02-Q08 ‘진리[질리]’와 ‘생산량[생산냥]’의 발음이 제시되어 있다. 두 말에서 일어난 변동을 각각 고르자.

(가) 진리: ◯ **비음화** ◯ **유음화** (나) 생산량: ◯ **비음화** ◯ **유음화**

D ㄷ·ㅌ 뒤에 ㅣ가 오면 언제나 ㅈ·ㅊ이 될까?

짧은 답 ㄷ·ㅌ과 ㅣ뿐 아니라 **형태소 경계와 형식 형태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구개음화 문법02-10

끝소리 ㄷ·ㅌ이 ㅣ나 반모음 j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할 때 ㅈ·ㅊ으로 바뀌는 현상.

1 끝소리 ㄷ·ㅌ 확인 → 2 ㅣ·j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확인 → 3 ㅈ·ㅊ으로 교체

조건	변한 소리	예
ㄷ 뒤에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붙음	ㄷ → ㅈ	굳- + -이 → 굳이[구지]
ㅌ 뒤에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붙음	ㅌ → ㅊ	같- + -이 → 같이[가치]

ㄷ·ㅌ은 잇몸소리·파열음이고, ㅈ·ㅊ은 센입천장소리·파찰음이다. 구개음화에서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함께 달라진다.

‘마디’처럼 한 형태소 안에 있는 ㄷ과 ㅣ에는 이 구개음화를 적용하지 않는다. ㄷ·ㅌ 뒤에 ㅣ가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조건이 충분하지 않다.

‘밭이랑[반니랑]’에서 ‘이랑’이 밭의 두둑을 뜻하는 실질 형태소라면 구개음화 조건에 들지 않는다. 이 발음은 ㄴ 첨가와 비음화를 함께 살핀다(J·L).

! 헷갈림 주의

- ㄷ+ㅎ→ㅌ→ㅊ은 축약과 구개음화의 두 단계로 나누어 본다(I·L).
- 구개음화에서 뒤의 ㅣ는 바뀌지 않고 ㄷ·ㅌ이 ㅈ·ㅊ으로 바뀐다.

? 짧은 확인

문법02-Q09 ‘해돋이’의 ‘돋-’ 뒤에는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가 붙어 있다. [해도지]에서 바뀐 자음과 변동의 이름을 쓰자.

답 _____

문법02-Q10 "'견디다'의 어간 '견디-' 안에도 ㄷ과 ㅣ가 있으므로 **[견지다]**로 발음해야 한다." 이 설명은 맞는가? ○ O ○ X

E 된소리가 나는 조건은 모두 같을까?

짧은 답 된소리되기는 **앞소리와 형태소의 결합 관계**에 따라 조건이 다르다.

된소리되기(경음화) 문법02-11	예사소리 ㄱ·ㄷ·ㅂ·ㅅ·ㅈ이 된소리 ㄲ·ㄸ·ㅃ·ㅆ·ㅉ으로 바뀌는 현상.

1 앞 받침의 발음 확인 → **2** 어간·어미·합성어 등 결합 관계 확인 →

3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지 확인

자음 하나가 다른 자음 하나가 되므로 교체다.

살펴볼 조건	뒤에서 바뀌는 소리	예와 근거
받침이 **[ㄱ·ㄷ·ㅂ]**으로 발음됨	ㄱ·ㄷ·ㅂ·ㅅ·ㅈ	박수**[박쑤]**: ㄱ 뒤의 ㅅ→ㅆ
용언 어간의 ㄴ·ㅁ 뒤에 어미가 붙음	어미 첫소리 ㄱ·ㄷ·ㅅ·ㅈ	안다**[안따]**: '안다(품에 안다)'의 어간 안- 뒤 -다
용언 어간의 겹받침 ㄻ·ㄾ 뒤에 어미가 붙음	어미 첫소리 ㄱ·ㄷ·ㅅ·ㅈ	넓다**[널따]**: ㄻ에서 ㅂ 탈락과 ㄷ→ㄸ이 함께 일어남
한자어의 ㄹ 받침 뒤	ㄷ·ㅅ·ㅈ	발전**[발쩐]**: ㄹ 뒤의 ㅈ→ㅉ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를 한 덩어리로 이어 말함	ㄱ·ㄷ·ㅂ·ㅅ·ㅈ	할 수**[할쑤]**: '할'의 -ㄹ 뒤 ㅅ→ㅆ
일부 합성어의 두 구성 성분 사이	ㄱ·ㄷ·ㅂ·ㅅ·ㅈ	문고리**[문꼬리]**: 합성어에서 나타나는 사잇소리 현상(K)

둘째 줄의 어간에는 ㄵ·ㄻ이 놓여 ㄴ·ㅁ으로 발음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겹받침의 처리는 G에서 살핀다.

ㄴ·ㅁ 뒤라면 모두 된소리가 될까?

'신발을 신고'의 '신고**[신꼬]**'는 용언의 어간 신-에 어미 -고가 붙은 경우다. '새 신도 샀다'의 '신도**[신도]**'는 명사 신에 조사 도가 붙은 경우다.

두 말 모두 ㄴ 뒤에 자음이 오지만, 형태소의 관계가 다르다.

한자어라도 '허허실실'처럼 같은 한자가 겹친 경우에는 위 한자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 헷갈림 주의

- ㄲ·ㄸ·ㅃ·ㅆ·ㅉ은 각각 한 자음이므로 된소리되기는 첨가가 아니다.
- '안기다'의 접미사 '-기-'는 어간 뒤 어미의 된소리되기 조건에 들지 않는다.
- 홑받침 ㄹ 뒤라고 항상 된소리가 되지는 않는다: '알고[알고]'.

? 짧은 확인

문법02-Q11 '입고[입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ㄱ이 하나 더 붙었으므로 첨가이다.

② ㄱ이 ㄲ으로 바뀌었으므로 교체이다.

③ ㅂ과 ㄱ이 ㄲ 하나가 되었으므로 축약이다.

문법02-Q12 다음 두 발음의 차이를 설명할 때 필요한 것은?

- 실을 감- + -고 → 감고[감꼬]
- 밤 + 도 → 밤도[밤도]

① 앞말의 끝소리가 ㅁ인지만 확인한다.

② 어간 뒤의 어미인지, 명사 뒤의 조사인지도 확인한다.

F 두 음절이 한 음절이 되면 모두 축약일까?

짧은 답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면 **음운 수는 유지되고 음절 수만 줄어들 수 있다**.

반모음화 문법02-12	모음 어간과 모음 어미의 결합에서 어간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현상.

구성식

ㅣ + ㅓ → j + ㅓ = ㅕ

ㅗ + ㅏ → w + ㅏ = ㅘ

반모음을 한 음운으로 세면 음운 2개 → 2개 · 음절 2개 → 1개

이 자료에서는 **반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 세는 분석**을 사용한다.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고 뒤의 단모음은 남으므로, 반모음화를 교체로 분류한다.

문제에서 다른 분석 기준을 제시하면 그 기준을 먼저 확인한다.

결합과 결과	모음 부분의 변화	유지되는 소리	음절 수
피- + -어 → 펴	ㅣ + ㅓ → j + ㅓ	어미의 ㅓ	피/어 두 음절 → 펴 한 음절
보- + -아 → 봐	ㅗ + ㅏ → w + ㅏ	어미의 ㅏ	보/아 두 음절 → 봐 한 음절

j는 ㅣ 계열, w는 ㅗ·ㅜ 계열의 반모음이다. 문법01의 이중 모음 구성식과 연결하면 ㅕ는 j+ㅓ, ㅘ는 w+ㅏ로 나눌 수 있다.

비교

비교	음절 수의 변화	음운 수의 변화
■ 반모음화(피어→펴) vs ■ 모음 축약(아이→애)	같음 2음절 → 1음절	다름 ■ 2음운 → 2음운 ■ 2음운 → 1음운

반모음을 한 음운으로 세고, ㅐ를 단모음으로 보는 분석이다.

! 헷갈림 주의

- '두 음절→한 음절'만으로 '두 음운→한 음운'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 짧은 확인

문법02-Q13 '주- + -어 → 줘'를 ㅜ+ㅓ→w+ㅓ로 분석한다. 바뀐 소리와 이 자료에서의 변동 종류를 쓰자.

답 _____

문법02-Q14 "이 자료의 분석에서 '펴'는 한 음절이므로, 모음 부분의 구성도 반드시 음운 하나이다." 이 설명은 맞는가? ○ O ○ X

G 겹받침은 언제 하나만 남을까?

짧은 답 겹받침의 두 자음이 모두 음절 끝에 남을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가 탈락한다**.

자음군 단순화 문법02-13	음절 끝의 두 자음 가운데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

1 겹받침 확인 → 2 뒤 소리·형태소 및 예외 확인 → 3 두 자음의 발음 여부 판단

예 닭 → [닥]: 자음군 단순화(ㄹ이 없어짐) · 닭+이 → [달기]: 두 자음 유지

어떤 자음이 남을까?

아래 표는 말끝이나 자음 앞에서의 기본적인 처리를 보여 준다.

겹받침	탈락 뒤 남는 자음	예
ㄳ	ㄱ	넋[넉]
ㄵ	ㄴ	앉다[안따]

겹받침	탈락 뒤 남는 자음	예
ㄻ·ㄺ·ㄾ	ㄹ	여덟[여덜], 외곬[외골], 핥다[할따]
ㅄ	ㅂ	값[갑]
ㄺ	ㄱ	닭[닥]
ㄻ	ㅁ	삶[삼]
ㄿ	ㅍ	읊다[읍따]: ㄹ이 탈락하고, 남은 ㅍ이 대표음 ㅂ으로 바뀜

‘앉다·핥다·읊다’의 뒤 음절에는 된소리되기도 일어난다. 표의 가운데 열은 겹받침에서 어떤 자음이 남는지를 보여 준다.

ㄶ·ㅀ은 ㅎ의 탈락·축약 조건과 함께 H·I에서 살핀다.

같은 겹받침도 조건에 따라 달라질까?

추가로 확인할 조건	예	겹받침에서 탈락하는 자음
어간 ‘밟-’의 자음 앞	밟다[밥따]	ㄹ
‘넓적하다·넓죽하다·넓둥글다’의 ㄻ	넓적하다[넙쩌카다]	ㄹ
용언 어간 ㄺ 뒤에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음	맑게[말께]	ㄱ

‘넓다[널따]’와 ‘넓적하다[넙쩌카다]’는 같은 ㄻ을 적어도 남는 자음이 다르다.

뒤가 모음이면 자음 하나를 무조건 지울까?

‘닭이[달기]’에서는 ㄹ은 받침에 남고 ㄱ은 뒤 음절 첫소리로 이어진다. 두 자음이 모두 발음되므로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다.

실질 형태소 ‘앞’과 결합한 ‘닭 앞에[다가페]’에서는 겹받침 ㄺ이 먼저 ㄱ 하나로 줄고 뒤 음절 첫소리로 이어진다. 조사와 결합한 ‘닭이[달기]’와 구별한다(B).

! 헷갈림 주의

- ㄿ→[ㅂ]은 자음군 단순화(ㄹ이 없어짐)와 ㅍ→ㅂ 교체로 나누어 본다.
- 같은 ㄻ도 ‘넓다[널따]’·‘넓적하다[넙쩌카다]’처럼 남는 자음이 다르다.

? 짧은 확인

문법02-Q15 ‘젊다[점따]’의 겹받침 ㄻ에서 탈락하는 자음은 무엇인가? 겹받침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의 이름도 쓰자.

답 _____

문법02-Q16 ‘읽고[일꼬]’와 ‘읽어[일거]’를 비교하자. 겹받침 ㄺ의 한 자음이 탈락한 것은 어느 쪽이며, 탈락한 자음은 무엇인가?

답 _____

문법02-Q17 ‘값’에 조사 ‘이’가 붙으면 [갑씨]로 발음된다. “이때 ㅆ의 ㅅ은 탈락했다.”라는 설명은 맞는가? ○ O ○ X

H 자음이나 모음이 사라지는 조건은 무엇일까?

짧은 답 어떤 소리가 없어졌는지와 뒤에 붙는 **형태소**를 함께 확인한다.

ㄹ 탈락 문법02-14	활용이나 단어 형성의 일정한 환경에서 ㄹ이 없어지는 현상.
ㅎ 탈락 문법02-15	어간 끝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접미사 앞에서 없어지는 현상으로, ㄶ·ㅀ 뒤 ㄴ의 경우도 포함함.
ㅡ 탈락 문법02-16	어간 끝 ㅡ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없어지는 현상.
동일 모음 탈락 문법02-17	어간 끝과 어미 첫머리의 같은 모음 ㅏ·ㅓ 중 하나가 없어지는 현상.

구성식

살- + -는 → 사는 ▶ ㄹ 탈락

좋- + -아 → 좋아[조아] ▶ ㅎ 탈락

쓰- + -어 → 써 ▶ ㅡ 탈락

가- + -아서 → 가서 ▶ 동일 모음 탈락

ㄹ과 ㅎ은 언제 탈락할까?

현상	주로 확인할 조건	예와 탈락한 소리
ㄹ 탈락	ㄹ로 끝나는 어간 뒤에 ㄴ·ㅂ·ㅅ 등으로 시작하는 특정 어미나 -오 등이 붙음	살- + -는 → 사는: ㄹ 탈락
ㄹ 탈락의 단어 형성 사례	어근끼리 또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는 과정	솔 + 나무 → 소나무: ㄹ 탈락
ㅎ 탈락	ㅎ(ㄶ·ㅀ 포함)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접미사가 붙음	좋- + -아 → 좋아[조아]: ㅎ 탈락

‘많아[마나]’는 ㄶ의 ㅎ이 탈락하고 ㄴ이 이어진다. ‘싫어[시러]’는 ㅀ의 ㅎ이 탈락하고 ㄹ이 이어진다.

ㅎ이 없어져도 표기에는 남아 있다.

ㄹ 탈락은 ‘사는·소나무’처럼 표기에도 반영된다. 소리가 달라졌는지와 그 변화가 표기에 반영되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다.

모음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까?

현상	조건	예와 탈락한 소리
ㅡ 탈락	어간 끝의 ㅡ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	쓰- + -어 → 써: ㅡ 탈락 · 바쁘- + -아 → 바빠: ㅡ 탈락
동일 모음 탈락	어간 끝의 ㅏ·ㅓ와 어미 첫 모음 ㅏ·ㅓ가 같아 그중 하나가 없어짐	가- + -아서 → 가서 · 서- + -어서 → 서서

‘가-+-아서→가서’에서는 이어진 두 ㅏ 중 하나가 없어지고 ㅏ가 남는다. 두 모음이 합쳐져 다른 종류의 모음이 된 것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ㄶ·ㅀ은 ㄴ 앞에서도 ㅎ이 탈락한다: 않는[안는]·싫네[실레]. ‘싫네’는 남은 ㄹ과 ㄴ 사이의 유음화도 함께 살핀다.

! 헷갈림 주의

- ‘바쁘-+-아→바빠’에서 사라진 모음은 ㅏ가 아니라 ㅡ이다.

? 짧은 확인

문법02-Q18 각각 없어진 자음을 쓰자.

(가) 울- + -는 → 우는

(나) 쌓- + -아 → 쌓아[싸아]

답 _____

문법02-Q19 ‘크- + -어 → 커’에서 탈락한 모음을 쓰자.

답 _____

문법02-Q20 ‘자- + -아서 → 자서’의 모음 부분을 ㅏ+ㅏ→ㅏ로 분석한다. 이 자료의 분류에 맞는 설명은?

① 같은 모음 둘 중 하나가 없어지는 탈락이다.

② 서로 다른 두 모음이 새로운 모음으로 합쳐지는 축약이다.

I 두 소리가 합쳐져 새 소리가 되면 무엇일까?

짧은 답 **두 소리의 성질이 합쳐져 새로운 소리 하나가 되면 축약이다.**

거센소리되기(자음 축약) 문법02-18	ㅎ과 ㄱ·ㄷ·ㅂ·ㅈ이 합쳐져 거센소리 ㅋ·ㅌ·ㅍ·ㅊ이 되는 현상.
모음 축약 문법02-19	두 모음이 합쳐져 새로운 모음 하나가 되는 현상.

구성식

ㅎ + ㄱ → ㅋ · ㅂ + ㅎ → ㅍ

ㅏ + ㅣ → ㅐ ▶ 두 단모음이 새 단모음 하나로 합쳐짐

ㅎ과 예사소리가 만나면?

합쳐지는 소리	결과
ㄱ과 ㅎ	ㅋ
ㄷ과 ㅎ	ㅌ
ㅂ과 ㅎ	ㅍ
ㅈ과 ㅎ	ㅊ

'넣고[너코]'는 ㅎ+ㄱ→ㅋ, '입학[이팍]'은 ㅂ+ㅎ→ㅍ이다. 결합 순서가 달라도 두 소리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점은 같다.

같은 ㅎ도 뒤의 조건에 따라	분석
놓아[노아]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ㅎ 탈락
놓고[노코]	ㅎ과 ㄱ이 ㅋ으로 축약

모음 둘이 다른 모음 하나가 되기도 할까?

'사이→새'의 모음 부분은 ㅏ+ㅣ→ㅐ로 설명할 수 있다. 단모음 둘이 새 단모음 하나가 된 것이다.

비교	남거나 새로 생긴 소리	이 자료의 분석
ㅏ + ㅏ → ㅏ	같은 ㅏ가 남음	동일 모음 탈락
ㅏ + ㅣ → ㅐ	새 단모음 ㅐ	모음 축약
ㅣ + ㅓ → j + ㅓ	ㅣ는 j로 바뀌고 ㅓ는 남음	반모음화: 교체

! 헷갈림 주의

- '좋소[조쏘]'의 ㅅ은 된소리로 나며, 거센소리되기의 네 쌍에 들지 않는다.
- '사이→새'는 굳어진 역사적 변화이며 모든 ㅏ+ㅣ를 ㅐ로 바꾸지는 않는다.

? 짧은 확인

문법02-Q21 ‘축하[추카]’에서 표기의 어떤 자음들이 발음의 어떤 자음이 되었는지 쓰고, 변동 종류를 고르자. ○ 교체 ○ 탈락 ○ 축약 ○ 첨가

답

문법02-Q22 ‘아이→애’의 모음 부분을 ㅏ+ㅣ→ㅐ로 분석한다. 이 분석이 F의 반모음화와 다른 점으로 맞는 것은?

① 단모음 하나가 반모음으로 바뀌고 뒤의 단모음은 남는다.

② 두 단모음이 새로운 단모음 하나가 된다.

J 원래 없던 소리가 생기면 무엇을 확인할까?

짧은 답 어떤 결합에서 어떤 소리가 더해졌는지, 그 발음이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확인한다.

ㄴ 첨가 문법02-20	합성어·파생어 등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야·여·요·유로 시작할 때 ㄴ이 더해지는 현상.
반모음 첨가 문법02-21	모음 사이에 없던 반모음이 더해지는 현상.

구성식

솜+이불 → [솜니불] ▶ ㄴ 첨가

ㅣ + ㅓ → ㅣ+j+ㅓ ▶ 반모음 첨가

ㄴ이 새로 생기는 결합은?

구성	발음	더해진 소리
맨- + 입	맨입[맨닙]	입 앞에 ㄴ
솜 + 이불	솜이불[솜니불]	이불 앞에 ㄴ

‘야·여·요·유’는 반모음 j로 시작하는 이중 모음을 포함한다. ㄴ이 더해지면 각각 냐·녀·뇨·뉴로 발음된다.

ㄴ이 더해진 뒤 다른 변동이 이어지기도 한다. ‘물약[물략]’은 물+약에 ㄴ이 첨가된 뒤, ㄹ 뒤의 ㄴ이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이어진 결과다.

최종 발음에 ㄹ이 있다고 처음부터 ㄹ이 첨가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사전이나 문제에서 제시한 발음을 확인한다.

반모음도 더해질 수 있을까?

'피어'를 [피여]로 발음하면 모음 부분은 ㅣ+ㅓ → ㅣ+j+ㅓ가 된다.

같은 결합을 비교하면	모음 부분	분류
피- + -어 → 펴	ㅣ+ㅓ → j+ㅓ	반모음화: 교체
피어 → [피여]	ㅣ+ㅓ → ㅣ+j+ㅓ	반모음 첨가

표준 발음에서는 '피어[피어]·되어[되어]'가 원칙이며 [피여]·[되여]도 허용한다. 어간의 ㅣ·ㅚ·ㅟ 뒤에 -어가 오는 경우와 '이오·아니오'의 허용 발음을 살피되, 모든 모음 사이의 반모음 첨가를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 헷갈림 주의

- ㄴ 첨가는 예외가 있다: '금융[금늉/그뮹]', '송별연[송벼련]'.
- '피어[피여]'는 ㅣ가 j로 바뀐 것이 아니라 두 모음 사이에 j가 더해진 것이다.
- '세어[세여]'는 반모음 첨가의 표준 발음 허용 범위에 들지 않는다.

? 짧은 확인

문법02-Q23 '한여름[한녀름]'의 두 구성 성분 사이에서 새로 생긴 자음은 무엇인가?

답 _____

문법02-Q24 '솔잎[솔립]'을 ㄴ 첨가와 유음화로 분석할 때, 순서로 맞는 것은?

① ㄴ 첨가 뒤, 그 ㄴ이 앞의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뀐다.

② ㄹ이 먼저 첨가된 뒤 ㄴ으로 바뀐다.

문법02-Q25 '되어'를 [되여]로 발음하는 경우를 ㅚ+ㅓ→ㅚ+j+ㅓ로 분석한다. 이때 일어난 현상은 ○ 반모음화 ○ 반모음 첨가 중 무엇인가? 기존 ㅚ가 남는지도 함께 쓰자.

답 _____

K 사잇소리 현상은 모두 첨가일까?

짧은 답 모두 첨가는 아니며, **된소리되기(교체)**와 **ㄴ·ㄴㄴ 첨가**가 포함된다.

사잇소리 현상 문법02-22	합성어의 두 구성 성분 사이에서 된소리되기나 ㄴ·ㄴㄴ 첨가 등이 나타나는 현상.

1 합성 전 두 구성 성분 확인 → 2 합성어의 실제 발음과 비교 →

3 된소리되기·ㄴ 첨가 등을 구별

다음 표는 **합성하기 전의 두 명사와 합성어의 발음**을 비교한다.

합성 전 구성	합성어 표기	발음	두 말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
나무 + 가지	나뭇가지	[나무까지]	ㄱ이 ㄲ으로 바뀜
코 + 날	콧날	[콘날]	ㄴ이 하나 더해짐
깨 + 잎	깻잎	[깬닙]	ㄴ이 둘 더해짐

‘깻잎’의 끝소리 ㅍ→ㅂ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이것은 두 구성 성분 사이에서 나타나는 ㄴㄴ 첨가와 나누어 본다.

소리 현상과 ㅅ 표기는 같은 것일까?

‘사잇소리 현상’은 발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묻는 말이고, ‘사이시옷’은 합성어를 적을 때 받침 ㅅ을 넣는 표기와 관련된다. ‘문고리[문꼬리]’처럼 사이시옷을 적지 않아도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나뭇가지’는 [나무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나묻까지]도 허용한다. 사이시옷을 적었다고 반드시 [ㅅ]으로 발음되는 것은 아니다.

사이시옷의 표기 조건과 허용 발음은 문법09에서 더 살핀다.

! 헷갈림 주의

- ‘깨+잎’과 [깬닙]을 비교하면 두 성분 사이에 ㄴ이 두 개 더해진다.
- 표기 ‘깻잎’에서 출발하면 사이시옷의 ㅅ→ㄷ→ㄴ 교체와 ㄴ 첨가로 분석한다.

? 짧은 확인

문법02-Q26 ‘길+가→길가[길까]’에는 사이시옷이 적혀 있지 않다. 이 사실만으로 사잇소리 현상이 없다고 판단해도 되는가? ○ O ○ X

문법02-Q27 합성 전의 ‘나무+잎’과 합성어의 발음 [나문닙]을 비교한다. 두 구성 성분 사이에 더해진 자음과 그 개수를 쓰자. 끝소리 ㅍ→ㅂ의 교체는 별도로 본다.

답 _____

L 한 낱말에 여러 변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분석할까?

짧은 답 **각 단계에서 바뀐 소리와 다음 변동의 조건을 확인한다.**

1 표기와 실제 발음 비교 → 2 변한 소리 대응 → 3 각 단계의 조건 확인 →
4 종류와 횟수를 따로 정리

먼저 일어난 변화가 다음 조건을 만들기도 할까?

낱말·최종 발음	나누어 본 과정	앞 단계가 만든 조건
꽃말[꼰말]	ㅊ→ㄷ: 음절의 끝소리 규칙 · ㄷ→ㄴ: 비음화	대표음 ㄷ이 비음 ㅁ 앞에 놓임
색연필[생년필]	ㄴ 첨가 · ㄱ→ㅇ: 비음화	첨가된 ㄴ 앞에 ㄱ이 놓임
굳히다[구치다]	ㄷ+ㅎ→ㅌ: 거센소리되기 · ㅌ→ㅊ: 구개음화	새로 생긴 ㅌ이 접미사 -히-의 ㅣ 앞에 놓임

'색연필'은 ㄴ이 더해져야 ㄱ이 비음 앞에 놓인다. 이 관계를 놓치면 비음화의 조건을 설명할 수 없다.

변화의 종류와 적용 횟수는 같을까?

'꽃말[꼰말]'은 ㅊ→ㄷ→ㄴ으로 교체가 두 번 일어난다. 큰 종류로는 교체 한 종류이고, 세부 현상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 두 가지다.

! 헷갈림 주의

- '꽃말[꼰말]'은 교체 한 종류이지만, ㅊ→ㄷ→ㄴ으로 두 번 바뀐다.
- 분석의 중간형은 실제로 하나씩 끊어 발음하라는 표시가 아니다.
- 변동의 순서가 항상 하나로 고정되지는 않으며, 다음 조건을 만드는 단계를 먼저 찾는다.

? 짧은 확인

문법02-Q28 '값만[감만]'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본다. 각 단계의 세부 현상 이름을 쓰자.

단계	변화	현상
값+만 → 갑+만	ㅄ에서 ㅅ이 없어짐	**(가)**
갑+만 → 감만	ㅂ이 ㅁ으로 바뀜	**(나)**

문법02-Q29 '닫히다[다치다]'의 ㄷ+ㅎ→ㅌ→ㅊ에서, 앞 단계와 뒤 단계의 큰 변동 종류를 각각 쓰자.
○ 교체 ○ 탈락 ○ 축약 ○ 첨가

답

문법02-Q30 '삯일[상닐]'을 다음처럼 분석한다. "변동 전후의 전체 음운 수가 같으므로 교체만 일어났다."라는 설명은 맞는가? ○ O ○ X

단계	변화
삯+일 → 삯+닐	ㄴ이 더해짐
삯+닐 → 삭+닐	ㄳ에서 ㅅ이 없어짐
삭+닐 → 상닐	ㄱ이 ㅇ으로 바뀜

다시 비교하기

비교

비교	음절 수의 변화	음운 수의 변화
■ 반모음화(피어→펴) vs ■ 모음 축약(아이→애)	같음 2음절 → 1음절	다름 ■ 2음운 → 2음운 ■ 2음운 → 1음운
■ 탈락 vs ■ 축약	—	같음 기본 변화에서 1개 감소

다음 단원으로 ▶ 음운 변동의 조건에는 형태소의 경계와 종류가 관여한다. 다음 단원에서는 형태소·단어·어절과 어근·접사·어간·어미를 구별한다.

문법03 형태소와 단어의 짜임

단원 지도

핵심 질문 말을 나누는 단위와 단어가 만들어진 방식을 어떻게 구별할까?

- **말의 분석 단위** — 형태소·단어·어절 A
- **형태소의 성질** — 자립성·의미·이형태 B
- **단어를 보는 관점** C
  - **형성** — 어근·접사 C
  - **활용** — 어간·어미 C
- **단어의 짜임** — 직접 구성 요소 D
  - **단일어** — 하나의 어근 D
  - **복합어** — 합성어·파생어 D
    - **합성어의 갈래** — 배열·의미 관계 E
- **파생과 활용의 구별** — 접미사·전성 어미 F

묶음	질문	개념
A	'동생이 웃었다.'를 몇 개로 나눌 수 있을까?	형태소·단어·어절
B	뜻이 있는 말이면 혼자 쓸 수 있을까?	형태소의 교차 분류·이형태
C	어근·접사와 어간·어미는 무엇을 나눈 이름일까?	어근·접사·어간·어미
D	단어의 짜임은 어떻게 나눌까?	단일어·합성어·파생어·직접 구성 요소
E	합성어는 무엇을 기준으로 더 나눌까?	배열에 따른 분류·의미에 따른 분류
F	'-기·-음'이 붙으면 언제나 명사가 될까?	접두·접미 파생·명사 파생 접미사와 명사형 어미

A ‘동생이 웃었다.’를 몇 개로 나눌 수 있을까?

짧은 답 분석 단위에 따라 **2어절·3단어·5형태소**로 나뉜다.

형태소 문법03-01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단어 문법03-02	자립하여 쓰이는 말 또는 자립하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되는 조사.
어절 문법03-03	문장을 구성하는 마디로, 보통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함.

어절	동생이·웃었다	**2개**
단어	동생·이·웃었다	**3개**
형태소	동생·이·웃-·었-·다	**5개**

‘동생’을 ‘동/생’으로 나누면 각 부분이 이 낱말에서 본래의 뜻을 유지하지 못한다. ‘웃었다’는 웃는 동작, 과거, 문장 종결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형태소를 적을 때 ‘웃-’처럼 붙임표를 쓰는 것은 그 부분이 다른 형태소와 결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 헷갈림 주의

- 조사는 단어로 세지만 용언의 어미는 따로 단어로 세지 않는다.
- ‘웃-’·‘-었-’의 붙임표는 결합 표시이며, 형태소로 세지 않는다.

? 짧은 확인

문법03-Q01 ‘학생이 걸었다.’의 어절 수와 단어 수를 쓰자.

답 _____

문법03-Q02 ‘먹었다’를 ‘먹-·었-·다’로 나눈 기준은?

① 단어
② 형태소

B 뜻이 있는 말이면 혼자 쓸 수 있을까?

짧은 답 **자립성**(혼자 쓰이는가)과 **의미**(실질·형식)는 서로 다른 기준이다.

형태소의 교차 분류 문법03-04	형태소를 자립성(자립·의존)과 의미(실질·형식)라는 두 기준으로 각각 나누는 것.
이형태 문법03-05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 것.

겹침표

자립성 \ 의미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자립 형태소	바다	
의존 형태소	깊-	가(조사)·-다

빈칸 = 해당 없음

■ 형태소의 교차 분류

기준	종류	판단 질문	예
자립성	자립 형태소	다른 형태소에 붙지 않고 쓰일 수 있는가?	나, 바다, 아주
자립성	의존 형태소	다른 형태소에 붙어 쓰이는가?	이(조사)·먹-·-었-·-다
의미	실질 형태소	대상·동작·상태 등의 구체적인 뜻을 나타내는가?	나, 바다, 아주, 먹-
의미	형식 형태소	문법 관계나 문법적 뜻을 나타내는가?	조사, 어미, 접사

목적격 조사 '을/를'은 앞말의 받침 유무에 따라 선택된다.

! 헷갈림 주의

- '깊-'은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이므로 '실질=자립'이 아니다.
- '을'·'를'처럼 모양이 달라도 한 형태소의 이형태일 수 있다.

? 짧은 확인

문법03-Q03 '꽃이 피었다.'의 '피-'를 자립성·의미의 두 기준으로 분류하자.

답 _____

문법03-Q04 "'책을/나무를'의 '을/를'은 같은 목적격 조사의 이형태이다." 이 설명은 맞는가?

○ O ○ X

C 어근·접사와 어간·어미는 무엇을 나눈 이름일까?

짧은 답 어근·접사는 단어의 형성을, **어간**·어미는 용언의 활용을 설명한다.

어근 문법03-06	단어에서 실질적 의미의 중심을 이루는 부분.
접사 문법03-07	어근에 붙어 뜻을 더하거나 품사를 바꾸어 새 단어를 만드는 부분.
어간 문법03-08	용언이 활용할 때 어미 앞에 놓이는 부분.
어미 문법03-09	어간 뒤에 붙어 종결·연결·시제 등의 문법적 뜻을 나타내는 부분.

구성식

단어 형성 먹히- = 어근 먹- + 접미사 -히-

활용 먹히다 = 어간 먹히- + 어미 -다

‘먹히다’를 두 관점으로 나누어 보자.

관점	분석	드러나는 사실
단어 형성	먹- + -히- = 먹히-	어근 ‘먹-’에 피동 접미사 ‘-히-’가 붙어 ‘먹히다’가 만들어짐
용언 활용	먹히- + -다 · 먹히- + -고	‘먹히-’가 어간이고 ‘-다, -고’가 어미임

! 헷갈림 주의

- 어간 ‘먹히-’ 안에는 어근 ‘먹-’과 접미사 ‘-히-’가 함께 들어 있다.
- 명사 ‘풋사과’의 ‘사과’는 어근이며, 용언의 어간은 아니다.

? 짧은 확인

문법03-Q05 ‘높이다’의 어근은 ‘높-’, 접미사는 ‘-이-’이다. ‘높이고’의 어간을 쓰자.

답 _____

문법03-Q06 ‘풋배’의 ‘풋-’은 접두사이다. 이 단어의 ‘배’를 용언의 어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

○ O ○ X

D 단어의 짜임은 어떻게 나눌까?

짧은 답 활용 어미는 빼고, 어근 하나면 **단일어**, 어근+어근이면 **합성어**, 어근+접사면 **파생어**이다.

단일어 문법03-10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
합성어 문법03-11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
파생어 문법03-12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
직접 구성 요소 문법03-13	복잡한 단어를 한 단계에서 직접 이루는 두 부분.



개념	구성 기준	예와 이유
단일어	하나의 어근	구름 · 먹다: ‘먹-’에 활용 어미 ‘-다’가 붙어도 단일어
합성어	어근끼리 결합	돌다리: 돌+다리
파생어	어근에 접사가 결합	풋사과: 풋-+사과 · 덮개: 덮-+-개

먼저 단어를 크게 두 부분인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어 판단한다.

‘물놀이’는 **물+놀이**가 직접 결합한 합성어이다. 그 안의 ‘놀이’를 다시 나누면 ‘놀-+-이’인 파생어이다.

! 헷갈림 주의

- 접사가 들어 있어도 직접 구성 요소 둘이 모두 어근이면 전체는 합성어이다(‘물’+‘놀이’).

? 짧은 확인

문법03-Q07 ‘잠들다’가 어근 ‘잠’과 ‘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때, 단일어·합성어·파생어 중 무엇인가?

답 _____

문법03-Q08 ‘풋사과나무’를 ‘풋사과+나무’로 직접 나눌 때, 전체 단어의 짜임은?

① 합성어
② 파생어

E 합성어는 무엇을 기준으로 더 나눌까?

짧은 답 말이 배열된 **방식**과 어근 사이의 뜻 관계를 따로 살핀다.

배열에 따른 분류 문법03-14	합성어를 일반적인 국어 문장 구성 방식에 맞는 통사적 합성어와 벗어나는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누는 것.
의미에 따른 분류 문법03-15	합성어를 어근 사이 의미 관계에 따라 대등·종속·융합으로 나누는 것.

기준식

기준	배열 방식	+	어근 사이 의미 관계
돌다리	통사적 합성어	+	종속 합성어

■ 배열에 따른 분류

종류	기준	예와 분석
통사적 합성어	일반적인 국어 문장 구성 방식과 맞는 결합	돌다리(명사+명사), 작은형(관형사형+명사), 돌아가다(어간+연결 어미+용언)
비통사적 합성어	일반적인 국어 문장 구성 방식에서 벗어난 결합	덮밥: 덮- 뒤에 관형사형 어미 없이 명사 결합 · 뛰놀다: 뛰- 뒤에 연결 어미 없이 용언 결합

■ 의미에 따른 분류

종류	어근 사이 관계	예
대등 합성어	두 어근의 의미가 대등하게 나열됨	논밭: 논과 밭
종속 합성어	한 어근이 다른 어근을 꾸미거나 한정함	돌다리: 돌로 만든 다리
융합 합성어	원래 의미의 단순한 합을 넘어 새 뜻을 이룸	밤낮: ‘언제나’라는 뜻으로 쓰일 때

‘돌다리’는 배열 기준으로 통사적이고, 의미 관계 기준으로 종속적이다.

! 헷갈림 주의

- 통사적 합성어도 한 단어이며, 문장에서 두 말이 나란히 놓였다고 모두 합성어는 아니다.
- ‘통사적’·‘종속적’은 서로 다른 기준의 이름이므로 함께 성립한다.

? 짧은 확인

문법03-Q09 ‘검붉다’가 비통사적 합성어인 까닭을 고르자.

① 어근이 하나여서

② 연결 어미 없이 두 용언의 어근이 결합해서

문법03-Q10 “‘늦잠’은 비통사적 합성어이므로 종속 합성어일 수 없다.” 이 설명은 맞는가?

○ O ○ X

F ‘-기·-음’이 붙으면 언제나 명사가 될까?

짧은 답 새 단어를 만드는 접미사인지, **용언**의 성질을 유지하는 어미인지 살핀다.

접두·접미 파생 문법03-16	접두사는 어근 앞, 접미사는 어근 뒤에 붙어 파생어를 만드는 것.
명사 파생 접미사와 명사형 어미 문법03-17	명사 파생 접미사는 새 명사를 만들고, 명사형 어미는 용언의 성질을 유지한 채 명사처럼 쓰이게 함.

구성식

어근+명사 파생 접미사 = 새 명사

어간+명사형 어미 = 용언의 명사형

■ 접두·접미 파생

위치	기능	예
접두사	주로 원래 뜻에 의미를 더함	맨손: 다른 것이 없는 손
접미사	뜻을 더하거나 품사를 바꿈	지우개: 지우는 도구 · 높이다: 높게 하다

■ 명사 파생 접미사와 명사형 어미

비교

비교	구성 형태	품사·기능	문장 안의 단서
■ ‘그의 웃음’의 웃음 vs ■ ‘그가 크게 웃음’의 웃음	같음 웃-+-음	다름 ■ 명사 ■ 동사의 명사형	다름 ■ 관형어 ‘그의’의 수식 ■ 주어 ‘그가’ 및 부사어 ‘크게’와 호응

명사형은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는 **형식**을 말한다.

! 헷갈림 주의

- 명사형으로 활용한 용언은 품사가 명사로 바뀐 것이 아니다.
- '-기'·'-음'의 모양만으로 접미사·어미를 정하지 말고 문장 속 쓰임을 본다.

? 짧은 확인

문법03-Q11 '나는 물을 빨리 마시기를 원한다.'의 '-기'는?

① 명사 파생 접미사

② 명사형 어미

문법03-Q12 '새에게 먹이를 주었다.'의 '먹이'에서 '-이'는 접두사·접미사·어미 중 무엇인가?

답 _____

◎ 다시 비교하기

비교

비교	분석 대상	판단 기준
■ 어근·접사 vs ■ 어간·어미	같음 단어 내부	다름 ■ 단어 형성 ■ 용언 활용
■ 통사적 vs ■ 종속적	같음 합성어	다름 ■ 배열 방식 ■ 어근 사이 의미 관계
■ 명사 파생 접미사 vs ■ 명사형 어미	같음 어근·어간 뒤의 구성 요소	다름 ■ 새 명사 형성 ■ 용언의 활용

다음 단원으로 ▶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와 어떤 품사인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다. 다음 단원에서는 형태·기능·의미로 품사를 나눈다.

문법04 품사

단원 지도

핵심 질문 단어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며, 같은 모양의 말도 문맥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

- **품사의 분류** — 형태·기능·의미 A
  - **체언** — 명사·대명사·수사 B
  - **관계언** — 조사 C
  - **용언** — 동사·형용사 D
  - **수식언** — 관형사·부사 F
  - **독립언** — 감탄사 F
- **활용** — 어간·어미·규칙·불규칙 E
- **문맥 판별** — 품사와 문장 성분 F

묶음	질문	개념
A	9품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눈 것일까?	품사·형태 기준
B	체언은 모두 이름을 나타낼까?	명사·대명사·수사
C	조사는 무슨 일을 할까?	조사
D	동사와 형용사,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어떻게 다를까?	동사·형용사·본용언·보조 용언
E	활용할 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질까?	어미의 종류·규칙 활용·불규칙 활용
F	꾸미는 말은 모두 같은 품사일까?	관형사·부사·감탄사·품사와 문장 성분·문맥에 따른 품사 판별

A 9품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눈 것일까?

짧은 답 **형태·기능·의미**를 함께 적용한다.

품사 문법04-01	단어를 공통적인 문법 성질에 따라 나눈 갈래.
형태 기준 문법04-02	활용 여부에 따라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누는 기준.



기능에 따른 묶음	의미에 따른 품사	핵심 기능·뜻	형태
체언	명사	대상의 이름	불변어
체언	대명사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킴	불변어
체언	수사	수량·순서	불변어
관계언	조사	앞말의 문법 관계나 뜻을 나타냄	대체로 불변어
용언	동사	동작·작용	가변어
용언	형용사	성질·상태	가변어
수식언	관형사	체언을 꾸밈	불변어
수식언	부사	주로 용언이나 문장 등을 꾸밈	불변어
독립언	감탄사	느낌·부름·대답 등	불변어

형태 기준: ‘먹다/먹고/먹으니’처럼 활용하는 말이 가변어이다. 서술격 조사 **‘이다’는 조사이지만 ‘이고/이니’처럼 활용**한다.

! 헷갈림 주의

- 가변어에는 용언뿐 아니라 서술격 조사 ‘이다’도 포함된다.
- ‘학교’·‘학교가’는 명사의 활용이 아니라 명사에 조사가 결합한 것이다.

? 짧은 확인

문법04-Q01 ‘친구이다·친구이고’에서 활용하는 부분은?

① 명사 ‘친구’

② 서술격 조사 ‘이다’

B 체언은 모두 이름을 나타낼까?

짧은 답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대신 가리키는 대명사, 수량·순서를 나타내는 수사로 나눈다.

명사 문법04-03	사람·사물·장소·추상적 대상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
대명사 문법04-04	사람·사물·장소 등을 이름 대신 가리키는 품사.
수사 문법04-05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품사.

체언 B

- **명사** — 이름 B
- **대명사** — 대신 가리킴 B
- **수사** — 수량·순서 B

■ 명사

기준	구분	예
가리키는 범위	보통 명사 · 고유 명사	도시 · 서울
자립성	자립 명사 · 의존 명사	책 · 읽을 것, 할 수

인칭 대명사에는 나·너·그 등이, 지시 대명사에는 이것·저것·여기 등이 있다.

문맥상 쓰임	의미	예
미지칭	정해진 대상이 누구인지 모름	‘문을 두드린 사람이 누구니?’의 누구
부정칭	특정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음	‘누구든 들어올 수 있다.’의 누구
재귀칭	앞에 나온 대상을 다시 가리킴	‘민지는 자기가 맡은 일을 끝냈다.’의 자기

‘둘이 왔다’의 ‘둘’은 수사이고, ‘두 사람’의 ‘두’는 뒤의 명사를 꾸미는 수 관형사이다.

! 헷갈림 주의

- 의존 명사는 앞말에 기대어 쓰여도 단어로 인정하고 띄어 쓴다: ‘할 수’.

? 짧은 확인

문법04-Q02 ‘가져갈 것이 있다.’의 ‘것’은 조사·의존 명사 중 무엇인가?

답 _____

문법04-Q03 ‘셋이 세 상자를 옮겼다.’에서 ‘셋’과 ‘세’의 품사를 각각 쓰자.

답 _____

C 조사는 무슨 일을 할까?

짧은 답 **문법 관계를 표시하거나, 뜻을 보태거나, 말을 연결한다.**

조사 문법04-06	주로 체언 뒤에 붙어 문법 관계나 뜻을 나타내거나 말을 잇는 품사.



■ 조사

종류	하는 일	예
격 조사	앞말이 문장에서 맡는 자격을 표시	주격 이/가·께서, 목적격 을/를, 보격 이/가, 서술격 이다, 관형격 의, 부사격 에·에서·에게·로·와/과, 호격 아/야
보조사	한정·포함·대조 등의 뜻을 더함	만, 도, 은/는, 조차
접속 조사	둘 이상의 말을 같은 자격으로 이음	와/과, 하고, (이)랑

‘동생이 학생이 되었다’에서 ‘동생이’는 주어이고 ‘학생이’는 보어이므로, 앞의 ‘이’는 주격, 뒤의 ‘이’는 보격 조사이다.

문장 성분은 문법06에서 살핀다.

‘와’의 쓰임	분석
‘연필과 지우개를 샀다.’	연필·지우개가 목적어를 함께 이룸: 접속 조사
‘나는 동생과 닮았다.’	‘동생과’가 비교의 상대를 나타냄: 부사격 조사

조사는 체언 뒤에 주로 붙지만 ‘빨리도’, ‘먹고는’처럼 부사나 어미 뒤에 붙기도 한다.

! 헷갈림 주의

- ‘이’·‘가’는 주격 또는 보격일 수 있으므로 문장 안의 역할을 확인한다.
- ‘빨리도’처럼 부사에 보조사가 붙을 수 있으므로 조사 결합만으로 명사라 하지 않는다.

? 짧은 확인

문법04-Q04 ‘나만 남았다.’의 ‘만’은?

① 격 조사

② 보조사

③ 접속 조사

문법04-Q05 “‘동생과 형이 나란히 앉았다.’의 ‘과’는 접속 조사이다.” 이 설명은 맞는가?

○ O ○ X

D 동사와 형용사,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어떻게 다를까?

짧은 답 **동사·형용사**는 뜻과 활용으로, 본용언·보조 용언은 문장 속 역할로 구별한다.

동사·형용사 문법04-07	동사는 동작·작용, 형용사는 성질·상태를 나타내는 용언.
본용언·보조 용언 문법04-08	본용언은 중심 뜻을 나타내고, 보조 용언은 그 뒤에서 뜻을 보태는 용언.

기준식

기준	뜻·활용에 따른 품사	+	문장 속 용언의 역할
‘먹어 본다’의 보다	동사	+	보조 용언

■ 동사·형용사

비교

비교	형태	뜻	현재 평서형	현재 관형사형
■ 동사 vs ■ 형용사	같음 활용	다름 ■ 동작·작용 ■ 성질·상태	다름 ■ 읽는다 ■ 작다	다름 ■ 읽는 ■ 작은

동사는 명령·청유형과 대체로 결합하지만,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제약된다.

판별은 여러 근거를 함께 사용한다. 형용사 '없다'도 '없는'으로 활용하므로 **'-는'이 붙으면 무조건 동사라는 판단은 틀리다**.

동사는 목적어를 요구하는 **타동사**와 목적어를 요구하지 않는 **자동사**로 나눌 수 있다. '우편물을 받다'는 타동사, '꽃이 피다'는 자동사이다.

■ 본용언·보조 용언

문장	분석
'먼 산을 본다.'	'보다'가 보는 동작의 중심 뜻: 본용언
'새 음식을 먹어 본다.'	'먹다'가 중심 뜻, '보다'가 시도의 뜻: 본용언+보조 용언
'노래를 듣고 싶다.'	'듣다'가 중심 뜻, '싶다'가 희망의 뜻을 보탬

보조 용언에는 보조 동사(보다·버리다 등)와 보조 형용사(싶다 등)가 있다. **같은 낱말도 문장 안에서 본용언 또는 보조 용언으로 쓰일 수 있다.**

형용사는 성질·상태를 나타내는 **성상 형용사**(맑다·크다)와 앞의 내용을 가리키는 **지시 형용사**(이러하다·그러하다)로도 나눈다.

! 헷갈림 주의

- 동사·형용사는 명령·청유형 하나로 판정하지 않고 뜻·현재형도 함께 본다.
- 목적어가 생략될 수 있으므로 '을/를'이 안 보인다고 자동사는 아니다.
- '문을 열고 들어갔다'처럼 두 동작을 각각 나타내면 모두 본용언이다.

? 짧은 확인

문법04-Q06 "'맑은 하늘'의 '맑은'은 체언을 꾸미므로 관형사이다." 이 설명은 맞는가? ○ O ○ X

문법04-Q07 '편지를 써 보았다.'와 '편지를 다시 보았다.'의 '보았다'를 각각 본용언·보조 용언으로 구분하자.

답 _____

E 활용할 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질까?

짧은 답 **어미**의 위치·기능을 구별하고, 형태의 변화가 일반적인 규칙인지 살핀다.

어미의 종류 문법04-09	위치로는 선어말·어말, 어말 어미의 기능으로는 종결·연결·전성으로 나눈 갈래.
규칙 활용 문법04-10	어간·어미의 형태가 그대로이거나 변화가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되는 활용.
불규칙 활용 문법04-11	어간이나 어미의 변화가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활용.

1 어간·어미 나누기 → 2 어미의 위치·기능 구별 → 3 형태 변화의 규칙성 판단

■ 어미의 종류

위치 기준	기능 기준	예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앞	높임·시제 등	-시-, -었-, -겠-
어말 어미: 어미 연결의 끝	종결 어미	먹-+-는다
어말 어미	연결 어미	먹-+-고, 먹-+-어서
어말 어미	전성 어미: 다른 성분의 기능을 하게 함	명사형 -(으)ㅁ·-기, 관형사형 -는·-(으)ㄴ·-(으)ㄹ, 부사형 -게 등

'읽으셨다'는 읽-+-으시-+-었-+-다로 분석한다. 어미 전체를 하나로 뭉개면 높임·시간·종결의 기능을 구별하기 어렵다.

'가-+-아→가', '쓰-+-어→써'의 모음 탈락, '살-+-는→사는'의 ㄹ 탈락은 규칙 활용이다.

■ 불규칙 활용

변하는 곳	이름	대표 변화	같은 끝소리의 규칙 활용과 비교
어간	ㄷ 불규칙	듣-+-어→들어	닫아
어간	ㅂ 불규칙	춥-+-어→추워 · 돕-+-아→도와	잡아
어간	ㅅ 불규칙	짓-+-어→지어	벗어
어간	르 불규칙	흐르-+-어→흘러	치러(치르다)
어간	우 불규칙	푸-+-어→퍼	주어/줘
어미	여 불규칙	하-+-어→하여(해)	가(가다)

변하는 곳	이름	대표 변화	같은 끝소리의 규칙 활용과 비교
어미	러 불규칙	이르-+-어→이르러(도달하다)	따라(따르다)
어간·어미	ㅎ 불규칙	파랗-+-아→파래	좋아

‘듣다’는 ‘듣고’에서는 ㄷ이 그대로이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의 ‘들어’에서 ㄹ로 바뀐다.

! 헷갈림 주의

- 형태가 바뀌어도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되면 규칙 활용이다.
- ‘듣고’·‘들어’처럼 같은 단어도 결합하는 어미에 따라 불규칙 변화의 실현이 다르다.
- 끝소리가 같아도 ‘듣다’·‘닫다’처럼 불규칙·규칙이 갈리므로 단어와 조건을 함께 본다.

? 짧은 확인

문법04-Q08 ‘가셨다’의 ‘-시-’는 선어말 어미·어말 어미 중 무엇인가?

답 _____

문법04-Q09 ‘울다→우니’의 ㄹ 탈락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면 옳은가? ○ O ○ X

문법04-Q10 ‘묻다’가 ‘질문하다’일 때 ‘물어’, ‘땅속에 넣다’일 때 ‘묻어’로 활용한다. ㄷ 불규칙인 것은 어느 뜻의 ‘묻다’인가?

답 _____

문법04-Q11 ‘푸르다→푸르러’의 활용은?

① 르 불규칙

② 러 불규칙

F 꾸미는 말은 모두 같은 품사일까?

짧은 답 무엇을 꾸미는지와 **활용** 여부를 함께 본다.

관형사·부사·감탄사 문법04-12	관형사는 체언을 꾸미고, 부사는 주로 용언 등을 꾸미며, 감탄사는 느낌·부름·대답 등을 독립적으로 나타냄.
품사와 문장 성분 문법04-13	품사는 단어의 종류이고,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 맡는 역할.
문맥에 따른 품사 판별 문법04-14	같은 말이 문맥에 따라 둘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현상을 품사의 통용이라 하며, 뜻·결합·기능으로 판별함.

1 문맥의 뜻 확인 → 2 꾸미는 대상·결합 확인 → 3 활용 여부 확인 →
4 품사와 문장 성분을 따로 판정

■ 관형사·부사·감탄사

품사	쓰임	세부 갈래·예
관형사	체언 앞에서 꾸미며 활용하지 않음	성상: 새 책 · 지시: 이 책 · 수: 두 권
부사	주로 용언·관형사·다른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꾸밈	성분 부사: 매우·잘·안 · 문장 부사: 과연, 그리고
감탄사	느낌·부름·대답 등을 독립적으로 나타냄	아!, 여보세요, 네

부사는 체언을 한정하기도 한다. '바로 오늘'에서 '바로'는 부사이다.

'새 신발'의 '새'는 관형사이면서 관형어이고, '하얀 신발'의 '하얀'은 형용사의 활용형이면서 관형어이다.

■ 문맥에 따른 품사 판별

문장	해당 말의 품사	근거
'그것은 내 잘못이다.'	잘못: 명사	서술격 조사와 결합
'주소를 잘못 적었다.'	잘못: 부사	'적었다'를 꾸밈
'약속대로 움직이자.'	대로: 조사	체언에 붙음
'들은 대로 전했다.'	대로: 의존 명사	관형어의 꾸밈을 받음

이처럼 한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것을 **품사의 통용**이라고 한다.

문맥과 뜻까지 확인한다.

! 헷갈림 주의

- 모양이 같아도 뜻이 다른 별개 단어라면 품사의 통용이 아니라 동음이의어일 수 있다.
- 관형사에는 일반적으로 조사가 붙지 않지만, 부사에는 '너무도'처럼 보조사가 붙는다.

? 짧은 확인

문법04-Q12 '와, 정말 크다!'의 '와'는 감탄사·접속 조사 중 무엇인가?

답 _____

문법04-Q13 '빨리 달렸다.'와 '빠른 걸음'의 '빨리', '빠른'은 각각 어떤 품사인가?

답 _____

문법04-Q14 '다섯뿐이다.'의 '뿐'과 '기다릴 뿐이다.'의 '뿐'을 각각 조사·의존 명사로 구분하자.

답 _____

다시 비교하기

비교

비교	구별 기준
■ 동사 vs ■ 형용사	다름 ■ 동작·작용 ■ 성질·상태
■ 관형사 vs ■ 형용사의 관형사형	다름 ■ 활용하지 않는 품사 ■ 활용한 형태
■ 수사 vs ■ 수 관형사	다름 ■ 체언 ■ 체언을 꾸미는 말

다음 단원으로 ▶ 품사는 단어의 문법적 성질을 살핀다. 다음 단원에서는 같은 단어를 어휘의 기원과 뜻의 관계로 살핀다.

문법05 어휘와 의미 관계

단원 지도

핵심 질문 단어의 출신·사용 범위·뜻의 관계는 어떻게 다른가?

- **어휘의 갈래** — 기원·사용 범위 A
- **단어 사이 의미 관계** B·C
  - **유의·반의** — 비슷함·대립 B
  - **상하·부분·전체** — 종류·구성 부분 C
- **단어의 수와 의미의 수** — 다의·동음이의 D
- **의미의 쓰임과 변화** — 표현 효과·관용·확대·축소·이동 E

묶음	질문	개념
A	고유어·한자어·외래어는 무엇이 다를까?	어휘·기원에 따른 갈래·사용 범위에 따른 갈래
B	비슷한 말과 반대말은 어느 뜻을 기준으로 찾을까?	유의 관계·반의 관계
C	상하 관계와 부분·전체 관계는 어떻게 구분할까?	상하 관계·부분·전체 관계
D	뜻이 여러 개면 모두 다의어일까?	다의어·동음이의어
E	같은 사실도 어휘 선택에 따라 다르게 들릴까?	의미의 여러 측면·관용 표현·의미 변화

A 고유어·한자어·외래어는 무엇이 다를까?

짧은 답 고유어·한자어·외래어는 **말의 기원**에 따른 구분이다.

어휘 문법05-01	일정한 범위에서 쓰이는 단어들의 집합.
기원에 따른 갈래 문법05-02	말의 기원에 따라 고유어·한자어·외래어로 나눈 갈래.

사용 범위에 따른 갈래 문법05-03	지역·사용 집단·전문 분야·유행 시기 등 사용 범위에 따라 살핀 갈래.

기준식

기준	어휘의 기원	+	사용 범위
‘된소리’	고유어	+	언어학의 전문어

‘단어’는 개별 낱말, ‘어휘’는 그 낱말들을 모아 본 개념이다.

■ 기원에 따른 갈래

갈래	기준	예
고유어	본래부터 우리말에 있던 말이나 그것을 바탕으로 만든 말	하늘, 마음
한자어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	학교, 독서
외래어	다른 언어에서 들어와 우리말의 일부로 쓰이는 말	버스, 피아노

고유어와 한자어가 섞인 ‘눈병’처럼 기원이 다른 요소로 이루어진 **혼종어**도 있다. 외래어는 우리말 어휘의 일부이고, 외국어를 일시적으로 그대로 쓰는 것과 구별한다.

■ 사용 범위에 따른 갈래

구분	기준·특징
지역 방언	지역에 따라 나타나는 언어의 차이
사회 방언	세대·직업·계층 등 사회적 요인에 따른 차이
전문어	특정 전문 분야의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말
사고 도구어	‘비교하다·분석하다·근거’처럼 여러 학문에서 사고를 전개하는 데 쓰는 말
은어	특정 집단 내부에서 통하며 외부 사람이 뜻을 알기 어려운 말
유행어·새말	한동안 널리 쓰이는 말 · 새 대상·생각을 표현하려고 새로 생긴 말

! 헷갈림 주의

- 익숙한 말이라고 고유어는 아니며, 외래어도 우리말 어휘에 포함된다.
- 말의 기원과 사용 범위는 다른 기준이므로 전문어를 모두 한자어로 묶지 않는다.

? 짧은 확인

문법05-Q01 ‘피아노’가 외래어이므로 우리말 어휘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옳은가? ○ O ○ X

문법05-Q02 ‘청소년층에서 주로 쓰이는 표현’은 기원·사용 범위 중 어느 기준으로 묶은 것인가?

답 _____

B 비슷한 말과 반대말은 어느 뜻을 기준으로 찾을까?

짧은 답 그 문장에 쓰인 뜻을 먼저 확인한다.

유의 관계 문법05-04	서로 다른 단어의 뜻이 같거나 비슷한 관계.
반의 관계 문법05-05	공통적인 의미 바탕을 가지면서 한 기준에서 뜻이 대립하는 관계.

- **문맥 속 뜻의 관계** B
  - **유의** — 같거나 비슷함 B
  - **반의** — 같은 바탕에서 대립 B
    - **상보** — 중간 상태 없음 B
    - **등급** — 중간 정도 있음 B
    - **관계 반의어** — 참여자 사이 대응 관계 B
    - **방향 반의어** — 반대 방향 B

‘얼굴/낯’은 비슷하지만 ‘낯을 가리다’를 ‘얼굴을 가리다’로 바꾸면 뜻이 달라진다.

‘높다/낮다’는 높이라는 공통 기준에서 대립한다.

반의어의 종류	구별 질문	예
상보 반의어	둘 사이에 중간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가?	합격/불합격
등급 반의어	정도의 차이와 중간 상태가 있는가?	뜨겁다/차갑다
관계 반의어	같은 일을 서로 대응하는 참여자의 관점에서 보는가?	사다/팔다
방향 반의어	서로 반대 방향인가?	올라가다/내려가다

‘사다/팔다’는 같은 거래를 서로 다른 참여자의 쪽에서 본 관계이다.

다의어는 문장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에 따라 반의어가 달라진다. ‘문을 열다’의 반대는 ‘닫다’, ‘회의를 열다’의 반대는 문맥에 따라 ‘마치다’ 등으로 달라진다.

! 헷갈림 주의

- 유의어도 모든 문맥에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높다'·'빠르다'는 서로 다른 기준을 말하므로 반의어가 아니다.
- 등급 반의어는 중간 상태가 있어 '차갑지 않다'가 곧 '뜨겁다'는 뜻은 아니다.

? 짧은 확인

문법05-Q03 "'길지 않다'이면 반드시 '짧다'라고 할 수 있다." 이 설명은 맞는가? ○ O ○ X

문법05-Q04 같은 물건을 한 사람이 '빌려주다', 다른 사람이 '빌리다'로 표현하는 것은 상보·등급·관계 반의 중 무엇에 가까운가?

답 _____

C 상하 관계와 부분·전체 관계는 어떻게 구분할까?

짧은 답 **'B는 A의 한 종류'인지, 'B는 A를 이루는 한 부분'인지 넣어 본다.**

상하 관계 문법05-06	상위어의 범위에 하위어가 한 종류로 포함되는 관계.
부분·전체 관계 문법05-07	한 대상이 다른 대상을 이루는 부분인 관계.

1 두 대상 A·B 확인 → 2 'B는 A의 한 종류'인지 확인 → 3 'B는 A의 한 부분'인지 확인

비교

비교	관계의 기준	넣어 볼 문장
■ 상하 관계 vs ■ 부분·전체 관계	다름 ■ 종류의 포함 ■ 구성 부분	다름 ■ B는 A의 한 종류이다 ■ B는 A를 이루는 한 부분이다

개념	관계	예와 확인
상하 관계	상위어의 범위에 하위어가 포함됨	장미는 꽃의 한 종류이다.
부분·전체 관계	한 대상이 다른 대상을 이루는 부분임	꽃잎은 꽃의 한 부분이다.

상위어는 대체로 **적용 범위가 넓고 의미가 일반적**이다. 하위어는 상위어의 의미 특성에 추가 특성이 더해져 구체적이다.

'식물—꽃—장미'에서 '꽃'은 식물의 하위어이면서 장미의 상위어이다.

! 헷갈림 주의

- ‘꽃잎’은 ‘꽃’의 한 부분이며 한 종류가 아니므로 상하 관계가 아니다.
- ‘꽃’은 ‘식물’의 하위어이면서 ‘장미’의 상위어로, 상위·하위는 상대적이다.

? 짧은 확인

문법05-Q05 ‘악기—바이올린’과 ‘바이올린—현’을 각각 상하 관계·부분·전체 관계로 구분하자.

답 _____

문법05-Q06 “‘새’가 ‘동물’의 하위어이면 ‘참새’의 상위어가 될 수 없다.” 이 설명은 맞는가?

○ O ○ X

D 뜻이 여러 개면 모두 다의어일까?

짧은 답 뜻 사이의 관련성이 있으면 한 단어의 여러 뜻으로, 관련성이 없으면 별개의 단어로 본다.

다의어 문법05-08	하나의 단어에 서로 관련되는 여러 뜻이 있는 말.
동음이의어 문법05-09	소리는 같지만 의미적으로 별개의 단어인 말.

1 문맥별 뜻 확인 → 2 뜻 사이 관련성 확인 → 3 한 단어의 여러 뜻인지 별개 단어인지 판정

개념	소리·뜻의 관계	예
다의어	하나의 단어에 서로 관련되는 여러 뜻이 있음	‘사람의 발’과 ‘가구의 발’: 아래에서 받치는 부분이라는 관련성
동음이의어	소리는 같지만 의미적으로 별개의 단어임	글을 쓰다 · 모자를 쓰다 · 약이 쓰다

다의어의 기본적·핵심적 뜻은 **중심 의미**, 거기서 넓어진 뜻은 **주변 의미**이다. 사전은 다의어의 뜻을 한 표제어 안에서 나누고, 동음이의어는 별개의 표제어로 구분한다.

! 헷갈림 주의

- 뜻의 관련성이 불분명하면 억지로 연결하지 말고 사전의 표제어 구분을 확인한다.

? 짧은 확인

문법05-Q07 '사람의 머리'와 '행렬의 머리(맨 앞)'의 '머리'는 다의 관계·동음이의 관계 중 무엇인가?

답 _____

문법05-Q08 "소리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다의어라고 판정할 수 있다." 이 설명은 맞는가?

○ O ○ X

E 같은 사실도 어휘 선택에 따라 다르게 들릴까?

짧은 답 단어는 대상을 가리키는 뜻과 함께 태도·감정·관계도 드러낸다.

의미의 여러 측면 문법05-10	어휘의 뜻뿐 아니라 사용 집단·격식, 감정·평가, 문장에서 무엇을 앞세우는지 등을 함께 살피는 관점.
관용 표현 문법05-11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개별 단어 뜻의 단순한 합과 다른 뜻을 나타내는 표현.
의미 변화 문법05-12	시간이 흐르며 단어의 뜻이 확대·축소·이동하는 것.

의미를 살피는 관점 E

- **문맥·표현 효과** — 사회적·정서적·주제적 의미 E
- **굳어진 표현** — 관용 표현·속담 E
- **시대에 따른 변화** — 확대·축소·이동 E

■ 의미의 여러 측면

측면	살펴볼 것	예
중심·주변 의미	기본 뜻과 확장된 뜻	'발'의 신체 부분 · 물건을 받치는 부분
사회적 의미	지역·집단·관계가 드러나는 쓰임	지역 방언, 격식 있는 어휘
정서적 의미	호감·불만·놀람 등의 태도	같은 행동을 '신중하다/소극적이다'로 표현
주제적 의미	무엇을 앞세우거나 감추는가	'내가 꽃병을 깼다/꽃병이 깨졌다'에서 행위자 제시의 차이

'입이 무겁다'는 말을 함부로 옮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속담은 오랫동안 전해 오는 교훈·경험의 표현이다.

변화	기준	전통적인 비교 사례
확대	적용 범위가 넓어짐	'다리'가 신체 부분에서 물건을 받치는 부분까지 가리킴

변화	기준	전통적인 비교 사례
축소	적용 범위가 좁아짐	‘얼굴’이 몸 전체를 가리키던 뜻에서 안면의 뜻으로 좁아짐
이동	중심 의미가 다른 뜻으로 바뀜	‘어리다’가 어리석다는 뜻에서 나이가 적다는 뜻으로 바뀜

변화의 원인은 함께 쓰이는 말의 영향 같은 **언어적 요인**, 제도·사물의 변화 같은 **역사적 요인**, 사용 집단 변화 같은 **사회적 요인**, 대상에 대한 인식·감정 같은 **심리적 요인**으로 살필 수 있다. 옛뜻과 지금 뜻의 비교는 문법10으로 연결한다.

! 헷갈림 주의

- 금기어는 말하기를 꺼리는 말, 완곡어는 이를 대신하여 돌려 쓰는 말이다.

? 짧은 확인

문법05-Q09 “‘입이 무겁다’를 몸무게에 관한 말로만 해석하면 관용적 의미를 놓칠 수 있다.” 이 설명은 맞는가? ○ O ○ X

문법05-Q10 어떤 말이 과거에는 A·B·C를 가리켰으나 지금은 A만 가리킨다. 확대·축소·이동 중 무엇인가?

답 _____

◎ 다시 비교하기

비교

비교	관계의 기준
■ 유의 관계 vs ■ 반의 관계	다름 ■ 비슷함 ■ 대립
■ 상하 관계 vs ■ 부분·전체 관계	다름 ■ 한 종류 ■ 구성 부분
■ 다의어 vs ■ 동음이의어	다름 ■ 관련되는 한 단어의 뜻들 ■ 별개 단어의 뜻들

다음 단원으로 ▶ 단어의 뜻은 문장 안에서 구체화된다. 다음 단원에서는 단어와 구·절이 문장에서 맡는 역할과 짜임을 살핀다.

문법06 문장 성분과 구조

단원 지도

핵심 질문 문장의 각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주어·서술어 관계는 어떻게 결합할까?

- **문장의 단위** — 구·절·문장 A
- **문장 안의 역할** B·C
  - **성분** — 주성분·부속 성분·독립 성분 B
  - **필수 성분** — 서술어의 자릿수·필수 부사어 C
- **문장의 짜임** D·E
  - **홑문장** — 주어·서술어 관계 한 번 D
  - **겹문장** — 주어·서술어 관계 두 번 이상 D
    - **이어진문장** — 대등·종속 E
    - **안은문장** — 명사절·관형절·부사절·서술절·인용절 E
- **정확한 표현** — 호응·중복·중의성 F

묶음	질문	개념
A	긴 말 덩어리는 모두 절일까?	구·절·문장
B	문장 성분에는 무엇이 있을까?	문장 성분·주어·목적어·보어·부속 성분과 독립 성분
C	부사어는 모두 빼도 될까?	서술어의 자릿수·필수 부사어
D	홑문장과 겹문장은 어떻게 구별할까?	홑문장·겹문장
E	절을 잇는 것과 절을 안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이어진문장·안은문장·안긴절·관형절 속 성분의 생략·절의 범위 읽기
F	문장이 어색하거나 두 가지로 해석될 때는 무엇을 볼까?	정확한 문장·중의성

A 긴 말 덩어리는 모두 절일까?

짧은 답 길이가 아니라 내부에 **주어·서술어 관계**가 있는지 본다.

구 문법06-01	둘 이상의 단어가 묶여 한 성분처럼 기능하는 단위로, 묶음 자체의 결합은 주어·서술어 관계가 아님.
절 문법06-02	주어·서술어 관계를 가지며 더 큰 문장에 연결되거나 안겨 쓰이는 단위.
문장 문법06-03	생각·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단위.

1 묶은 범위 표시 → 2 그 묶음의 주어·서술어 관계 확인 → 3 전체 내용의 완결성 확인

개념	구별 기준	예
구	둘 이상의 단어가 한 성분처럼 기능하며, 묶음 자체의 결합은 주어·서술어 관계가 아님	'이 두 사람', '아주 빨리'
절	주어·서술어 관계를 가지며 더 큰 문장에 연결되거나 안겨 쓰임	'비가 오면' · '비가 온다는'
문장	생각·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단위	'비가 온다.'

구·절을 판단할 때는 **어느 범위를 묶었는지** 먼저 표시한다.

어절은 띄어쓰기와 관련된 단위(문법03-03)이고, 구·절은 문법적 결합을 보는 단위이다.

! 헷갈림 주의

- 명사구 안에 관형절이 들어가면 바깥 구와 안쪽 절의 범위를 구별한다.
- 띄어쓰기 단위인 어절 수와 주어·서술어 관계를 가진 절의 수는 다르다.

? 짧은 확인

문법06-Q01 '매우 천천히'와 '눈이 내리면' 중 내부에 주어·서술어 관계가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

답 _____

B 문장 성분에는 무엇이 있을까?

짧은 답 **문장 안에서의 역할에 따라 주성분 4개, 부속 성분 2개, 독립 성분 1개로 나눈다.**

문장 성분 문법06-04	문장 안에서 각 부분이 맡는 역할.
주어·목적어·보어 문법06-05	서술의 주체는 주어, 타동사의 동작 대상은 목적어, 보어는 '되다·아니다' 앞에서 주어 외에 필요한 성분으로, 기본적으로 보격 조사 '이/가'와 결합함.
부속 성분과 독립 성분 문법06-06	부속 성분은 관형어·부사어이고, 독립 성분은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문법 관계 없이 쓰이는 독립어.

문장 성분 B

- **주성분** — 주어·서술어·목적어·보어 B
- **부속 성분** — 관형어·부사어 B
- **독립 성분** — 독립어 B

■ 문장 성분

큰 갈래	성분	역할과 확인 질문	예
주성분	주어	서술의 주체: 누가/무엇이?	'새가 운다'의 새가
주성분	서술어	주체의 동작·상태·성질 등을 서술: 어찌하다/어떠하다/무엇이다?	운다, 맑다, 학생이다
주성분	목적어	타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 누구를/무엇을?	'편지를 읽는다'의 편지를
주성분	보어	'되다·아니다' 앞에서 보격 조사 '이/가'와 결합하여 주어 외에 뜻을 보충	'그는 의사가 되었다'의 의사가
부속 성분	관형어	체언을 꾸밈	새 책 · 동생의 책 · 읽은 책
부속 성분	부사어	용언·관형어·다른 부사어·문장 등을 꾸밈	매우 빠르다 · 학교에 갔다
독립 성분	독립어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문법 관계 없이 쓰임	'민수야, 이리 와'의 민수야

주어·목적어·보어: 조사 모양은 단서이지만 성분을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 '동생은 의사가 되었다'에서 '동생은'은 주어, '의사가'는 보어이다.

'과자도 먹었다'의 '과자도'는 목적어가 될 수 있다.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의 '얼음으로'는 필수 부사어이며 보어가 아니다.

표현 방식	관형어	부사어
해당 수식 품사	새 가방	빨리 달린다

표현 방식	관형어	부사어
체언+조사	친구의 가방	친구에게 준다
용언 활용형	가벼운 가방	가볍게 든다

! 헷갈림 주의

- 부사어는 부사로만, 관형어는 관형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 부사는 단어의 종류, 부사어는 문장 안의 역할이라는 다른 층위이다.

? 짧은 확인

문법06-Q02 '그 아이는 화가가 아니다.'의 '그 아이는'과 '화가가'는 각각 무슨 문장 성분인가?

답 _____

문법06-Q03 '우리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의 '도서관에서'는 부사·부사어 중 무엇이라고 해야 정확한가?

답 _____

C 부사어는 모두 빼도 될까?

짧은 답 **서술어가 꼭 요구하는 부사어도 있다.**

서술어의 자릿수 문법06-07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수로, 서술어 자신은 세지 않음.
필수 부사어 문법06-08	서술어가 문법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

1 서술어 찾기 → 2 서술어의 뜻에 꼭 필요한 참여자·대상 묻기 → 3 필수 성분의 수 세기

예 주다: 누가 + 무엇을 + 누구에게 = 세 자리

예 '아침에' = 시간 정보 추가 / '동생에게' = 받는 대상이므로 필수

서술어 자신은 세지 않는다.

자릿수	필수 성분의 구성	문장
한 자리	주어	꽃이 핀다.
두 자리	주어+목적어	동생이 책을 읽는다.

자릿수	필수 성분의 구성	문장
두 자리	주어+보어	동생이 학생이 되었다.
두 자리	주어+필수 부사어	동생이 나와 닮았다.
세 자리	주어+목적어+필수 부사어	누나가 동생에게 책을 주었다.

‘주다’에는 주는 이·주는 물건·받는 이가 필요하다.

‘나는 아침에 동생에게 책을 주었다’에서 ‘아침에’는 시간 정보를 더하는 부사어, ‘동생에게’는 받는 대상을 나타내는 필수 부사어이다.

! 헷갈림 주의

- 문맥상 생략된 성분이 있어도 서술어의 기본 자릿수는 줄어들지 않는다.
- 빼도 문맥상 알아들을 수 있는지보다 서술어의 뜻이 요구하는 성분인지 본다.

? 짧은 확인

문법06-Q04 ‘민지가 책상에 공책을 놓았다.’의 ‘놓다’는 몇 자리 서술어인가? 필요한 성분도 쓰자.

답 _____

문법06-Q05 “부사어는 부속 성분이므로 모두 수의적이며 생략 가능하다.” 이 설명은 맞는가?

○ O ○ X

D 홑문장과 겹문장은 어떻게 구별할까?

짧은 답 **주어·서술어 관계**가 한 번이면 홑문장, 두 번 이상이면 겹문장이다.

홑문장·겹문장 문법06-09	주어·서술어 관계가 한 번인 문장은 홑문장, 두 번 이상인 문장은 겹문장.



■ 홑문장·겹문장

예	주어·서술어 관계	판단
‘아이는 넓은 운동장을 힘차게 달린다.’	아이가 달린다 + 운동장이 넓다	‘넓은’ 관형절을 안은 겹문장
‘그 아이는 오늘 운동장에서 아주 빨리 달린다.’	아이가 달린다	꾸미는 말이 길어도 홑문장
‘나는 웃고 동생은 운다.’	나는 웃다 + 동생은 울다	겹문장

‘민지는 책을 읽고 잤다’는 ‘민지가 읽다’와 ‘민지가 자다’를 연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헷갈림 주의

- 주어가 생략되어도 주어·서술어 관계는 남으므로 함께 복원하여 센다.
- ‘읽고 싶다’처럼 한 서술어를 이루는 본용언·보조 용언을 두 절로 세지 않는다.

? 짧은 확인

문법06-Q06 ‘나는 오늘 아주 천천히 걸었다.’는 길다는 이유로 겹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

○ O ○ X

E 절을 잇는 것과 절을 안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짧은 답 이어진문장은 절과 절을 **연결 어미로 잇고**, 안은문장은 절을 문장의 **한 성분으로 품는다**.

이어진문장 문법06-10	둘 이상의 절이 대등하거나 종속적인 관계로 연결된 문장.
안은문장·안긴절 문법06-11	절을 한 성분처럼 품은 전체는 안은문장이고, 그 안에 들어간 절은 안긴절.
관형절 속 성분의 생략 문법06-12	관계 관형절에서 꾸밈을 받는 명사에 대응하는 성분이 절 안에서 생략되는 것.
절의 범위 읽기 문법06-13	안긴절 자체와 그 절이 포함된 더 큰 성분의 범위를 구별하는 것.



■ 이어진문장

갈래	의미 관계	예
대등	나열·대조·선택	‘나는 책을 읽고 동생은 그림을 그린다.’ · ‘비는 오지만 바람은 잔잔하다.’
종속	원인·조건·목적·양보·배경 등	‘길이 얼어서 천천히 걸었다.’ · ‘날이 맑으면 출발하자.’

‘-고’도 문맥에 따라 단순 나열뿐 아니라 시간적 선후를 나타낸다.

연결 어미의 모양과 절 사이 의미를 함께 확인한다.

안긴절	성분처럼 하는 일	형태 단서	예: 대괄호 안이 절
명사절	명사처럼 주어·목적어 등으로 쓰임	-(으)ㅁ, -기	‘[그가 도착했음]이 알려졌다.’
관형절	뒤의 체언을 꾸밈	-(으)ㄴ, -는, -(으)ㄹ, -던 등	‘[내가 고른] 책을 읽었다.’
부사절	뒤의 서술어 등을 꾸밈	-게, -도록 등	‘우리는 [목이 아프도록] 응원했다.’
서술절	문장의 서술어 역할	특별한 절 표지가 없음	‘기린은 [목이 길다].’
인용절	다른 말·생각을 인용	(이)라고, 고	‘누나는 [곧 온다고] 말했다.’

관형절 속 성분의 생략: ‘내가 고른 책’은 ‘내가 책을 골랐다’에서 목적어 ‘책을’이 관형절 안에서 생략된 관계이다. 꾸밈을 받는 명사가 절 안의 성분에 대응하는 **관계 관형절**이다.

반면 ‘친구가 합격했다는 소식’은 ‘친구가 합격했다’라는 내용 자체가 소식이 되는 **동격 관형절**로 볼 수 있다.

절의 범위 읽기: ‘나는 [동생이 읽은] 책을 빌렸다’에서 대괄호 안이 관형절이다. ‘동생이 읽은 책’ 전체는 조사 ‘을’과 결합하여 목적어를 이루는 명사구이다.

! 헷갈림 주의

- 절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지만으로 대등·종속 관계를 확정하지 않는다.
-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의 앞 절을 부사절로 보는 분석도 있으므로 제시된 틀을 따른다.
- ‘[동생이 읽은] 책’에서 명사 ‘책’까지 관형절 안에 넣지 않는다.

? 짧은 확인

문법06-Q07 ‘기온이 내려가서 물이 얼었다.’는 대등·종속 중 어느 관계로 이어진문장인가?

답 _____

문법06-Q08 ‘나는 [친구가 건강하기]를 바란다.’의 대괄호 안은 무슨 절인가?

답 _____

문법06-Q09 ‘언니가 만든 인형을 보았다.’에서 관형절의 범위를 쓰고, 그 안에서 생략된 성분을 쓰자.

답 _____

문법06-Q10 ‘코끼리는 귀가 크다.’에서 서술절로 분석되는 부분을 쓰자.

답 _____

F 문장이 어색하거나 두 가지로 해석될 때는 무엇을 볼까?

짧은 답 필수 성분·호응·중복·해석 **범위**를 차례로 점검한다.

정확한 문장 문법06-14	필요한 성분과 성분 간 호응을 갖추고 불필요한 중복 없이 뜻을 전달하는 문장.
중의성 문법06-15	한 표현이 둘 이상의 뜻으로 해석되는 성질.

1 필요한 성분 확인 → 2 성분 간 호응 확인 → 3 불필요한 반복 확인 → 4 의도한 뜻과 해석 범위 확인

■ 정확한 문장

확인	어색한 예	고친 예와 이유
필요한 성분	‘그는 상대에게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했다.’	‘…상대를 속이기도 했다.’: 두 번째 동사의 목적어 보충
주어·서술어 호응	‘내 목표는 완주하고 싶다.’	‘내 목표는 완주하는 것이다.’
목적어·서술어 호응	‘빵과 우유를 마셨다.’	‘빵을 먹고 우유를 마셨다.’
부사어·서술어 호응	‘그는 결코 포기한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확인	어색한 예	고친 예와 이유
불필요한 반복	‘이 일의 원인은 장비 고장이 원인이다.’	‘이 일의 원인은 장비 고장이다.’

원인	예	해소 방법
단어의 여러 뜻	‘배가 크다.’	배가 과일·선박·신체의 배 중 무엇인지 밝힘
수식 범위	‘작은 민수의 가방’	‘몸집이 작은 민수의 가방’ · ‘민수의 작은 가방’
비교 대상	‘나는 동생보다 책을 더 좋아한다.’	나와 동생을 비교: ‘나는 동생이 책을 좋아하는 것보다 책을 더 좋아한다.’ / 좋아하는 대상을 비교: ‘나는 동생을 좋아하는 것보다 책을 더 좋아한다.’
부정 범위	‘모두 오지 않았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전체 부정) · ‘일부는 왔지만 모두 오지는 않았다’(부분 부정)로 범위를 명시
소유·행위 관계	‘친구의 사진’	친구가 찍은 · 친구가 나온 · 친구가 소유한 사진

중의성을 없애려면 해석하려는 뜻에 맞게 말의 순서를 바꾸거나, 생략된 정보를 보충하거나, 조사·수식 표현을 조정한다. 피동·사동의 어색함과 높임의 대상 오류는 문법07에서 이어서 본다.

! 헷갈림 주의

- 두 가지로 해석되는 중의성이 있다고 언제나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은 아니다.

? 짧은 확인

문법06-Q11 ‘우리의 약속은 서로 돕는다.’를 ‘우리의 약속은’과 호응하도록 고치자.

답

문법06-Q12 ‘사진 속의 동생’을 분명하게 가리키도록 ‘동생의 사진’을 고치자.

답

다시 비교하기

비교

비교	구별 기준
■ 구 vs ■ 절	다름 ■ 묶음 자체에 주어·서술어 관계 없음 ■ 있음
■ 이어진문장 vs ■ 안은문장	다름 ■ 절의 연결 ■ 절의 성분 기능
■ 필수 부사어 vs ■ 수의적 부사어	다름 ■ 서술어가 요구 ■ 추가 정보

다음 단원으로 ▶ 문장 구조를 알면 높이는 대상과 동작 참여자의 역할을 분명히 찾을 수 있다. 다음 단원에서는 높임·시간·피동·사동 등의 표현을 살핀다.

문법07 문법 표현

단원 지도

핵심 질문 같은 사건도 문법 표현에 따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초점이 어떻게 달라질까?

- **문장의 끝맺음** — 종결 표현 A
- **높이는 대상** — 주체·객체·상대 B
- **사건의 시간** — 시제·동작상 C
- **동작 참여자의 관계** D·E
  - **능동·피동** — 동작을 함·받음 D
  - **주동·사동** — 직접 함·하게 함 E
- **말의 전달** — 직접·간접 인용 F
- **부정** — 뜻·형식·범위 G

묶음	질문	개념
A	의문문이면 반드시 답을 요구할까?	종결 표현·의문문의 종류
B	누구를 높이는지 어떻게 찾을까?	세 높임법·직접·간접 주체 높임·상대 높임의 등급
C	'언제'와 '진행 중인지'는 같은 질문일까?	시제·절대 시제·상대 시제·동작상
D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질까?	능동·피동·피동의 실현·이중 피동 주의
E	사동은 피동과 무엇이 다를까?	주동·사동·사동의 실현·피동·사동의 판별
F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무엇을 바꿀까?	직접·간접 인용
G	'안'과 '못'은 무엇이 다를까?	부정 표현·부정 범위

A 의문문이면 반드시 답을 요구할까?

짧은 답 문장의 종결 형식과 실제 말하려는 의도가 다를 수 있다.

종결 표현 문법07-01	문장을 끝맺으며 진술·물음·명령·청유·감탄 등의 기능을 나타내는 표현.
의문문의 종류 문법07-02	요구하는 답이나 의도에 따라 설명·판정·수사 의문문 등으로 나눈 갈래.



■ 종결 표현

종류	기본 기능	예
평서문	사실·생각을 진술	‘문이 열렸다.’
의문문	물음	‘누가 문을 열었니?’
명령문	상대에게 행동 요구	‘문을 닫아라.’
청유문	함께 행동 제안	‘문을 닫자.’
감탄문	느낌·깨달음 표현	‘바람이 시원하구나!’

‘잠깐 비켜 주시겠어요?’는 의문 형식이지만 요청의 의도를 나타낼 수 있다.

■ 의문문의 종류

종류	요구하는 것	예
설명 의문문	구체적인 내용 설명	‘누가 발표했니?’
판정 의문문	긍정·부정 판단	‘발표가 끝났니?’
수사 의문문	실제 답변보다 강조·감탄 등	‘이 일을 어찌 잊겠니?’

! 헷갈림 주의

- ‘-어요’처럼 종결 기능이 여럿인 어미는 억양과 맥락을 함께 본다.

? 짧은 확인

문법07-Q01 ‘같이 정리하자.’는 명령문·청유문 중 무엇인가?

답 _____

문법07-Q02 “자리에서 비켜 달라는 뜻의 ‘좀 비켜 주실래요?’는 의문 형식과 요청 의도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이 설명은 맞는가? ○ O ○ X

B 누구를 높이는지 어떻게 찾을까?

짧은 답 문장 속 **주체·객체**와 문장 밖의 듣는 이를 구별한다.

세 높임법 문법07-03	높이는 대상에 따라 주체·객체·상대 높임으로 나눈 것.
직접·간접 주체 높임 문법07-04	주체를 직접 높이거나, 주체와 밀접한 신체·소유물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
상대 높임의 등급 문법07-05	듣는 이를 대우하는 방식을 격식성 및 높임의 정도에 따라 나눈 갈래.

높이는 대상에 따른 높임법 B

- **주체 높임** — 서술의 주체 B
- **객체 높임** — 목적어·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 B
- **상대 높임** — 듣는 이 B

■ 세 높임법

종류	높이는 대상	대표 수단	예
주체 높임	서술의 주체	-(으)시-, 께서, 계시다·주무시다	선생님께서 오셨다.
객체 높임	목적어·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	께, 드리다·뵙다·모시다·여쭙다	나는 선생님께 여쭈었다.
상대 높임	듣는 이	종결 어미, 요	나는 책을 읽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셨어요.’에서 **‘께서/-시-’는 할머니**, **‘께/드리다’는 선생님**, **‘-어요’는 듣는 이**와 관계된다.

■ 직접·간접 주체 높임

구분	무엇을 통해 높이나?	예
직접	높일 사람 자체	할아버지께서 방에 계신다.
간접	그 사람의 신체·소유물·심리 등 밀접한 대상	할아버지는 손이 크시다.

간접 높임에서는 대체로 '-(으)시-'를 쓴다. '할머니는 걱정이 계신다'보다 '걱정이 있으시다'가 적절하다.

■ 상대 높임의 등급

큰 구분	등급	평서형 예
격식체	하십시오체: 아주 높임	갑니다
격식체	하오체: 예사 높임	가오
격식체	하게체: 예사 낮춤	가네
격식체	해라체: 아주 낮춤	간다
비격식체	해요체: 두루 높임	가요
비격식체	해체: 두루 낮춤	가

격식체는 주로 공식적·의례적인 상황에서 격식과 거리감을, 비격식체는 주로 친근한 상황에서 부드러움을 드러낸다.

같은 사건에도 듣는 이에 따라 종결 표현을 바꿀 수 있다.

! 헷갈림 주의

- 상대 높임의 대상인 듣는 이는 문장 속에 적혀 있지 않아도 된다.
- 물건 높임인 '빵이 나오셨습니다'는 잘못된 표현이므로 '나왔습니다'로 고친다.
- 격식체·비격식체는 높임 정도만으로 나누지 않고 격식·거리감·상황도 본다.

? 짧은 확인

문법07-Q03 '제가 교수님께 책을 드렸습니다.'의 '드리다'는 누구를 높이는가? 주체·객체·듣는 이 중 고르자.

답 _____

문법07-Q04 '선생님은 눈이 밝으시다.'는 직접·간접 주체 높임 중 무엇인가?

답 _____

문법07-Q05 "'문을 닫습니다/닫아요'는 둘 다 상대를 높일 수 있지만 격식체·비격식체가 다르다." 이 설명은 맞는가? ○ O ○ X

C ‘언제’와 ‘진행 중인지’는 같은 질문일까?

짧은 답 **시제**는 시간의 앞뒤, 동작상은 사건이 진행되는 모습을 나타낸다.

시제 문법07-06	기준 시점과 사건시(일이 일어난 때)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로, 기본적으로 발화시(말하는 때)를 기준으로 삼음.
절대 시제·상대 시제 문법07-07	발화시를 기준으로 삼으면 절대 시제, 다른 사건시를 기준으로 삼으면 상대 시제.
동작상 문법07-08	동작의 진행·완료 등 사건이 전개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

기준식

기준	기준 시점과 사건시의 관계	+	사건의 진행·완료
‘어제 읽고 있었다’	과거 시제	+	진행상

■ 시제

시제	발화시와 사건시	대표 표현
과거	사건시가 앞섬	읽었다, 예전에 살았었다, 가던 길
현재	사건시가 발화시와 겹침	읽는다, 꽃이 예쁘다, 읽는 사람
미래	사건시가 뒤에 놓임	내일 읽을 것이다, 곧 출발하겠다

시제는 선어말 어미뿐 아니라 관형사형 어미·시간 부사·문맥으로 나타난다. 형용사 ‘예쁘다’는 별도의 현재 선어말 어미 없이 현재 상태를 표현한다.

주의할 형태	한 가지로 고정하지 말 것
-겠-	미래뿐 아니라 추측(벌써 도착했겠다), 의지(꼭 해내겠다), 가능성(나도 풀겠어), 완곡함(들어가도 되겠습니까)을 나타냄
-았/었-	과거 사건 외에 결과가 현재 남아 있음(지금 문이 닫혔다), 미래의 확실성(내일도 비가 오니 소풍은 다 갔다) 등을 나타낼 수 있음
-더-	과거 경험을 돌아보는 회상의 뜻과 연결됨
-(으)ㄴ	동사의 과거 관형사형(읽은 책)과 형용사의 현재 관형사형(맑은 물)을 구별

절대 시제·상대 시제: 발화시를 기준으로 잡으면 절대 시제, 다른 사건시를 기준으로 잡으면 상대 시제이다. ‘어제 나는 운동하는 친구를 보았다’의 ‘운동하는’은 발화시 기준인 **절대 시제에서는 과거**, 어제 본 때 기준인 **상대 시제에서는 현재**이다.

■ 동작상

갈래	의미	예
진행상	동작이 진행됨	동생이 숙제를 하고 있다.
완료상	동작이 끝났거나 끝난 결과가 이어짐	동생이 의자에 앉아 있다. · 숙제를 끝내 버렸다.

‘모자를 쓰고 있다’는 모자를 머리에 올리는 **동작의 진행**, 이미 쓴 **결과 상태의 지속**으로 모두 읽힐 수 있다.

‘어제 읽고 있었다’처럼 과거 시제와 진행상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

! 헷갈림 주의

- 관형사형 ‘-는’만 보고 발화시에도 사건이 계속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 ‘-고 있다’는 진행 또는 완료 뒤 결과 지속을 나타낼 수 있다.

? 짧은 확인

문법07-Q06 ‘지금쯤 집에 있겠구나.’의 ‘-겠-’는 미래를 나타내는가, 현재 상황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가?

답 _____

문법07-Q07 ‘어제 사진을 찍을 때 동생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에서 이미 쓴 상태가 이어졌다면 진행상·완료상 중 무엇인가?

답 _____

문법07-Q08 “‘어제 달리는 선수를 보았다.’의 달리는 시점은 본 시점과 동시일 수 있다.” 이 설명은 맞는가? ○ O ○ X

D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질까?

짧은 답 **동작을 받는 대상이 주어가 되어 앞에 드러난다.**

능동·피동 문법07-09	주어가 동작을 하는 표현은 능동, 다른 주체의 동작·작용을 받는 표현은 피동.
피동의 실현 문법07-10	접미사나 ‘-아/어지다’ 등의 구성으로 피동을 나타내는 것.
이중 피동 주의 문법07-11	이미 피동인 표현에 피동 요소를 불필요하게 겹치지 않도록 살피는 것.

1 능동문의 행위자·대상 확인 → 2 대상을 피동문의 주어로 바꿈 →
3 서술어와 나머지 성분을 조정

■ 능동·피동

능동문	피동문
바람이 문을 닫았다.	문이 바람에 닫혔다.
행위·작용의 주체가 주어	영향을 받는 대상이 주어

■ 피동의 실현

방법	구성	예
파생적	어간+피동 접미사 -이-·-히-·-리-·-기-	놓이다, 잡히다, 열리다, 안기다
통사적	-아/어지다	쓰레기가 버려지다
함께 살필 구성	-게 되다: 문맥·분석 관점 확인	그 일을 맡게 되었다.
그 밖의 표현	-되다··받다··당하다 등	결정되다, 사랑받다

'-게 되다'를 통사적 피동에 포함하는 설명도 있지만, 이 형태만으로 모든 문장을 피동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날씨가 따뜻하게 되었다'는 상태의 성립을 나타내므로 동작을 받는 피동과 구별한다.

피동은 행위자를 모르거나 드러낼 필요가 없을 때, 영향을 받은 대상·결과에 초점을 둘 때 쓰인다.

이중 피동 주의: '잊혀지다'는 '잊히다' 또는 '잊어지다'로 다듬는다.

! 헷갈림 주의

- 모든 능동문이 자연스러운 피동문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 '따뜻해지다'처럼 형용사에 '-아/어지다'가 붙으면 상태 변화이며 피동이 아니다.
- '녹여지다'처럼 사동 요소에 피동이 붙은 말을 모두 이중 피동이라 하지 않는다.

? 짧은 확인

문법07-Q09 '경비원이 도둑을 잡았다'를 '도둑이 경비원에게 잡혔다'로 바꾸었다.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에서 무슨 성분이 되었는가?

답 _____

문법07-Q10 "'이 글은 쉽게 읽혀진다.'의 '읽혀진다'는 이중 피동이다." 이 설명은 맞는가?

○ O ○ X

E 사동은 피동과 무엇이 다를까?

짧은 답 **피동**은 주어가 다른 주체의 동작·작용을 받고, **사동**은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게 하거나 상태를 바꾸게 한다.

주동·사동 문법07-12	주어가 직접 하는 표현은 주동, 다른 대상에게 하게 하거나 상태를 바꾸게 하는 표현은 사동.
사동의 실현 문법07-13	접미사나 '-게 하다' 등의 구성으로 사동을 나타내는 것.
피동·사동의 판별 문법07-14	접미사 모양과 함께 주어가 동작을 받는지, 남에게 하게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

1 원래 동작 주체 확인 → 2 하게 하는 주체를 새 주어로 둠 →
3 원래 주어와 서술어의 형태를 조정

■ 주동·사동

주동문	사동문	바뀐 관계
아이가 웃었다.	누나가 아이를 웃겼다.	웃게 한 주체가 새 주어로 등장
아이가 밥을 먹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	원래 주어 '아이'가 부사어, '밥'은 목적어로 유지

■ 사동의 실현

방법	구성	예
파생적	-이···히···리···기···우···구···추- 등	먹이다, 앉히다, 울리다, 웃기다, 깨우다, 돋구다, 낮추다
통사적	-게 하다	아이를 웃게 하다
그 밖의 표현	-시키다 등	대피시키다

'옷을 입혔다'는 직접 손을 써서 입혀 준 **직접 사동**과 말로 입도록 한 **간접 사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옷을 입게 했다'는 보통 다른 대상이 입도록 한 간접 사동으로 해석한다.

피동·사동의 판별: 접미사 '-이···히···리···기-'는 두 표현에 겹친다.

문장	판단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	아기가 안는 동작을 받음: 피동
'엄마가 아이에게 동생을 안겼다.'	아이가 동생을 안도록 함: 사동

! 헷갈림 주의

- 파생적 사동이 언제나 직접·간접 두 해석을 모두 갖는 것은 아니다.
- 피동·사동 접미사 모양이 겹치므로 주어가 동작을 받는지, 하게 하는지 확인한다.

? 짧은 확인

문법07-Q11 '동생이 깼다'를 '언니가 동생을 깨웠다'로 바꾸면 피동·사동 중 무엇인가?

답 _____

문법07-Q12 "'사람들에게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에서 주어 '이름'이 남에게 알도록 시키고 있으므로 사동문이다." 이 설명은 맞는가? ○ O ○ X

F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무엇을 바꿀까?

짧은 답 **전달자의 관점에서 인칭·시간·장소·높임·종결을 확인한다.**

직접·간접 인용 문법07-15	원래 말의 형식을 살리면 직접 인용, 전달자의 관점에서 내용을 옮기면 간접 인용.

1 원래 발화의 내용 확인 → 2 전달자의 인칭·시간·장소 확인 → 3 높임·종결·인용 표지를 조정

■ 직접·간접 인용

비교

비교	말의 처리	전형적인 표지
■ 직접 인용 vs ■ 간접 인용	다름 ■ 원래 말투·형식 ■ 전달자의 관점	다름 ■ 따옴표와 (이)라고 ■ 보통 따옴표 없이 고

직접 인용: 민수가 "내일 내가 갈게."라고 말했다.

간접 인용: 민수가 다음 날 자기가 가겠다고 말했다.

직접 인용한 말이 받침으로 끝나면 '이라고'도 쓴다: 그는 종이에 "시작"이라고 썼다.

원래 종결	간접 인용의 전형
평서	간다고 · 예쁘다고
의문	가느냐고 · 갔냐고
명령	가라고
청유	가자고

! 헷갈림 주의

- 간접 인용에서도 같은 날 전달하면 '내일'이 유지되므로 전달 시점을 먼저 확인한다.
- 인칭 표현 '나'도 원래 말한 이와 전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 짧은 확인

문법07-Q13 어제 수진이 "내일 발표할게."라고 했고, 오늘 그 말을 전달한다. '수진이는 ( )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의 빈칸을 채우자.

답 _____

문법07-Q14 '친구가 "함께 가자."라고 말했다.'를 간접 인용으로 바꾸자.

답 _____

G '안'과 '못'은 무엇이 다를까?

짧은 답 **안**은 단순·의지 부정, **못**은 능력·상황 때문에 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부정 표현 문법07-16	어떤 사실·상태·동작을 그렇지 않거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내는 표현.
부정 범위 문법07-17	문장 안에서 실제 부정의 초점이 놓이는 대상이나 내용의 범위.

기준식

기준	부정의 뜻	+	부정의 형식	
'힘이 약해 들지 못했다'	능력 부정	+	긴 부정	

■ 부정 표현

뜻	짧은 부정	긴 부정
단순 부정·의지 부정	안 가다, 안 춥다	가지 않다, 춥지 않다
능력·상황 부정	못 가다	가지 못하다
금지: 명령·청유	—	가지 마라, 가지 말자

긴 부정 '-지 못하다'는 기대하는 상태에 못 미침을 나타낼 때 형용사에도 쓰인다: 깨끗하지 못하다.

'모르다·없다·아니다'처럼 어휘 자체가 부정을 나타내는 말도 있다.

부정 범위: ‘민지는 사과를 먹지 않았다’에서 민지가 아닌 사람이 먹었다는 것인지, 사과가 아닌 다른 것을 먹었다는 것인지, 먹지 않고 다른 행동을 했다는 것인지 맥락에 따라 초점이 달라질 수 있다. ‘사과는 먹지 않고 배를 먹었다’처럼 조사나 뒷말로 범위를 분명하게 한다.

! 헷갈림 주의

- ‘안 춥다’의 ‘안’은 의지 부정이 아니라 상태의 단순 부정이다.
- 짧은 부정 ‘못 예쁘다’는 쓰지 않으며, 긴 부정 ‘깨끗하지 못하다’는 가능하다.

? 짧은 확인

문법07-Q15 ‘차가 끊겨 집에 못 갔다.’는 의지 부정·상황 부정 중 무엇인가?

답 _____

문법07-Q16 “‘우리 모두 떠들지 말자.’는 ‘말다’를 사용한 금지의 청유 표현이다.” 이 설명은 맞는가?

○ O ○ X

◎ 다시 비교하기

비교

비교	구별 기준
■ 주체 높임 vs ■ 객체 높임	다름 ■ 서술의 주체 ■ 목적어·부사어의 대상
■ 시제 vs ■ 동작상	다름 ■ 시간의 선후 ■ 진행·완료
■ 피동 vs ■ 사동	다름 ■ 주어가 동작을 받음 ■ 남에게 하게 함

다음 단원으로 ▶ 종결·높임·인용·부정은 실제로 말하는 상황과 연결된다. 다음 단원에서는 맥락과 담화 참여자의 관계를 살핀다.

문법08 담화

단원 지도

핵심 질문 같은 말도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에 따라 왜 뜻이 달라질까?

- **담화의 성립** — 발화·맥락 A
- **담화의 연결** B·C
  - **연결 수단** — 지시·대용·생략·접속 B
  - **연결의 성질** — 통일성·응집성 C
- **담화 참여자의 조정** D
  - **대화 원리** — 협력·공손성·체면 D
  - **공동체의 방식** — 담화 관습 D

묶음	질문	개념
A	문장 뜻만 알면 발화 의도도 알 수 있을까?	발화·담화·맥락
B	'이것·그것'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쓰일까?	담화를 잇는 표현
C	연결어가 많으면 좋은 담화일까?	통일성·응집성
D	대화 원리는 어떻게 실제 말에 적용할까?	협력의 원리·공손성의 원리·체면 유지·담화 관습

A 문장 뜻만 알면 발화 의도도 알 수 있을까?

짧은 답 **문장의 뜻에 상황과 참여자의 관계를 더해야 한다.**

발화 문법08-01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실제로 한 말.
담화 문법08-02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발화 또는 서로 연결된 발화의 집합.
맥락 문법08-03	말의 의미·의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언어적·비언어적 배경.

1 문장에 드러난 뜻 확인 → 2 말한 상황·참여자의 관계 확인 → 3 그 상황에서의 의도 해석

‘창문이 열려 있네.’(추운 교실에서 창가 친구에게)

문장의 뜻: 창문이 열려 있음 / 상황에서 가능한 의도: 창문을 닫아 달라는 요청

담화에는 화자(필자), 청자(독자), 전달하는 내용과 목적, 맥락이 관여한다.

맥락의 종류	확인 질문	예
언어적 맥락	앞뒤에서 어떤 말을 했는가?	‘그건 안 돼’의 ‘그것’이 앞의 제안을 가리킴
상황 맥락	누가·언제·어디에서·무슨 목적으로 말하는가?	발표 연습 중 진행자가 시계를 보며 ‘시간이 다 되었네요’라고 하면 마무리를 요청할 수 있음
사회·문화적 맥락	어떤 관계·가치·관습을 공유하는가?	인사로 묻는 안부와 실제 정보 질문을 구별

구어 담화는 억양·표정·몸짓과 즉각적인 반응을 활용하기 쉽다. 문어 담화는 문장과 구성 자체로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헷갈림 주의

- 담화에는 대화뿐 아니라 안내문·편지·설명문 같은 글도 포함된다.
- 채팅처럼 구어와 문어의 특징이 함께 나타나는 담화도 있다.

? 짧은 확인

문법08-Q01 식탁에서 동생이 손이 닿지 않는 김치를 보며 김치 가까이에 앉은 아빠에게 “김치가 멀리 있네요.”라고 했다. 이 상황의 주된 의도는?

① 김치의 위치만 알림

② 김치를 건네 달라는 요청

문법08-Q02 앞 문장에서 언급한 계획을 알아야 ‘그 계획’의 뜻을 알 수 있다면 주로 어떤 맥락을 활용하는가?

답 _____

B ‘이것·그것’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쓰일까?

짧은 답 현장의 대상을 가리키는지, 담화 속 내용을 대신하는지 본다.

담화를 잇는 표현 문법08-04	지시·대용·생략·접속 등으로 대상을 가리키거나 담화의 부분을 연결하는 표현.

담화를 잇는 수단 B

- **지시·대용** — 가리키거나 대신함 B
- **생략** — 맥락으로 복원할 부분을 줄임 B
- **접속** — 의미 관계를 드러냄 B

■ 담화를 잇는 표현

수단	기능	예
지시	사람·사물·장소·시간 등을 가리킴	물건을 가리키며 '이것을 들어 줘.'
대용	이미 언급했거나 뒤에 언급할 말·내용을 대신함	'공연이 취소됐어. 그것은 아쉬운 일이야.'
생략	맥락으로 복원 가능한 성분을 줄임	'누가 청소했니?' '민수가.'에서 서술어 생략
접속	발화·문장의 의미 관계를 나타냄	그러나: 대조 · 그래서: 결과 · 그리고: 추가

'그것'이 현장의 물건을 가리키는지, 앞의 사건 전체를 대신하는지 범위를 확인한다.

! 헷갈림 주의

- '그것'이라는 지시어도 앞의 내용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형태만으로 지시·대용을 가르지 않는다.

? 짧은 확인

문법08-Q03 "비가 많이 와서 경기가 취소됐어." "그건 정말 아쉽다."에서 '그것'이 대신하는 내용을 쓰자.

답 _____

문법08-Q04 '준비를 충분히 했다. ( ) 실수를 줄일 수 있었다.'에 들어갈 말은?

① 그래서

② 그러나

C 연결어가 많으면 좋은 담화일까?

짧은 답 **형식상의 연결과 내용상의 일관성이 함께 있어야 한다.**

통일성 문법08-05	내용이 하나의 주제·목적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성질.
응집성 문법08-06	지시·대용·접속 등의 표현으로 담화의 부분들이 연결되는 성질.

겹침표

통일성 \ 응집성	표현 연결이 분명함	표현 연결이 부족함
주제 일관성이 있음	주제와 표현이 모두 연결됨	주제는 같지만 지시 대상·접속 관계가 불분명함
주제 일관성이 없음	접속 표현 등이 있어도 주제에서 벗어남	주제와 표현의 연결을 모두 보완해야 함

개념	보는 기준	점검 질문
통일성	내용이 하나의 주제·목적을 중심으로 이어짐	이 문장이 전체 주제에 필요한가?
응집성	지시·대용·접속 등의 표현으로 부분들이 연결됨	무엇을 가리키는지, 앞뒤 관계가 분명한가?

'우리 반은 운동장을 청소했다. 그리고 고래는 포유류이다.'에는 응집성의 표지인 접속 표현이 있지만 주제의 통일성이 없다.

! 헷갈림 주의

- 주제가 같아도 지시 대상·접속 관계가 불분명하면 응집성을 보완해야 한다.

? 짧은 확인

문법08-Q05 학교 도서관 이용 안내에 관련 없는 운동선수 소개가 끼어들었다. 우선 통일성·응집성 중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답 _____

D 대화 원리는 어떻게 실제 말에 적용할까?

짧은 답 **목적에 맞는 정보를 주면서 상대의 부담과 체면도 고려한다.**

협력의 원리 문법08-07	대화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협력하는 원리.
공손성의 원리 문법08-08	상대의 부담과 이익 등을 고려하여 배려하며 말하는 원리.
체면 유지 문법08-09	상대가 존중받고 싶어 하는 마음과 간섭받지 않으려는 마음을 고려하는 것.

담화 관습 문법08-10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공유해 온 말하기·글쓰기의 방식.

대화의 조정 D

- **협력** — 양·질·관련성·태도 D
- **공손성** — 요령·관용·찬동·겸양·동의 D
- **체면·관습** — 참여자의 마음·공동체의 방식 D

■ 협력의 원리

격률	핵심 기준	피할 문제
양	필요한 만큼의 정보	너무 적거나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
질	사실과 근거에 맞는 정보	거짓·근거 없는 단정
관련성	지금의 주제와 관련	엉뚱한 답변
태도	분명하고 간결하며 질서 있게	모호함·중의성·두서없음

때로는 일부러 문자 그대로의 답을 하지 않아 뜻을 간접적으로 전하기도 한다. “영화 재미있었어?”에 “음악은 좋았어.”라고 답하면 다른 요소는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뜻이 암시될 수 있다.

■ 공손성의 원리

격률	표현을 조정하는 방향
요령	상대에게 주는 부담을 줄이고 이익을 늘림
관용	자신의 이익을 내세우기보다 부담을 맡음
찬동	상대에 대한 비난을 줄이고 긍정적 평가를 늘림
겸양	자기 칭찬을 줄이고 겸손하게 표현
동의	의견의 공통점을 확인하고 차이를 조심스럽게 표현

요령은 **상대의 부담**, 관용은 **자신이 맡는 부담**에 초점을 둔다.

체면 유지: “번거롭겠지만…”처럼 부탁의 부담을 인정하거나, 공감·칭찬으로 상대를 존중한다.

담화 관습: 인사말·완곡한 부탁·겸손한 대답처럼 공동체가 굳혀 온 말하기 방식이다. 공동체·관계·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맥락에 맞게 사용한다.

> ! **헷갈림 주의**
> - 간접적인 말도 맥락으로 의도가 통할 수 있으므로 바로 소통 실패라고 하지 않는다.
> - 칭찬·동의는 무조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맥락에 맞게 한다.

? 짧은 확인

문법08-Q06 회의 시작 시간을 묻자 확인 없이 임의의 시간을 사실처럼 답했다. 양·질·관련성·태도 중 특히 어긴 격률은 무엇인가?

답 _____

문법08-Q07 "무거우니 제가 들게요."처럼 자신의 부담을 늘려 상대를 배려하는 것은 요령·관용 중 어느 격률에 더 직접적으로 해당하는가?

답 _____

문법08-Q08 "담화 관습은 어느 공동체나 똑같고 상황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이 설명은 맞는가?

○ O ○ X

◎ 다시 비교하기

비교

비교	구별 기준
■ 통일성 vs ■ 응집성	다름 ■ 내용의 주제 일관성 ■ 표현의 연결성
■ 요령 vs ■ 관용	다름 ■ 상대의 부담·이익 ■ 자신의 부담·이익

다음 단원으로 ▶ 담화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려면 표현과 표기를 함께 확인한다. 다음 단원에서는 맞춤법·띄어쓰기·표준 발음을 살핀다.

문법09 어문 규범

단원 지도

핵심 질문 발음대로 적는 것과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은 어떻게 함께 적용될까?

- **글자로 적기** — 소리대로·어법에 맞게 A
  - **낱말 표기** — 소리·형태·두음 법칙 B
  - **합성어 표기** — 사이시옷 C
  - **준말·혼동 표기** — 구성·문맥 D
  - **띄어쓰기·문장 부호** — 단어·조사·보조 용언 E
- **소리 내어 읽기** — 표준 발음의 원칙·허용 F

묶음	질문	개념
A	한글 맞춤법은 소리대로만 적는 규칙일까?	표기의 기본 원리
B	된소리·구개음화·두음 법칙은 표기에 어떻게 반영될까?	소리에 관한 표기·두음 법칙과 표기·형태에 관한 표기
C	사잇소리가 나면 무조건 사이시옷을 적을까?	사이시옷
D	줄여 쓰기와 헷갈리는 형태는 어떻게 확인할까?	준말 표기·문맥으로 가르는 표기
E	띄어쓰기는 무엇을 단위로 판단할까?	단어·조사·의존 명사·보조 용언 띄어쓰기·문장 부호
F	표준 발음은 언제나 한 가지만 인정될까?	원칙·허용·비표준·모음의 표준 발음·음의 길이·받침·동화·첨가의 적용

A 한글 맞춤법은 소리대로만 적는 규칙일까?

짧은 답 **표준**어의 소리를 적되, 단어와 형태소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형태도 고려한다.

표기의 기본 원리
문법09-01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 대치동 재우쌤

1 표준어의 소리 확인 → 2 형태소의 본모양·결합 관계 확인 → 3 규정에 맞게 표기

예 [꼬치]·[꼰만] → 같은 체언 '꽃' 확인 → 꽃이·꽃만으로 적기

■ 표기의 기본 원리

관점	하는 일	예
소리대로 적기	표준어의 소리를 글자로 나타냄	나무, 바다
어법에 맞게 적기	형태소의 본모양과 결합 관계를 드러냄	꽃이[꼬치], 꽃만[꼰만]을 모두 '꽃'으로 적음

'꽃만'을 [꼰만]으로 발음한다고 '꼰만'으로 적으면 다른 말과 연결되는 형태가 가려진다.

! 헷갈림 주의

- 발음에서는 실제 소리를, 맞춤법에서는 표기 원리를 구별하여 판단한다.

? 짧은 확인

문법09-Q01 '밭이'를 [바치]로 발음해도 '밭이'로 적는 것은 소리대로 적기·어법에 맞게 적기 중 어느 원리와 관련되는가?

답 _____

B 된소리·구개음화·두음 법칙은 표기에 어떻게 반영될까?

짧은 답 같은 소리 변화라도 규정에 따라 원형을 유지하거나 달라진 형태로 적는다.

소리에 관한 표기 문법09-02	소리와 관련된 규정을 확인하여 달라진 소리를 적을지 원형을 밝힐지 판단하는 것.
두음 법칙과 표기 문법09-03	한자음이 단어 첫머리에 올 때의 제약 등을 표기에 반영하는 규칙.
형태에 관한 표기 문법09-04	체언·조사, 어간·어미 등의 형태와 결합 관계를 드러내어 적는 것.

1 소리 변화 확인 → 2 형태소·단어 경계 확인 → 3 해당 표기 규정과 예외 확인

■ 소리에 관한 표기

항목	표기 판단	예
된소리	한 단어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두 모음 사이 또는 ㄴ·ㄹ·ㅁ·ㅇ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를 된소리로 적음	어깨, 아끼다, 잔뜩

항목	표기 판단	예
ㄱ·ㅂ 받침 뒤 된소리	일반적인 된소리되기이면 된소리로 적지 않음	국수[국쑤], 갑자기[갑짜기]
같은·비슷한 음절의 겹침	ㄱ·ㅂ 받침 뒤라도 해당 규정에 따라 된소리 표기	똑똑, 쌉쌀
구개음화	ㄷ·ㅌ이 조사·접미사와 만나 ㅈ·ㅊ으로 나도 원형을 밝힘	맏이[마지], 같이[가치]
모음 발음의 차이	발음이 달라져도 정해진 글자로 적음	무늬[무니], 혜택[혜택/헤택]

된소리되기의 조건 자체는 문법02 E에서 확인한다.

본음의 유형	첫머리 표기	예(첫머리·첫머리 아닌 곳)
녀·뇨·뉴·니	여·요·유·이	여자 · 남녀
랴·려·례·료·류·리	야·여·예·요·유·이	역사 · 경력
라·래·로·뢰·루·르	나·내·노·뇌·누·느	노동 · 근로

단어 내부에서 '렬·률'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오면 '열·율'로 적는다: 나열·비율·백분율. 그 밖의 받침 뒤에서는 본음대로 적는다: 확률·법률.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나 합성어의 경계에서는 '신여성'처럼 뒷말에도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형태에 관한 표기: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들어(듣다)·도와(돕다)·파래(파랗다)'처럼 활용에서 변한 부분은 규정대로 적는다(문법04 E).

파생어도 '깊이·웃음·같이'처럼 원형을 밝히는 경우가 있다.

! 헷갈림 주의

- 의존 명사 '년'·외래어 '라디오'에는 한자어 첫머리의 두음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접사가 붙어도 '마개(막-+-애)'처럼 소리대로 적는 말이 있어 항상 원형을 유지하지는 않는다.

? 짧은 확인

문법09-Q02 "'깍두기'를 [깍뚜기]로 발음하므로 '깍뚜기'로 적어야 한다." 이 설명은 맞는가?
○ O ○ X

문법09-Q03 '비율/비률' 중 바른 표기를 고르자.

답 _____

C 사잇소리가 나면 무조건 사이시옷을 적을까?

짧은 답 **합성어 여부, 어휘의 기원, 앞말의 끝소리, 발음 조건을 함께 확인한다.**

사이시옷 문법09-05	일정한 조건을 갖춘 합성어에서 앞말의 받침으로 적는 ㅅ.

1 합성어·어휘 기원 확인 → 2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지 확인 → 3 사잇소리 조건 확인 → 4 한자어 여섯 예외 확인

사잇소리 현상이라는 소리 현상과 표기 조건은 구별한다.

확인 순서	판단 내용
1	원칙적으로 고유어끼리 또는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한 합성어인가?
2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가?
3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ㄴ·ㅁ 앞에 ㄴ이 덧나거나, 모음 앞에 ㄴㄴ이 덧나는가?
예외 확인	두 음절 한자어 가운데 정해진 여섯 단어인가?

소리 조건	표기와 대표 발음
뒷말의 된소리	나무+가지→나뭇가지**[나무까지]**
ㄴ·ㅁ 앞의 ㄴ	코+날→콧날**[콘날]**
모음 앞의 ㄴㄴ	나무+잎→나뭇잎**[나문닙]**

두 음절 한자어 예외 여섯: **곳간·셋방·숫자·찻간·툇간·횟수**.

‘초점’처럼 여섯 예외에 들지 않는 한자어는 된소리가 나도 ‘촛점’으로 적지 않는다.

‘길가**[길까]**’는 앞말에 이미 받침이 있으므로 사이시옷을 덧적지 않는다.

‘나뭇가지’에서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여 **[나묻까지]**로 하는 것도 허용된다. 소리의 분석은 문법02 K와 연결한다.

! 헷갈림 주의

- ‘곳간’·‘셋방’·‘숫자’·‘찻간’·‘툇간’·‘횟수’는 한자어끼리라도 사이시옷을 적는다.
- 사이시옷이 적혀 있지 않아도 ‘길가**[길까]**’처럼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난다.

? 짧은 확인

문법09-Q04 “‘손등**[손뜽]**’에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 직접적인 이유는 앞말 ‘손’이 모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설명은 맞는가? ○ O ○ X

문법09-Q05 ‘횟수/회수’ 중 ‘몇 번인가를 세는 수’라는 뜻에 맞는 표기를 고르자.

답 _____

D 줄여 쓰기와 헷갈리는 형태는 어떻게 확인할까?

짧은 답 원래의 구성과 **문맥**상 뜻으로 되돌려 본다.

준말 표기 문법09-06	말이 줄어든 구성과 정해진 규정에 맞추어 준 형태를 적는 것.
문맥으로 가르는 표기 문법09-07	모양·소리·뜻 등이 혼동되는 형태를 문맥의 뜻과 문법적 구성에 따라 가려 적는 것.

구성식

되- + -어 = 되어 → 돼

하- + -여 = 하여 → 해

■ 준말 표기

구성	준 형태	확인할 점
되-+-어 · 되-+-었-	돼 · 됐-	‘돼’는 ‘되어’에 대응. ‘되었다/됐다’ 둘 다 가능
하-+-여	해	‘하여/해’의 관계
보-+-아 · 주-+-어	봐 · 줘	준말은 형태가 줄었다는 말이며, 이 자료의 음운 분석에서는 반모음화(교체)
가지-+-어 · 치-+-어	가져 · 쳐	표기는 가져·쳐, 발음은 [가저]·[처]
단어 끝모음이 줄어듦	가지고→갖고	남은 자음을 앞 음절 받침으로 적음

‘-하-’ 앞 받침이 [ㄱ·ㄷ·ㅂ]으로 소리 나면 ‘하’가 통째로 줄어들 수 있다: 생각하건대→생각건대. 그 밖의 환경에서는 ㅏ가 줄고 ㅎ과 뒤 자음이 합쳐질 수 있다: 간편하게→간편케. ‘안/않-’, ‘되/돼’도 소리의 비슷함보다 구성을 확인한다.

■ 문맥으로 가르는 표기

구별	기준	예
안 · 않-	부사 ‘안’ · ‘아니하-’의 준말	안 간다 · 가지 않는다
-던 · -든	과거 회상 · 선택·무관함	어제 보던 책 · 가든지 말든지

구별	기준	예
-(으)로서 · -(으)로써	자격 · 수단·방법	대표로서 말함 · 대화로써 해결
다르다 · 틀리다	같지 않음 · 맞지 않음	취향이 다르다 · 계산이 틀리다
-오 · 요	종결 어미 · 상대 높임을 더하는 보조사	이리 오시오 · 저도요
-이 · -히	정해진 부사 표기 확인	깨끗이, 틈틈이 · 조용히, 정확히

뜻·구성·발음과 사전의 표기를 함께 확인한다.

! 헷갈림 주의

- '잘 돼.'로 끝내며, 어간 '되-'만으로 '잘 되.'라고 끝내지 않는다.
- '깨끗하다'가 있어도 부사는 '깨끗이'이며, 어근 모양만으로 '-이'·'-히'를 모두 판정하지 않는다.

? 짧은 확인

문법09-Q06 '그러면 안 (되/돼).'에 맞는 형태를 고르자.

답 _____

문법09-Q07 '읽(던지/든지) 쓰(던지/든지) 해라.'의 바른 형태를 쓰자.

답 _____

E 띄어쓰기는 무엇을 단위로 판단할까?

짧은 답 **단어별로 띄고 조사는 붙이는 원칙**에 따라 의존 명사와 보조 용언의 구성을 확인한다.

단어·조사·의존 명사 문법09-08	단어별로 띄고 조사는 앞말에 붙이며 의존 명사는 띄어 쓰는 기본 규칙.
보조 용언 띄어쓰기 문법09-09	보조 용언을 앞말과 띄는 것이 원칙이며, 정해진 구성에서 붙여 쓰기도 허용하는 규칙.
문장 부호 문법09-10	문장 구조와 글쓴이의 의도를 드러내도록 쓰는 부호.

1 단어의 경계 확인 → 2 조사·의존 명사 구별 → 3 보조 용언 여부 확인 → 4 붙임 허용 조건·예외 확인

■ 단어·조사·의존 명사

대상	원칙	예
단어	각각 띄어 씀	아이가 책을 읽는다
조사	앞말에 붙임. 여러 조사가 이어져도 붙임	학교에서만, 나에게도
의존 명사	앞말과 띄어 씀	할 수 있다, 아는 것, 떠난 지 오래다
단위 명사	앞말과 띄어 씀	두 개, 한 벌
순서·숫자와 단위	정해진 경우 붙여 쓰기도 허용	3 학년/3학년, 10 원/10원
수 표기	만 단위로 띄어 씀	십이억 삼천만 사천
열거·연결하는 말	띄어 씀	사과 및 배, 사과 등

붙이는 조사	띄는 의존 명사·구성
너뿐이다	웃을 뿐이다
계획대로	들은 대로
나만큼	노력한 만큼
하루만 쉬자	사흘 만에 만났다
—	간 지 오래다(기간) · 어디로 갈지 모른다(어미)

■ 보조 용언 띄어쓰기

구분	예	판단
기본 원칙	읽어 보다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띄어 씀
붙임 허용	읽어보다, 아는척하다	‘-아/-어+보조 용언’, ‘관형사형+의존 명사+하다/싶다’ 등 허용되는 구성
붙임 불가	먹고 싶다	‘-고’ 뒤의 보조 용언은 붙여 쓰기 허용 대상이 아님
조사 개입	읽어도 보고, 아는 척도 한다	중간에 조사가 끼면 붙이지 않음
긴 합성·파생 본용언	덤벼들어 보아라	본용언이 합성·파생 용언이고 활용형이 세 음절 이상이면 붙임 제한

합성·파생 용언이라도 활용형이 두 음절인 ‘나가 버리다/나가버리다’처럼 붙임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문장 부호: 쉼표 등은 문장 성분의 관계가 잘못 읽히지 않도록 필요한 위치에 쓴다. ‘민수야, 책을 읽자.’에서는 부름말 뒤의 쉼표가 경계를 드러낸다.

! 헷갈림 주의

- 보조 용언은 허용되는 구성만 붙이며, 합성·파생 본용언은 활용형의 음절 수도 본다.

? 짧은 확인

문법09-Q08 ‘먹을만큼/먹을 만큼 가져가자.’ 중 바르게 띄어 쓴 것을 고르자.

답 _____

문법09-Q09 “‘먹고 싶다’는 ‘먹고싶다’로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이 설명은 맞는가?

○ O ○ X

문법09-Q10 ‘그를 만난지/만난 지 사흘이 지났다.’ 중 바른 띄어쓰기를 고르자.

답 _____

F 표준 발음은 언제나 한 가지만 인정될까?

짧은 답 원칙만 인정되는 경우와 다른 발음도 허용되는 경우를 구별한다.

원칙·허용·비표준 문법09-11	원칙 발음과 허용 발음은 모두 표준이며, 인정 범위 밖의 발음은 비표준이라는 구별.
모음의 표준 발음 문법09-12	단모음·이중 모음과 특정 음절의 발음에 적용되는 표준 발음 규정.
음의 길이 문법09-13	길고 짧은 소리의 구별로, 긴소리는 보통 단어 첫음절에 나타남.
받침·동화·첨가의 적용 문법09-14	뒤의 소리와 형태소 관계를 확인하여 받침·동화·첨가 규칙을 적용하는 것.

1 규정 적용 조건 확인 → 2 원칙 발음 확인 → 3 허용 발음의 범위 확인

원칙·허용·비표준: 원칙 발음과 허용 발음은 모두 표준 발음이다. 허용 발음을 틀린 발음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반대로 실제 자주 들린다고 모두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 모음의 표준 발음

대상	규정의 핵심	예·주의
ㅚ·ㅟ	단모음이 원칙, 이중 모음도 허용	음운 체계의 분류와 실제 허용 발음을 함께 확인

대상	규정의 핵심	예·주의
활용형의 져·쪄·쳐	[저·쩌·처]로 발음	가져[가저], 쪄[쩌], 다쳐[다처]
예·례 이외의 ㅖ	[ㅔ] 발음도 허용	시계[시계/시게]
자음이 첫소리인 음절의 ㅢ	[ㅣ]로 발음	무늬[무니], 희망[히망]
첫음절 이외의 의	[ㅢ]가 원칙, [ㅣ] 허용	주의[주의/주이]
조사 의	[ㅢ]가 원칙, [ㅔ] 허용	우리의[우리의/우리에]
첫음절의 의	위 허용 조건과 구별	의자[의자]: [이자]로 일반화하지 않음

‘무늬’처럼 표기상 초성에 자음이 있는 경우와 ‘협의’가 연음되어 [혀븨]로 나는 경우를 구별한다. ‘협의’는 [혀븨/혀비]가 가능하다.

음의 길이: 표준 발음에서는 긴소리와 짧은소리를 구별하며 긴소리는 보통 단어의 첫음절에 나타난다. 합성어 등의 예외와 활용에 따른 길이 변화가 있으므로 사전의 [:] 표시를 확인한다.

길이로 뜻을 구별하는 예는 문법01 B에 있다.

받침·동화·첨가의 적용: 같은 받침도 뒤의 소리·형태소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확인 순서	비교 예	돌아갈 곳
받침 그대로 이어지는가?	옷이[오시] · 옷 안[오단]	문법02 B
겹받침 중 무엇이 남는가?	읽다[익따] · 읽고[일꼬]	문법02 G
이웃 자음에 동화되는가?	국물[궁물] · 신라[실라]	문법02 C
형태소 경계에서 구개음화되는가?	굳이[구지] · 견디다[견디다]	문법02 D
된소리의 조건이 있는가?	감고[감꼬] · 밤도[밤도]	문법02 E
첨가의 대상인가?	솜이불[솜니불] · 송별연[송벼련]	문법02 J

변동 이름을 설명하는 일과 인정되는 발음의 범위를 판정하는 일은 연결되지만 같은 질문은 아니다.

! 헷갈림 주의

- ‘협의[혀븨/혀비]’처럼 연음된 자음과 표기상 초성 자음을 구별한다.
- 발음이 비슷한 말에 같은 허용 규정을 적용하기 전에 조건·예외를 확인한다.

? 짧은 확인

문법09-Q11 ‘주의’를 [주이]로 발음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 O ○ X

문법09-Q12 “‘하늬바람’의 표준 발음은 [하늬바람/하니바람] 두 가지이다.” 이 설명은 맞는가? ○ O ○ X

문법09-Q13 조사 '의'를 [에]로 발음해도 된다는 이유로 '친구의 책'을 '친구에 책'으로 적어도 되는가? ○ O ○ X

문법09-Q14 "원칙 발음이 따로 있으면 허용 발음은 비표준이다." 이 설명은 맞는가? ○ O ○ X

◎ 다시 비교하기

비교

비교	구별 기준
■ 사잇소리 현상 vs ■ 사이시옷	다름 ■ 소리 현상 ■ ㅅ의 표기
■ 원칙 발음 vs ■ 허용 발음	다름 ■ 기본으로 제시 ■ 함께 인정
■ 조사 뿐 vs ■ 의존 명사 뿐	다름 ■ 앞말에 붙임 ■ 관형어 뒤 띄어 씀

다음 단원으로 ▶ 현대의 표기·발음 규칙을 옛 국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음 단원에서는 시대와 자료를 확인하며 같은 항목을 비교한다.

문법10 국어의 변화와 문자

단원 지도

핵심 질문 옛 국어를 오늘의 국어와 비교할 때, 소리·글자·문법·뜻을 어떻게 나누어 볼까?

- **시대와 자료** — 고대·중세·근대·현대 A
- **문자 생활** B·C
  - **훈민정음 이전** — 한자 차용 B
  - **훈민정음** — 창제·제자·운용 C
- **중세 국어의 체계** D·E
  - **소리·표기** — 음운·모음 조화·방점·이어 적기 D
  - **문법** — 조사·체언 결합·어미 E
- **시대에 따른 변화** — 음운·표기·문법·어휘 F

묶음	질문	개념
A	옛말은 모두 같은 시기의 말일까?	시대별 국어
B	우리 글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우리말을 적었을까?	차자 표기
C	훈민정음은 어떤 원리로 만들고 사용했을까?	창제의 취지·초성자 제자 원리·중성자 제자 원리·글자의 운용
D	중세 국어의 소리와 표기는 어떤 점이 다를까?	음운 체계의 특징·모음 조화·방점과 성조·표기의 특징
E	중세 국어의 조사·어미는 어떤 조건으로 골랐을까?	조사의 형태와 기능·특수한 체언 결합·의문문·높임·시간·명사형
F	중세 국어가 근대·현대로 오면서 무엇이 달라졌을까?	음운과 표기의 변화 · 문법의 변화·어휘의 변화

A 옛말은 모두 같은 시기의 말일까?

짧은 답 옛말도 **고대·중세·근대** 등 시기가 다르므로 자료의 시대를 구별해야 한다.

시대별 국어 문법10-01	국어의 음운·문법·어휘·표기를 고대·중세·근대·현대라는 큰 흐름에서 살피는 것.

1 자료의 시대 확인 → 2 글자·소리·문법·뜻 구분 → 3 같은 항목으로 현대와 비교

시대별 국어: 국어는 음운·문법·어휘·표기에서 계속 달라졌다. 고대·중세·근대·현대라는 큰 흐름으로 살피되, 시대 경계가 모든 현상의 변화 시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큰 시기	자료를 읽는 중심 관점
고대 국어	한자를 활용한 기록을 통해 국어의 모습을 살핌. 소리의 재구성에는 추정이 따름
중세 국어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15~16세기 자료에서 소리·문법·표기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음
근대 국어	대체로 17~19세기의 여러 변화가 현대 국어로 이어짐
현대 국어	오늘날의 언어 체계와 규범을 중심으로 비교

! 헷갈림 주의

- 훈민정음 창제는 국어의 탄생이 아니라 국어를 적는 수단의 변화이다.
- 시대 경계는 나누는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제시된 기준을 확인한다.

? 짧은 확인

문법10-Q01 "훈민정음이 없던 시기에는 우리말 자체도 없었다." 이 설명은 맞는가? ○ O ○ X

B 우리 글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우리말을 적었을까?

짧은 답 한자의 뜻과 소리를 빌려 우리말을 적었다.

차자 표기 문법10-02	한자의 소리나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는 방법.

- 한자를 이용한 우리말 기록 B
  - 차용 원리 — 음차·훈차 B
  - 기록 방식 — 서기체·이두·구결·향찰 B

한자의 음을 빌리는 **음차**, 뜻을 빌리는 **훈차**를 활용했다.

방식	특징	구별할 점
서기체	한자를 우리말 어순에 가깝게 배열	조사·어미의 표시가 충분하지 않음

방식	특징	구별할 점
이두	한자의 음·뜻을 이용해 우리말 어순과 조사·어미 등을 나타냄	행정·실무 문서 등에서 활용
구결	한문을 읽기 쉽도록 토를 덧붙임	바탕의 한문과 덧붙인 우리말 요소를 구별
향찰	우리말 문장 전체를 한자로 적음	향가 표기에 활용. 실질적 뜻과 문법적 요소를 음·뜻 차용으로 나타냄

'실질 부분은 주로 뜻, 문법 부분은 주로 소리'라는 경향은 향찰을 이해하는 단서이다.

! 헷갈림 주의

- 한자로 적혀 있어도 우리말을 기록한 차자 표기일 수 있다.
- 한자의 음·뜻을 어떻게 빌렸는지는 제시된 읽기와 문맥으로 확인한다.

? 짧은 확인

문법10-Q02 한문 원문에 우리말 조사·어미에 해당하는 토를 덧붙여 읽는 데 도움을 주는 방식은 이두·구결·향찰 중 무엇인가?

답 _____

C 훈민정음은 어떤 원리로 만들고 사용했을까?

짧은 답 기본 글자를 본뜨고, 관련 글자를 체계적으로 늘린 뒤 **음절** 단위로 모아 썼다.

창제의 취지 문법10-03	우리말에 맞는 문자를 만들어 백성이 쉽게 익혀 편리하게 쓰게 하려는 취지.
초성자 제자 원리 문법10-04	발음 기관을 본떠 기본자를 만들고, 가획자·이체자 등을 마련한 원리.
중성자 제자 원리 문법10-05	하늘·땅·사람을 본떠 기본자를 만들고 이를 합성하여 중성자를 늘린 원리.
글자의 운용 문법10-06	만들어진 글자를 나란히 쓰거나 이어 쓰고 음절 단위로 배치하는 등의 사용 방식.

훈민정음 C

- **창제 취지** — 자주·애민·창조·실용 C
- **제자 원리** — 초성자·중성자 C
- **운용** — 종성부용초성·병서·연서·부서·성음·방점 C

창제의 취지: 세종은 1443년에 새 문자를 창제했다. 1446년에는 창제 목적과 원리를 설명한 책 『훈민정음』이 나왔다.

'훈민정음'은 새 문자의 이름이면서 책의 이름이기도 하다.

창제 정신	취지와 연결
자주	우리말의 특징에 맞는 문자 필요
애민	문자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백성을 배려
창조	새로운 글자 마련
실용	쉽게 익혀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

■ 초성자 제자 원리

기본자	본뜬 발음 기관의 모습	가획의 계열
ㄱ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ㄱ→ㅋ
ㄴ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ㄴ→ㄷ→ㅌ
ㅁ	입의 모양	ㅁ→ㅂ→ㅍ
ㅅ	이의 모양	ㅅ→ㅈ→ㅊ
ㅇ	목구멍의 모양	ㅇ→ㆆ→ㅎ

기본자를 만든 원리는 **상형**, 소리의 관련성에 따라 획을 더하는 원리는 **가획**이다. **ㆁ·ㄹ·ㅿ은 이체자**로 따로 분류한다.

초성 기본자·가획자·이체자를 합한 창제 당시 초성자는 17자이다.

■ 중성자 제자 원리

단계	글자	원리
기본자	·, ㅡ, ㅣ	하늘·땅·사람을 본뜸
초출자	ㅗ, ㅏ, ㅜ, ㅓ	기본자를 한 차례 결합
재출자	ㅛ, ㅑ, ㅠ, ㅕ	초출자에 다시 ·를 결합

중성자는 **상형과 합성**의 원리로 11자를 마련했다. 초성자 17자와 합하여 28자이다.

■ 글자의 운용

방식	뜻
종성부용초성	종성자를 따로 새로 만들지 않고 초성자를 다시 사용
병서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씀. 같은 글자는 각자 병서, 다른 글자는 합용 병서
연서	글자를 위아래로 이어 씀. 순음 아래에 ㅇ을 붙여 순경음을 나타냄
부서·성음	중성을 초성의 오른쪽이나 아래에 붙이고, 초·중·종성을 음절 단위로 모아 씀
방점	글자 왼쪽의 점으로 성조 표시

! 헷갈림 주의

- 획이 더 있어 보여도 ㆁ·ㄹ·ㅿ은 이체자이며 모두 가획자는 아니다.
- 창제 당시 28자·현대 기본 자모 24자·표준 발음법의 음운 수는 대상·시대가 다르다.

? 짧은 확인

문법10-Q03 ㄴ을 바탕으로 ㄷ·ㅌ을 만든 원리는 상형·가획·연서 중 무엇인가?

답 _____

문법10-Q04 "초성자 17자와 중성자 11자를 합한 28자는 현대 국어의 음운 수와 같은 기준으로 센 것이다." 이 설명은 맞는가? ○ O ○ X

문법10-Q05 서로 다른 자음을 옆으로 나란히 쓰는 것은 각자 병서·합용 병서·연서 중 무엇인가?

답 _____

D 중세 국어의 소리와 표기는 어떤 점이 다를까?

짧은 답 지금 없는 글자·**음운**, 모음 조화, 성조, 이어 적기 등을 따로 살핀다.

음운 체계의 특징 문법10-07	중세 국어의 옛 자음·모음·어두 자음군·성조 등 현대와 다른 소리 체계의 특징.
모음 조화 문법10-08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결합하는 경향.
방점과 성조 문법10-09	성조는 소리의 높낮이로 뜻을 구별하는 요소이고, 방점은 이를 글자 왼쪽의 점으로 표시한 것.

표기의 특징 문법10-10	이어 적기·8종성법·띄어쓰기 등 중세 국어를 글자로 나타내는 방식의 특징.

중세 국어의 관찰 항목 D

- **소리** — 자음·모음·어두 자음군·성조 D
- **결합** — 모음 조화 D
- **표기** — 방점·이어 적기·8종성법 등 D

■ 음운 체계의 특징

특징	확인할 내용
옛 글자	ㆍ(아래아), ㅿ(반치음), ㆁ(옛이응), ㆆ(여린히읗), ㅸ(순경음 비읍) 등이 자료에 나타남
어두 자음군	단어 첫머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놓이는 표기가 나타남
모음	ㆍ·ㅡ·ㅣ·ㅗ·ㅏ·ㅜ·ㅓ의 단모음 체계를 중심으로 설명. 당시 ㅐ·ㅔ는 각각 ㅏ+j·ㅓ+j인 이중 모음으로 현대의 단모음과 구별
성조	음의 높낮이가 뜻 구별에 관여. 방점으로 표시

ㆆ은 한자음 표기나 사잇소리 표기 등에 쓰였다.

ㆁ은 [ŋ] 소리를 나타냈다. 글자 형태는 ㅇ에 합쳐졌지만 소리는 현대의 받침 ㅇ에 남아 있다.

갈래	중심 모음	살필 환경
양성	ㆍ, ㅏ, ㅗ	체언+조사, 어간+어미 등
음성	ㅡ, ㅓ, ㅜ	체언+조사, 어간+어미 등
중성 모음	ㅣ	양성·음성의 짝과 구별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보다 모음 조화가 뚜렷했다.

■ 방점과 성조

방점	성조	높낮이
없음	평성	낮음
한 점	거성	높음
두 점	상성	낮았다가 높아짐

■ 표기의 특징

표기	방식·예
이어 적기(연철)	'말+이'를 '마리'처럼 앞말 받침을 뒤 음절 첫소리로 이어 적음
8종성법	종성에 ㄱ·ㄴ·ㄷ·ㄹ·ㅁ·ㅂ·ㅅ·ㆁ의 여덟 자음을 사용하는 체계. 현대의 일곱 받침 발음과 구별
띄어쓰기 없음	현대의 단어별 띄어쓰기와 달라 형태소 경계를 따로 찾아야 함
동국정운식 표기	한자음을 중국 원음에 가깝게 나타내려 한 표기. 당시의 일상 발음과 곧바로 같다고 보지 않음

! 헷갈림 주의

- 'ㆆ'은 문헌에서의 기능을 확인하며, 글자와 독립된 소리를 일대일로 단정하지 않는다.
- 중세의 모음 조화도 모든 문헌·결합에서 예외 없이 지켜진 것은 아니다.
- '종성부용초성'은 글자 재사용 원리, '8종성법'은 종성에 쓰는 글자의 범위이다.

? 짧은 확인

문법10-Q06 방점 두 개는 평성·거성·상성 중 무엇을 나타내는가?

답 _____

문법10-Q07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에 따라 조사 형태를 달리 선택했다면 어떤 현상과 관련되는가?

답 _____

문법10-Q08 '밥+이'를 '바비'로 적는 방식을 이어 적기·끊어 적기 중에서 고르자.

답 _____

E 중세 국어의 조사·어미는 어떤 조건으로 골랐을까?

짧은 답 앞말의 끝소리·모음과 가리키는 대상의 성격을 함께 본다.

조사의 형태와 기능 문법10-11	주격·목적격·관형격 등 조사 기능과 끝소리·모음 조화·대상에 따른 형태 선택.
특수한 체언 결합 문법10-12	조사와 결합할 때 ㆆ이 나타나거나 ㄱ이 덧생기는 등 현대와 다른 체언의 결합 방식.
의문문·높임·시간·명사형 문법10-13	중세 국어에서 의문·높임·시간·명사형을 나타내는 형태와 선택 조건.

1 체언·어간과 조사·어미 분리 → 2 끝소리·모음 및 높임 대상 확인 → 3 형태와 문법 기능 연결

■ 조사의 형태와 기능

조사	선택 조건과 형태
주격	자음 뒤 '이'; ㅣ·반모음 j 이외의 모음 뒤 'ㅣ'; ㅣ·j 뒤는 형태가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영형태(∅)
목적격	받침 유무와 모음 조화에 따라 '올/을/롤/를' 등이 쓰임
관형격	높임 대상인 유정 명사나 무정 명사 뒤 'ㅅ'; 높이지 않는 유정 명사 뒤에는 모음 조화에 따라 'ᄋᆡ/의'
부사격	장소·방향·도구·비교 등. '애/에/예' 등이 환경에 따라 쓰임
호격	높임 대상에 '하'가 쓰이는 등 현대와 차이

유정 명사는 사람·동물처럼 살아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명사, 무정 명사는 그렇지 않은 대상을 가리키는 명사이다.

'뿌리'라는 뜻의 체언 '불휘'는 당시 반모음 j로 끝났으므로, 주격 조사가 영형태(∅)로 나타났다.

■ 특수한 체언 결합

유형	특징	대표 결합
ㅎ 종성 체언	조사와 결합할 때 ㅎ이 나타나거나 뒤 자음과 합쳐짐	'나라ㅎ+이'의 '나라히', '나라ㅎ+도'의 '나라토'와 같은 방식
ㄱ 덧생김이 있는 체언	모음으로 시작하는 특정 조사와 결합할 때 체언의 형태가 바뀌어 ㄱ이 나타남	'나모'(나무)의 주격형: '남기' / '나모'+'와'→'나모와'

옛말의 표면형을 현대 맞춤법의 오기로 고치지 말고 체언과 조사로 나누어 본다.

■ 의문문·높임·시간·명사형

항목	중세 국어의 중심 특징	현대와의 비교
판정 의문	'-가/-녀' 등 ㅏ 계열	예/아니요로 답할 물음
설명 의문	'-고/-뇨' 등 ㅗ 계열	의문사를 포함한 설명 요구
2인칭 주어 의문	'-ㄴ다'가 의문형으로 쓰이기도 함	현대 평서형 '-ㄴ다'와 기능을 혼동하지 않음
주체 높임	-(으)시-·-(으)샤-	어미 환경에 따른 차이
객체 높임	-숩-·-줍-·-숩- 등과 그 변이형	현대에는 이런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체계가 사라짐
상대 높임	종결 표현과 '-이-' 등 관련 요소	현대의 높임 등급·형태와 그대로 같지 않음
시간	-더-의 회상, 동사의 -ᄂᆞ- 등	현대 과거 '-았/었-'이 정착하기 전의 표현을 문맥과 함께 봄
명사형	-옴/-움이 대표적	현대 -(으)ㅁ·-기와 비교

객체 높임 요소는 어간 끝소리와 뒤 어미의 첫소리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ㄱ·ㅂ·ㅅ·ㅎ 뒤의 -숩-, ㄷ·ㅈ·ㅊ 뒤의 -줍-, 모음·ㄴ·ㅁ·ㄹ 등 뒤의 -숩-을 중심으로 보고, 뒤가 모음이면 마지막 ㅂ이 ㅸ으로 나타나는 계열도 있다.

형태가 여럿이어도 높이는 대상은 객체인지 먼저 확인한다.

! 헷갈림 주의

- 중세 관형격 조사 'ㅅ'과 현대 합성어의 사이시옷은 기능·규칙이 다르다.
- 주격 조사의 모양이 보이지 않아도 주어로 기능할 수 있다.

? 짧은 확인

문법10-Q09 중세 국어에서 ㅣ로 끝난 체언 뒤에 주격 조사의 모양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어가 아니라고 판정해도 되는가? ○ O ○ X

문법10-Q10 "중세 관형격 조사 'ㅅ'은 현대의 사이시옷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여 적는 것이다." 이 설명은 맞는가? ○ O ○ X

문법10-Q11 중세 국어에서 '-고/-뇨' 계열 의문형은 판정 의문·설명 의문 중 어디에 쓰였는가?

답 _____

F 중세 국어가 근대·현대로 오면서 무엇이 달라졌을까?

짧은 답 소리의 소실·합류, 문법 형태의 변화, 표기 **방식**과 어휘 의미의 변화를 구별한다.

음운과 표기의 변화 문법10-14	시대가 흐르며 소리가 소실·합류하거나 글자를 적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
문법의 변화 문법10-15	조사·어미 등의 형태와 기능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
어휘의 변화 문법10-16	단어의 형태·뜻·사용 여부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

1 옛 형태·뜻 확인 → 2 현대의 대응 형태·뜻 확인 → 3 음운·표기·문법·어휘 변화로 구분

■ 음운과 표기의 변화

변화	흐름	주의
·의 소실	먼저 비첫음절에서 주로 ㅡ로, 뒤에 첫음절에서 주로 ㅏ로 합류	대표 경향이며 단어별 다른 변화도 있음

변화	흐름	주의
일부 자음·글자 변화	ㅿ·ㆁ 등 소리가 사라지거나 다른 소리로 바뀌고, ㆆ 표기는 ㅇ으로 합쳐짐	글자 소실과 모든 소리의 소실을 같게 보지 않음
단모음화	이중 모음이던 ㅐ·ㅔ가 단모음으로 바뀜	현대 발음 체계와 시대를 구별
구개음화	‘디→지, 티→치’ 같은 변화가 단어 내부에서도 일어남	현대의 형태소 경계 조건과 차이
원순 모음화	입술소리 뒤의 ㅡ가 ㅜ로 바뀌는 변화	믈→물
어두 자음군	된소리로 이어지는 등 체계가 달라짐	단어별 변화 과정을 확인
성조·방점	성조 체계가 달라지고 방점 표기가 사라짐	일부 지역의 높낮이 구별은 남아 있음

표기는 **이어 적기**, 형태를 드러내는 **끊어 적기(분철)**, 두 방식이 겹치는 **거듭 적기(중철)**가 함께 나타나기도 했다. ‘말+이’를 비교하면 이어 적기 ‘마리’, 끊어 적기 ‘말이’, 거듭 적기 ‘말리’와 같은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비교에서 ‘마리’와 ‘말이’는 같은 **[마리]** 발음을 서로 다르게 적은 것이다. 이어 적기·끊어 적기의 차이만으로 실제 발음이 달라졌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근대 자료에는 종성 ㄷ 대신 ㅅ을 쓰는 **7종성법**, 거센소리를 두 글자로 나누어 적는 **재음소화**도 나타난다.

문법의 변화: 근대로 오면서 주격 조사 ‘가’가 나타나고, 명사형은 -(으)ㅁ과 -기의 쓰임이 발달하며, 과거 표현 -았/었-이 정착한다. 중세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사라지고 일부 형태는 상대 높임 표현으로 이어진다. 현대의 ‘-습니다’를 중세와 같은 객체 높임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옛 자료의 뜻	현대와 비교	변화 관점
‘어리다’가 어리석다는 뜻	오늘날 주로 나이가 적다는 뜻	의미 이동
‘얼굴’이 몸 전체를 가리킴	오늘날 안면	의미 축소
‘다리’가 신체 부분을 가리킴	가구 등 물건을 받치는 부분까지 가리킴	의미 확대
‘어엿브다’가 가엾다는 뜻	현대의 ‘예쁘다’와 형태·뜻을 비교	의미 이동(형태도 ‘예쁘다’로 바뀜)

한자어가 고유어를 대신하거나 외래어가 들어오는 변화도 있었다. **옛말은 당시 문맥의 뜻, 당시 문법의 기능, 현대어 풀이를 나란히 보아야 한다.**

! 헷갈림 주의

- ‘말리’는 거듭 적기의 설명 예이며 현대의 바른 표기는 ‘말이’이다.
- 같은 시기 자료에서도 표기 방식이 함께 나타나므로 시대마다 하나로 고정하지 않는다.

? 짧은 확인

문법10-Q12 옛말 ‘플’이 현대의 ‘풀’로 바뀌었다. 입술소리 뒤에서 일어난 이 모음 변화의 이름을 쓰자.

답 _____

문법10-Q13 “이어 적기 ‘마리’와 끊어 적기 ‘말이’의 차이는 반드시 실제 발음의 차이를 뜻한다.” 이 설명은 맞는가? ○ O ○ X

문법10-Q14 “옛말 ‘어리다’를 현대어 ‘나이가 적다’로만 풀이하면 문맥의 뜻을 놓칠 수 있다.” 이 설명은 맞는가? ○ O ○ X

◎ 다시 비교하기

비교

비교	구별 기준
■ 초성자 17자 vs ■ 현대 자음 19개	다름 ■ 창제 당시 글자 수 ■ 현대 음운 수
■ 종성부용초성 vs ■ 8종성법	다름 ■ 초성 글자 재사용 ■ 사용할 받침 글자의 범위
■ 이어 적기 vs ■ 끊어 적기	다름 ■ 받침을 뒤 음절에 적음 ■ 본모양을 드러내어 적음

전체 연결 ▶ 문자·소리·형태·문장·담화를 서로 다른 분석 대상으로 구별하고, 규범과 역사의 관점으로 다시 연결한다.

말미 비교 묶음

소리·글자·변동

비교

비교 대상	구별 기준	연결 개념
■ 음운 vs ■ 음성	다름 ■ 뜻을 구별하는 단위 ■ 실제의 구체적 소리	문법01-01·02
■ 문자 vs ■ 음운 vs ■ 음절	다름 ■ 적힌 기호 ■ 소리 단위 ■ 한 번에 발음하는 단위	문법01-06
■ 교체 vs ■ 첨가	다름 ■ 다른 음운으로 바뀜 ■ 없던 음운이 생김	문법02-02·05
■ 탈락 vs ■ 축약	다름 ■ 기존 소리 하나가 남음 ■ 새 소리 하나가 됨	문법02-03·04
■ 연음 vs ■ 음운 변동	다름 ■ 그대로 이어짐 ■ 종류나 개수가 달라짐	문법02-01·07
■ 반모음화 vs ■ 반모음 첨가	다름 ■ 기존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뀜 ■ 두 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더해짐	문법02-12·21

단어의 단위·형성·활용

비교

비교 대상	구별 기준	연결 개념
■ 형태소 vs ■ 단어 vs ■ 어절	다름 ■ 최소 의미 ■ 단어의 자격 ■ 띄어쓰기와 관련된 마디	문법03-01~03
■ 어근 vs ■ 어간	다름 ■ 단어 형성의 중심 ■ 활용에서 어미 앞 부분	문법03-06·08
■ 접사 vs ■ 어미	다름 ■ 새 단어 형성 ■ 문법적 뜻을 나타내는 활용	문법03-07·09
■ 명사 파생 접미사 vs ■ 명사형 어미	다름 ■ 새 명사 ■ 용언의 성질 유지	문법03-17
■ 규칙 활용 vs ■ 불규칙 활용	다름 ■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 가능 ■ 설명되지 않는 변화	문법04-10·11

품사·성분·문장 구조

비교

비교 대상	구별 기준	연결 개념
■ 품사 vs ■ 문장 성분	다름 ■ 단어의 종류 ■ 문장 안의 역할	문법04-13
■ 관형사 vs ■ 관형어	다름 ■ 품사 ■ 문장 성분	문법04-12·13
■ 부사 vs ■ 부사어	다름 ■ 품사 ■ 문장 성분	문법06-06
■ 구 vs ■ 절	다름 ■ 묶음 자체의 주어·서술어 관계 없음 ■ 있음	문법06-01·02
■ 이어진문장 vs ■ 안은문장	다름 ■ 절의 연결 ■ 절의 성분 기능	문법06-10·11

'관형사이면서 관형어'는 가능하지만 모든 관형어가 관형사는 아니다. '맑은 하늘'의 '맑은'은 형용사의 활용형이면서 관형어이다.

표현·맥락

비교

비교 대상	구별 기준	연결 개념
■ 피동 vs ■ 사동	다름 ■ 주어가 동작을 받음 ■ 남에게 하게 함	문법07-09·12·14
■ 주체 높임 vs ■ 객체 높임 vs ■ 상대 높임	다름 ■ 서술의 주체 ■ 목적어·부사어의 대상 ■ 듣는 이	문법07-03
■ 시제 vs ■ 동작상	다름 ■ 시간의 선후 ■ 진행·완료 등의 모습	문법07-06·08
■ 직접 인용 vs ■ 간접 인용	다름 ■ 원래 말의 형식 ■ 전달자 관점의 내용	문법07-15
■ 통일성 vs ■ 응집성	다름 ■ 내용의 일관성 ■ 표현의 연결성	문법08-05·06

의미·규범·변화

비교

비교 대상	구별 기준	연결 개념
■ 다의어 vs ■ 동음이의어	다름 ■ 관련되는 한 단어의 뜻들 ■ 별개 단어의 뜻들	문법05-08·09
■ 상하 관계 vs ■ 부분·전체 관계	다름 ■ 한 종류 ■ 구성 부분	문법05-06·07
■ 조사 vs ■ 의존 명사	다름 ■ 앞말에 붙여 씀 ■ 관형어 뒤 띄어 씀	문법04-03·06, 문법09-08
■ 사잇소리 현상 vs ■ 사이시옷	다름 ■ 소리 현상 ■ ㅅ 표기	문법02-22, 문법09-05
■ 맞춤법 vs ■ 표준 발음법	다름 ■ 적는 형태 ■ 인정되는 발음	문법09-01·11
■ 글자의 변화 vs ■ 소리의 변화	다름 ■ 적는 기호·방식의 변화 ■ 음운 체계·발음의 변화	문법10-14

© 대치동 재우쌤

정답과 해설

문법01 · 음운의 체계

문법01-Q01 문제 4쪽

정답: (가) 음성, (나) 음운. 사람마다 실제로 낸 구체적인 소리는 음성이다. 그 소리들을 뜻을 구별하는 같은 소리 ㄹ로 인식할 때의 단위는 음운이다.

문법01-Q02 문제 4쪽

정답: ①, ㄷ과 ㅌ. '달'과 '탈'은 ㅏ·ㄹ이 같고 첫소리만 ㄷ·ㅌ으로 다르며, 뜻도 다르다. ② '달'과 '봄'은 첫소리·모음·끝소리가 모두 달라 최소 대립쌍이 아니다.

문법01-Q03 문제 5쪽

정답: (가) 길이, (나) 억양. (가)의 두 '말'은 자음·모음이 같고 [말]과 [말:]처럼 소리의 길이만 다르다. 표준 발음에서 사람이 하는 '말'은 길게 발음한다. (나)는 제시된 상황에서 말끝을 내리는지 올리는지에 따라 알리는 말과 묻는 말이 구별되므로 억양의 차이다.

문법01-Q04 문제 5쪽

정답: ㄷ은 분절 음운, 길이는 비분절 음운. ㄷ은 말소리에서 하나의 자음으로 나눌 수 있다. 길이는 자음·모음과 별개의 소리 조각으로 떼어 낼 수 없고, 자음·모음에 얹혀 나타난다.

문법01-Q05 문제 6쪽

정답: 6개(ㄱ·ㅏ·ㅇ·ㅏ·ㅈ·ㅣ). 첫째 음절 '강'의 받침 ㅇ은 자음 소리가 난다. 둘째 음절 '아'의 초성 자리에 적힌 ㅇ은 소리가 없다. 적힌 자음·모음 글자 7개 중 소리가 없는 ㅇ 하나를 제외한다.

문법01-Q06 문제 6쪽

정답: 2음절, 4개. '마/루'로 두 번에 나누어 발음하므로 2음절이다. 자음·단모음은 ㅁ·ㅏ·ㄹ·ㅜ의 4개다. 음절 수와 구성 소리의 개수는 따로 센다.

문법01-Q07 문제 9쪽

정답: ③. ㄷ과 ㄴ은 모두 잇몸소리여서 조음 위치가 같다. ㄷ은 파열음, ㄴ은 비음이어서 조음 방법이 다르다. ①은 방법이 같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②는 위치가 다르고 방법이 같다고 한 부분이 모두 틀렸다.

문법01-Q08 문제 9쪽

정답: ㄴ. ㄴ은 잇몸소리이면서 비음이다. ㄷ은 잇몸소리이지만 파열음이므로 '코로 공기를 내보낸다'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 ㅁ은 비음이지만 입술소리여서 위치 조건에 맞지 않는다.

문법01-Q09 문제 9쪽

정답: ㄱ은 예사소리, ㅋ은 거센소리. 두 자음은 모두 여린입천장소리·파열음이다. ㄲ이 같은 짝의 된소리다.

문법01-Q10 문제 9쪽

정답: X. ㄲ은 하나의 자음이다. '까'의 자음·단모음은 ㄲ·ㅏ의 2개이며, ㄱ·ㄱ·ㅏ의 3개가 아니다.

문법01-Q11 문제 10쪽

정답: ㅜ. ㅜ는 후설·원순·고모음으로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ㅗ는 중모음이어서 혀의 높이 조건에, ㅡ는 평순 모음이어서 입술 모양 조건에 맞지 않는다.

문법01-Q12 문제 10쪽

정답: 혀의 높이. ㅗ와 ㅜ는 모두 후설·원순 모음이다. ㅗ는 중모음, ㅜ는 고모음이므로 높이만 다르다.

문법01-Q13 문제 11쪽

정답: X. 반모음은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지만 혼자서 음절을 이루지 못한다. 단모음과 결합해 이중 모음을 이룬다. 앞의 성질이 같다고 뒤의 성질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문법01-Q14 문제 12쪽

정답: ③. '요'는 한 번에 발음되는 한 음절이고, '이/오'는 두 음절이다. ①은 ㅚ·ㅟ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점을 빠뜨렸다. ②는 단모음의 성질이다. 이중 모음은 발음하는 동안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달라진다.

문법02 · 음운의 변동

문법02-Q01 문제 15쪽

정답: 교체. ㅂ 하나가 ㅁ 하나로 바뀌었다. 있던 소리가 없어지거나 다른 소리와 합쳐진 것이 아니며, 소리 수는 그대로다.

문법02-Q02 문제 15쪽

정답: ③. 탈락과 축약은 모두 소리 수가 줄어들 수 있다. 기존 소리 중 하나가 남는지, 새 소리가 되는지까지 확인해야 구별된다. ①의 글자 칸 수는 음운 수와 같지 않고, ②의 소리 수 감소만으로는 두 종류를 구별할 수 없다.

문법02-Q03 문제 16쪽

정답: 빛. '빛[빋]'은 ㅊ이 음절 끝에 남아 ㄷ으로 바뀐다. '빛을[비츨]'은 ㅊ이 그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이어진다. 연음 자체는 음운의 교체가 아니다.

문법02-Q04 문제 16쪽

정답: ①. 조사 '을'이 모음으로 시작하므로 받침 ㅊ이 그대로 연음되어 [꼬츨]이 된다. ②는 받침이 놓인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언제나 대표음으로 바꾼다는 점이 틀렸다.

문법02-Q05 문제 16쪽

정답: ②. 뒤의 '옷'은 구체적인 뜻을 가진 실질 형태소다. 앞의 ㅌ은 대표음 ㄷ으로 바뀐 뒤 연음된다. '옷'은 조사가 아니므로 ①은 틀렸다. 낱말 끝의 ㅅ도 ㄷ으로 바뀌어 최종 발음은 [거돋]이다.

문법02-Q06 문제 17쪽

정답: (가) 같음, (나) 다름. ㅂ과 ㅁ은 모두 입술소리다. 조음 방법은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달라진다. 비음 ㄴ 앞에서 ㅂ이 ㅁ으로 바뀌는 비음화다.

문법02-Q07 문제 18쪽

정답: ㄴ이 ㄹ로 바뀜, 유음화. 앞의 ㄴ이 뒤의 ㄹ의 영향을 받아 같은 유음 ㄹ이 된다. 뒤의 ㄹ이 바뀐 것이 아니다.

문법02-Q08 문제 18쪽

정답: (가) 유음화, (나) 비음화. '진리[질리]'에서는 ㄴ→ㄹ, '생산량[생산냥]'에서는 ㄹ→ㄴ이 일어난다. 어떤 자음이 만났는지만 보지 않고, 제시된 발음에서 실제로 바뀐 결과를 확인한다.

문법02-Q09 문제 18쪽

정답: ㄷ→ㅈ, 구개음화. 돋-의 끝소리 ㄷ이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인 접미사 -이와 결합하여 ㅈ으로 바뀐다. 뒤의 ㅣ는 그대로다.

문법02-Q10 문제 19쪽

정답: X. '견디-' 안의 ㄷ과 ㅣ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형태소 경계에 놓이지 않았다. ㄷ 뒤에 ㅣ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견디다'는 [견디다]로 발음한다.

문법02-Q11 문제 20쪽

정답: ②. 받침 ㅂ 뒤의 ㄱ이 ㄲ으로 바뀐 된소리되기다. ㄲ은 자음 하나이므로 ①의 첨가가 아니다. ㅂ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③처럼 ㅂ과 ㄱ이 합쳐진 것도 아니다.

문법02-Q12 문제 20쪽

정답: ②. '감고'는 ㅁ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감-에 어미 -고가 붙은 경우다. '밤도'는 명사 밤에 조사 도가 붙었다. ①처럼 앞의 ㅁ만 보면 두 발음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문법02-Q13 문제 21쪽

정답: ㅜ→w, 교체(반모음화). 어간의 단모음 ㅜ가 반모음 w로 바뀌고 어미의 ㅓ는 남는다. 이 자료의 분석에서는 구성 음운 수가 줄지 않으며, 주/어 두 음절이 줘 한 음절이 된다.

문법02-Q14 문제 21쪽

정답: X. 이 자료에서는 ㅕ를 j+ㅓ로 분석한다. 한 음절이라는 사실과 구성 음운이 하나라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니다. 단모음 ㅣ가 반모음 j로 바뀌어도 ㅓ는 남는다.

문법02-Q15 문제 22쪽

정답: ㄹ, 자음군 단순화. 겹받침 ㅀ에서 ㄹ이 탈락하고 ㅁ이 남는다. 뒤 음절의 ㄷ→ㄸ은 별도의 된소리되기다.

문법02-Q16 문제 23쪽

정답: 읽고, ㄱ(자음군 단순화). 용언 어간 ㄺ 뒤에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으면 겹받침에서는 ㄹ이 남는다. 뒤 어미의 ㄱ은 ㄲ으로 발음된다. '읽어 **[일거]**'는 ㄹ은 받침에 남고 ㄱ은 연음되어 둘 다 발음된다.

문법02-Q17 문제 23쪽

정답: X. ㄱ·ㅏ·ㅂ·ㅆ·ㅣ로 발음되며, ㅅ은 뒤 음절 첫소리로 이어져 된소리 ㅆ으로 발음된다. ㅅ이 없어진 자음군 단순화로 보지 않는다. 겹받침의 두 자음 ㅂ과 ㅅ이 모두 발음에 반영된다.

문법02-Q18 문제 24쪽

정답: (가) ㄹ, (나) ㅎ. '우는'에서는 어간 울-의 ㄹ이 -는 앞에서 탈락한다. '쌓아**[싸아]**'에서는 어간 쌓-의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 앞에서 탈락한다.

문법02-Q19 문제 24쪽

정답: ㅡ. 어간 크-의 끝모음 ㅡ가 -어 앞에서 탈락하고 ㅓ가 남는다. 결과인 '커'의 모음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크-와 -어를 나누어 비교한다.

문법02-Q20 문제 24쪽

정답: ①. 같은 모음 ㅏ 둘 중 하나가 없어지고 ㅏ가 남는 동일 모음 탈락이다. 다른 종류의 새 모음이 된 것이 아니므로 ②는 틀렸다.

문법02-Q21 문제 26쪽

정답: ㄱ+ㅎ→ㅋ, 축약(거센소리되기). ㄱ과 ㅎ이 새 자음 ㅋ 하나가 되었다. 기존 소리 하나만 남는 탈락이나 한 소리만 바뀌는 교체가 아니며, 소리가 더해진 첨가도 아니다.

문법02-Q22 문제 26쪽

정답: ②. 제시한 분석에서는 ㅏ와 ㅣ가 새 단모음 ㅐ 하나가 된다. ①은 기존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고 다른 단모음은 남는 반모음화의 설명이다.

문법02-Q23 문제 27쪽

정답: ㄴ. 자음 ㄴ으로 끝나는 '한-' 뒤에 j로 시작하는 모음 ㅕ가 오는 결합이다. 기존 '한-'의 받침 ㄴ 외에 '여름' 앞에 ㄴ이 새로 더해져 **[한녀름]**이 된다.

문법02-Q24 문제 27쪽

정답: ①. 솔+잎 사이에 ㄴ이 첨가되고, 그 ㄴ이 앞의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뀐다. ②는 첨가되는 소리와 변화 방향이 모두 잘못되었다. 끝소리 ㅍ→ㅂ은 이와 별개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문법02-Q25 문제 27쪽

정답: 반모음 첨가, 기존 ㅚ가 남는다. ㅚ와 ㅕ 사이에 j가 더해졌다. ㅚ가 j로 바뀐 반모음화로 설명하지 않는다. 이 문항은 제시한 ㅚ+ㅕ→ㅚ+j+ㅕ 분석을 기준으로 한다.

문법02-Q26 문제 28쪽

정답: X. '길가**[길까]**'는 합성어에서 뒷말의 ㄱ이 ㄲ으로 바뀐 사잇소리 현상이다. 사이시옷을 적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소리 현상도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

문법02-Q27 문제 28쪽

정답: ㄴ 두 개. 합성 전의 나무+잎과 비교하면 '무'의 받침 ㄴ과 '잎' 앞의 ㄴ이 더해져 **[나문닙]**이 된다. 끝소리 ㅍ→ㅂ은 첨가된 소리에 포함하지 않는다.

문법02-Q28 문제 29쪽

정답: (가) 자음군 단순화, (나) 비음화. ㅄ 중 ㅅ이 없어져 ㅂ만 남는 것은 탈락이다. 이어서 비음 ㅁ 앞의 ㅂ이 ㅁ으로 바뀌는 것은 교체다. ㅂ과 ㅅ이 ㅁ으로 한꺼번에 축약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문법02-Q29 문제 29쪽

정답: 앞 단계는 축약, 뒤 단계는 교체. ㄷ과 ㅎ이 ㅌ 하나로 합쳐지는 거센소리되기가 먼저이고, 이어 ㅌ이 ㅣ 앞에서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두 단계를 하나의 교체로 합쳐 세지 않는다.

문법02-Q30 문제 29쪽

정답: X. ㄴ 첨가로 하나가 늘고, 자음군 단순화로 ㅅ이 없어져 하나가 줄며, ㄱ→ㅇ 교체는 개수를 바꾸지 않는다. 처음과 끝의 음운 수가 같아도 첨가·탈락·교체가 함께 일어날 수 있다.

문법03 · 형태소와 단어의 짜임

문법03-Q01 문제 32쪽

정답: 2어절, 3단어. 어절은 '학생이/걸었다', 단어는 '학생/이/걸었다'이다. 조사 '이'는 단어로 센다.

문법03-Q02 문제 32쪽

정답: ②. 동작·과거·종결의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로 나눈 것이다. ①의 단어로는 '먹었다' 하나이다.

문법03-Q03 문제 33쪽

정답: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피-'는 어미와 결합해야 하지만 꽃이 피는 동작의 뜻을 가진다.

문법03-Q04 문제 33쪽

정답: O. '을'은 받침 뒤, '를'은 받침 없는 말 뒤에 쓰이며 기능은 같다.

문법03-Q05 문제 34쪽

정답: 높이-. 활용에서는 접미사까지 포함한 '높이-'가 어간이다.

문법03-Q06 문제 34쪽

정답: X. 명사 '풋배'의 단어 형성을 분석한 것이므로 '배'는 어근이다.

문법03-Q07 문제 35쪽

정답: 합성어. 두 어근의 결합이며 '-다'는 활용 어미이다.

문법03-Q08 문제 35쪽

정답: ①. 마지막에 두 어근 '풋사과'와 '나무'가 결합했다. ②는 내부의 '풋사과'가 파생어라는 사실을 전체에 잘못 적용한 것이다.

문법03-Q09 문제 37쪽

정답: ②. '검-'과 '붉-' 사이에 연결 어미가 없다. ①과 달리 어근은 둘이다.

문법03-Q10 문제 37쪽

정답: X. '늦-'과 '잠'의 배열은 비통사적이고, 앞 어근이 뒤 어근의 뜻을 한정하므로 의미 관계는 종속적이다. 서로 다른 기준이어서 함께 성립한다.

문법03-Q11 문제 38쪽

정답: ②. '마시기'는 목적어 '물을', 부사어 '빨리'와 함께 동사의 서술 기능을 유지한다. ①처럼 새 명사로 바뀐 것이 아니다.

문법03-Q12 문제 38쪽

정답: 접미사. 어근 '먹-' 뒤에 붙어 새 명사 '먹이'를 만든다. 어근 앞의 접두사나 용언을 활용시키는 어미가 아니다.

문법04 · 품사

문법04-Q01 문제 41쪽

정답: ②. '이다'가 '이고'로 활용한다. ①의 '친구'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문법04-Q02 문제 42쪽

정답: 의존 명사. '가져갈'의 꾸밈을 받고 뒤에 조사 '이'가 붙는다.

문법04-Q03 문제 42쪽

정답: 셋=수사, 세=관형사. '셋'은 수량을 가리키는 체언, '세'는 명사 '상자'를 꾸미는 수 관형사이다.

문법04-Q04 문제 43쪽

정답: ②. '만'은 한정의 뜻을 보탠다. ①처럼 격을 표시하거나 ③처럼 두 말을 잇지 않는다.

문법04-Q05 문제 43쪽

정답: O. 동생·형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함께 주어를 이루게 한다.

문법04-Q06 문제 44쪽

정답: X. ‘맑다’가 ‘맑은’으로 활용했으므로 품사는 형용사이다. 문장 성분이 관형어인 것과 구별한다.

문법04-Q07 문제 44쪽

정답: 앞=보조 용언, 뒤=본용언. 앞은 편지를 쓰는 동작에 시도의 뜻을 더하고, 뒤는 편지를 보는 동작 자체를 나타낸다.

문법04-Q08 문제 46쪽

정답: 선어말 어미. 가-+-시-+-었-+-다에서 어말 어미 ‘-다’ 앞에 놓인다.

문법04-Q09 문제 46쪽

정답: X. ㄹ 탈락으로 설명되는 규칙 활용이다.

문법04-Q10 문제 46쪽

정답: ‘질문하다’의 묻다. 모음 어미 앞에서 ㄷ이 ㄹ로 변한다. ‘땅속에 넣다’는 ㄷ을 유지한다.

문법04-Q11 문제 46쪽

정답: ②. 어간 ‘푸르-’는 유지되고 어미 ‘-어’가 ‘-러’로 나타난다. ①은 ‘흐르다→흘러’처럼 어간의 변화가 있는 경우이다.

문법04-Q12 문제 47쪽

정답: 감탄사. 놀람을 독립적으로 나타내며 두 체언을 이어 주지 않는다.

문법04-Q13 문제 47쪽

정답: 빨리=부사, 빠른=형용사. ‘빠른’은 형용사 ‘빠르다’의 활용형이다. 각각 부사어·관형어라는 문장 성분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문법04-Q14 문제 47쪽

정답: 다섯뿐=조사, 기다릴 뿐=의존 명사. 앞은 체언에 붙어 한정의 뜻을 더하고, 뒤는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다.

문법05 · 어휘와 의미 관계

문법05-Q01 문제 50쪽

정답: X. 외래어는 다른 언어에서 들어와 우리말의 일부로 쓰이는 말이다.

문법05-Q02 문제 51쪽

정답: 사용 범위. 어느 집단에서 주로 쓰이는지를 본 것으로, 기원과 다른 기준이다.

문법05-Q03 문제 52쪽

정답: X. 길다/짧다는 등급 반의 관계여서 중간 정도를 인정할 수 있다.

문법05-Q04 문제 52쪽

정답: 관계 반의. 같은 대여 행위를 서로 대응하는 참여자의 관점에서 표현한다.

문법05-Q05 문제 53쪽

정답: 악기—바이올린=상하 관계, 바이올린—현=부분·전체 관계. 바이올린은 악기의 한 종류이고, 현은 바이올린을 이루는 부분이다.

문법05-Q06 문제 53쪽

정답: X. 상위·하위는 상대적 관계이므로 둘 다 성립한다.

문법05-Q07 문제 54쪽

정답: 다의 관계. 몸의 맨 윗부분에서 줄의 맨 앞부분으로 뜻이 관련되어 확장되었다. 의미적으로 별개의 두 단어인 동음이의 관계와 구별한다.

문법05-Q08 문제 54쪽

정답: X. 의미의 관련성도 살펴야 한다. 별개의 뜻이라면 동음이의어일 수 있다.

문법05-Q09 문제 55쪽

정답: O. '비밀 등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관용적 뜻을 문맥에서 파악해야 한다.

문법05-Q10 문제 55쪽

정답: 축소. 단어가 가리키는 범위가 줄었다.

문법06 · 문장 성분과 구조

문법06-Q01 문제 57쪽

정답: 눈이 내리면. '눈이—내리다'의 관계가 있다. '매우 천천히'는 부사구이다.

문법06-Q02 문제 59쪽

정답: 그 아이는=주어, 화가가=보어. '화가가'는 '아니다' 앞에서 보격 조사 '가'와 결합하여 주어 외에 뜻을 보충하는 보어이다.

문법06-Q03 문제 59쪽

정답: 부사어. 명사 '도서관'과 조사 '에서'가 결합하여 장소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전체를 부사라는 품사로 부르지 않는다.

문법06-Q04 문제 60쪽

정답: 세 자리, 주어·목적어·필수 부사어. 놓는 이 '민지가', 놓는 물건 '공책을', 놓는 곳 '책상에'가 필요하다.

문법06-Q05 문제 60쪽

정답: X. '닮다'의 비교 상대, '주다'의 받는 이 같은 필수 부사어가 있다.

문법06-Q06 문제 61쪽

정답: X. '나는—걸었다'가 한 번 나타나므로 홑문장이다.

문법06-Q07 문제 63쪽

정답: 종속. 앞 절이 뒤 절 사건의 원인을 나타낸다.

문법06-Q08 문제 63쪽

정답: 명사절. 명사형 어미 '-기'로 끝나고 조사 '를'과 결합하여 목적어를 이룬다.

문법06-Q09 문제 63쪽

정답: '언니가 만든', 목적어 '인형을'. '언니가 인형을 만들었다'에서 꾸밈을 받는 명사에 대응하는 목적어가 빠졌다.

문법06-Q10 문제 63쪽

정답: 귀가 크다. 내부에 '귀가—크다'의 관계가 있고 전체 문장에서 '코끼리는'에 대한 서술어 역할을 한다.

문법06-Q11 문제 64쪽

정답 예: 우리의 약속은 서로 돕는 것이다. '약속은'에 맞는 서술어를 갖춘다.

문법06-Q12 문제 64쪽

정답 예: 동생이 나온 사진. 촬영자나 소유자가 아니라 사진에 나타난 대상을 명시한다.

문법07 · 문법 표현

문법07-Q01 문제 68쪽

정답: 청유문.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정리할 것을 제안한다.

문법07-Q02 문제 68쪽

정답: O. 형식과 발화 의도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문법07-Q03 문제 69쪽

정답: 객체. 책을 받는 대상인 교수님을 높인다. 종결 '-습니다'의 상대 높임과 구별한다.

문법07-Q04 문제 69쪽

정답: 간접 주체 높임. 높일 사람과 밀접한 신체 부분을 통해 선생님을 높인다.

문법07-Q05 문제 69쪽

정답: O. ‘닫습니다’는 하십시오체, ‘닫아요’는 해요체이다.

문법07-Q06 문제 71쪽

정답: 현재 상황에 대한 추측. ‘지금쯤’의 상황을 헤아리는 뜻이다.

문법07-Q07 문제 71쪽

정답: 완료상. 모자를 쓰는 동작이 끝난 뒤의 결과 상태가 이어진다.

문법07-Q08 문제 71쪽

정답: O. 관형절 사건을 본 사건시와 비교하면 동시이며, 발화시보다 앞선 과거 사건일 수 있다.

문법07-Q09 문제 72쪽

정답: 주어. 동작의 대상인 도둑이 피동문에서 주어가 되었다.

문법07-Q10 문제 72쪽

정답: O. ‘읽다’에 피동 접미사 ‘-히-’와 ‘-아/어지다’가 겹쳤다. 이 문장에서는 ‘읽힌다’로 다듬는다.

문법07-Q11 문제 74쪽

정답: 사동. 언니가 동생이 깨도록 했다.

문법07-Q12 문제 74쪽

정답: X. 이름이 알려지는 대상이 된 피동 표현이다. ‘알리다’의 사동 요소와 ‘-어지다’의 피동 결합을 문장 전체의 의미로 판단한다.

문법07-Q13 문제 75쪽

정답: 오늘. 어제 말한 ‘내일’이 전달하는 날인 오늘에 해당한다.

문법07-Q14 문제 75쪽

정답 예: 친구가 함께 가자고 말했다. 청유의 뜻을 ‘-자고’로 옮긴다.

문법07-Q15 문제 76쪽

정답: 상황 부정. 교통편이 없어서 행동을 하지 못한 것이다.

문법07-Q16 문제 76쪽

정답: O. ‘-지 말자’는 함께 어떤 행동을 하지 않자고 제안한다.

문법08 · 담화

문법08-Q01 문제 78쪽

정답: ②. 손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김치 가까이에 앉은 아빠에게 말했으므로 건네 달라는 간접 요청으로 이해한다. ①은 문장의 표면적 정보만 보고 상황의 의도를 놓친 것이다.

문법08-Q02 문제 78쪽

정답: 언어적 맥락. 앞뒤 발화 내용을 활용한다.

문법08-Q03 문제 79쪽

정답 예: 비가 많이 와서 경기가 취소된 일. 앞에서 말한 사건 내용을 대신한다.

문법08-Q04 문제 79쪽

정답: ①. 앞의 준비와 뒤의 결과를 잇는다. ②는 대조를 나타내어 주어진 관계에 맞지 않는다.

문법08-Q05 문제 80쪽

정답: 통일성. 전체 주제·목적에 맞는 내용인지의 문제이다.

문법08-Q06 문제 82쪽

정답: 질의 격률. 근거 없는 내용을 사실처럼 제시했다.

문법08-Q07 문제 82쪽

정답: 관용. 자신이 부담을 맡는다는 점에 초점을 둔다.

문법08-Q08 문제 82쪽

정답: X. 공동체의 문화와 참여자·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법09 · 어문 규범

문법09-Q01 문제 84쪽

정답: 어법에 맞게 적기. 체언 '밭'과 조사 '이'의 본모양과 결합 관계를 드러내어 적는다.

문법09-Q02 문제 85쪽

정답: X. ㄱ 받침 뒤의 일반적인 된소리되기이므로 뒤의 ㄷ을 된소리 글자로 적지 않고 '깍두기'로 적는다.

문법09-Q03 문제 85쪽

정답: 비율. 모음 뒤의 해당 한자음은 '율'로 적는다.

문법09-Q04 문제 86쪽

정답: O. 앞말 '손'에 이미 ㄴ 받침이 있으므로 사이시옷을 덧적지 않는다. 된소리로 나는 사잇소리 현상과 ㅅ 표기 조건은 구별한다.

문법09-Q05 문제 87쪽

정답: 횟수. 사이시옷을 적는 두 음절 한자어 예외에 해당한다. '회수'는 도로 거두어들임 등 다른 뜻에 쓰인다.

문법09-Q06 문제 88쪽

정답: 돼. '되어'가 줄어든 '돼'로 문장을 끝낸다. '되-'는 어간이므로 이 문맥에서 혼자 종결하지 못한다.

문법09-Q07 문제 88쪽

정답: 읽든지 쓰든지. 읽기와 쓰기 중 어떤 행동을 하든 상관없다는 선택의 문맥이다. 과거를 회상하는 '-던'과 구별한다.

문법09-Q08 문제 90쪽

정답: 먹을 만큼. '만큼'이 관형어 '먹을'의 꾸밈을 받는 의존 명사이다.

문법09-Q09 문제 90쪽

정답: X. 이 구성은 붙임 허용 대상이 아니다.

문법09-Q10 문제 90쪽

정답: 만난 지. 지난 시간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 '지'이므로 앞의 관형어와 띄어 쓴다.

문법09-Q11 문제 91쪽

정답: O.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다.

문법09-Q12 문제 91쪽

정답: X. 표기상 초성이 ㄴ인 '늬'는 [니]로 발음하므로 표준 발음은 [하니바람]이다.

문법09-Q13 문제 92쪽

정답: X. 발음의 허용이 조사 표기를 바꾸지는 않는다. '의'로 적는다.

문법09-Q14 문제 92쪽

정답: X. 허용 발음도 표준 발음의 범위에 포함된다.

문법10 · 국어의 변화와 문자

문법10-Q01 문제 94쪽

정답: X. 말은 있었으며 한자 차용 등을 통해 기록했다. 문자 창제와 언어의 존재는 구별한다.

문법10-Q02 문제 95쪽

정답: 구결. 한문을 읽는 데 필요한 토를 덧붙인다.

문법10-Q03 문제 97쪽

정답: 가획. 기본자에 획을 더해 관련 글자를 만든다. 상형은 기본자를 본뜬 원리, 연서는 위아래로 이어 쓰는 방식이다.

문법10-Q04 문제 97쪽

정답: X. 창제 당시 글자 수와 현대 국어 음운 수는 대상과 시대가 다르다.

문법10-Q05 문제 97쪽

정답: 합용 병서.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면 각자 병서, 위아래로 이어 쓰면 연서이다.

문법10-Q06 문제 99쪽

정답: 상성. 낮았다가 높아지는 성조를 나타낸다.

문법10-Q07 문제 99쪽

정답: 모음 조화. 같은 계열 모음끼리 어울리는 경향이 조사 선택에 반영된다.

문법10-Q08 문제 99쪽

정답: 이어 적기. 앞말의 받침 ㅂ을 뒤 음절의 첫소리에 이어 적었다. 본모양을 밝혀 '밥이'로 적으면 끊어 적기이다.

문법10-Q09 문제 101쪽

정답: X. 주격 조사의 영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기능은 문장의 관계로 판단한다.

문법10-Q10 문제 101쪽

정답: X. 중세의 관형격 조사와 현대 합성어의 사이시옷은 기능과 규칙이 다르다.

문법10-Q11 문제 101쪽

정답: 설명 의문.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의문문에 쓰였고, 긍정·부정을 판단하는 의문에는 '-가/-녀' 등의 계열이 쓰였다.

문법10-Q12 문제 103쪽

정답: 원순 모음화. 입술소리 ㅍ 뒤에서 평순 모음 ㅡ가 원순 모음 ㅜ로 바뀌었다.

문법10-Q13 문제 103쪽

정답: X. 형태를 글자에 어떻게 배치하느냐의 차이이다. 표기 차이만으로 발음 차이를 단정할 수 없다.

문법10-Q14 문제 103쪽

정답: O. 어리석다는 옛뜻으로 쓰인 문맥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개념 찾아보기

문법01

개념	번호	쪽
음운	문법01-01	4
음성	문법01-02	4
최소 대립쌍	문법01-03	4
분절 음운	문법01-04	5
비분절 음운	문법01-05	5
음절	문법01-06	6
자음	문법01-07	6
조음 위치	문법01-08	7
조음 방법	문법01-09	7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	문법01-10	7
모음	문법01-11	9
단모음	문법01-12	9
단모음의 분류	문법01-13	9
이중 모음	문법01-14	10
반모음	문법01-15	11

문법02

개념	번호	쪽
음운의 변동	문법02-01	14
교체	문법02-02	14
탈락	문법02-03	14
축약	문법02-04	14
첨가	문법02-05	14
음절의 끝소리 규칙	문법02-06	15
연음	문법02-07	15
비음화	문법02-08	17
유음화	문법02-09	17
구개음화	문법02-10	18
된소리되기(경음화)	문법02-11	19
반모음화	문법02-12	20
자음군 단순화	문법02-13	21
ㄹ 탈락	문법02-14	23
ㅎ 탈락	문법02-15	23
ㅡ 탈락	문법02-16	23
동일 모음 탈락	문법02-17	23
거센소리되기(자음 축약)	문법02-18	25
모음 축약	문법02-19	25
ㄴ 첨가	문법02-20	26
반모음 첨가	문법02-21	26
사잇소리 현상	문법02-22	27

문법03

개념	번호	쪽
형태소	문법03-01	32
단어	문법03-02	32
어절	문법03-03	32
형태소의 교차 분류	문법03-04	33
이형태	문법03-05	33
어근	문법03-06	34
접사	문법03-07	34
어간	문법03-08	34
어미	문법03-09	34
단일어	문법03-10	35
합성어	문법03-11	35
파생어	문법03-12	35
직접 구성 요소	문법03-13	35
배열에 따른 분류	문법03-14	36
의미에 따른 분류	문법03-15	36
접두·접미 파생	문법03-16	37
명사 파생 접미사와 명사형 어미	문법03-17	37

문법04

개념	번호	쪽
품사	문법04-01	40
형태 기준	문법04-02	40
명사	문법04-03	41
대명사	문법04-04	41
수사	문법04-05	41
조사	문법04-06	42
동사·형용사	문법04-07	43
본용언·보조 용언	문법04-08	43
어미의 종류	문법04-09	45
규칙 활용	문법04-10	45
불규칙 활용	문법04-11	45
관형사·부사·감탄사	문법04-12	46
품사와 문장 성분	문법04-13	46
문맥에 따른 품사 판별	문법04-14	46

문법05

개념	번호	쪽
어휘	문법05-01	49
기원에 따른 갈래	문법05-02	49
사용 범위에 따른 갈래	문법05-03	50
유의 관계	문법05-04	51
반의 관계	문법05-05	51
상하 관계	문법05-06	52
부분·전체 관계	문법05-07	52
다의어	문법05-08	53
동음이의어	문법05-09	53
의미의 여러 측면	문법05-10	54
관용 표현	문법05-11	54
의미 변화	문법05-12	54

문법06

개념	번호	쪽
구	문법06-01	57
절	문법06-02	57
문장	문법06-03	57
문장 성분	문법06-04	58
주어·목적어·보어	문법06-05	58
부속 성분과 독립 성분	문법06-06	58
서술어의 자릿수	문법06-07	59
필수 부사어	문법06-08	59
홑문장·겹문장	문법06-09	60
이어진문장	문법06-10	61
안은문장·안긴절	문법06-11	61
관형절 속 성분의 생략	문법06-12	61
절의 범위 읽기	문법06-13	61
정확한 문장	문법06-14	63
중의성	문법06-15	63

문법07

개념	번호	쪽
종결 표현	문법07-01	67
의문문의 종류	문법07-02	67
세 높임법	문법07-03	68
직접·간접 주체 높임	문법07-04	68
상대 높임의 등급	문법07-05	68
시제	문법07-06	70
절대 시제·상대 시제	문법07-07	70
동작상	문법07-08	70
능동·피동	문법07-09	71
피동의 실현	문법07-10	71
이중 피동 주의	문법07-11	71
주동·사동	문법07-12	73
사동의 실현	문법07-13	73
피동·사동의 판별	문법07-14	73
직접·간접 인용	문법07-15	74
부정 표현	문법07-16	75
부정 범위	문법07-17	75

문법08

개념	번호	쪽
발화	문법08-01	77
담화	문법08-02	77
맥락	문법08-03	77
담화를 잇는 표현	문법08-04	78
통일성	문법08-05	79
응집성	문법08-06	79
협력의 원리	문법08-07	80
공손성의 원리	문법08-08	80
체면 유지	문법08-09	80
담화 관습	문법08-10	81

문법09

개념	번호	쪽
표기의 기본 원리	문법09-01	83
소리에 관한 표기	문법09-02	84
두음 법칙과 표기	문법09-03	84
형태에 관한 표기	문법09-04	84
사이시옷	문법09-05	86
준말 표기	문법09-06	87
문맥으로 가르는 표기	문법09-07	87
단어·조사·의존 명사	문법09-08	88
보조 용언 띄어쓰기	문법09-09	88
문장 부호	문법09-10	88
원칙·허용·비표준	문법09-11	90
모음의 표준 발음	문법09-12	90
음의 길이	문법09-13	90
받침·동화·첨가의 적용	문법09-14	90

문법10

개념	번호	쪽
시대별 국어	문법10-01	94
차자 표기	문법10-02	94
창제의 취지	문법10-03	95
초성자 제자 원리	문법10-04	95
중성자 제자 원리	문법10-05	95
글자의 운용	문법10-06	95
음운 체계의 특징	문법10-07	97
모음 조화	문법10-08	97
방점과 성조	문법10-09	97
표기의 특징	문법10-10	98
조사의 형태와 기능	문법10-11	99
특수한 체언 결합	문법10-12	99
의문문·높임·시간·명사형	문법10-13	99
음운과 표기의 변화	문법10-14	101
문법의 변화	문법10-15	101
어휘의 변화	문법10-16	101

© 대치동 재우쌤